금주의 법구-〈아함경〉
들을 때는 들리는 것만 있게 하고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6월 2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60호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평창올림픽 파이팅 8월 5일 조계종 체육인불자회(회장 박종길)가 개최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불자선수들과 스님들, 체육인 불자들이 동계올림픽에서의 선전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는 선수 30여명을 비롯한 100여 불자들이 참여해 경기력 향상 명상 등을 소화했다. 〈관련 기사 A5면〉 노덕현 기자

연등달기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불교문화로 올림픽 'Boom Up'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불교계가 뛴다

'문화올림픽'을 기치로 한 평창올림픽이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교계가 불교문화를 활용한 올림픽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대회를 계기로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선수 관리부터 법당 운영 체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29개 회원종단에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100만 연등 달기'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강원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가로등이 아닌 대웅전 주불 대형연등을 다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조계종과 천태종 등을 중심으로 전국사찰에 연등 설치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종단협은 9월 6~8일 서울 봉은사서 열리는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서 올림픽을 통한 동북아지역의 화합을 염원할 계획이다. 현재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불교계의 공동선언을 통해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대회가 아닌 지역 평화를 이끄는 장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교우호교류대회 본대회에 앞서 6일 저녁 개최되는 전야제 성격의 합창제서는 평창올림픽 홍보영상 상영과 대규모 연합합창단이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보현행원송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9월 6일 경 국제포교사 중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통번역 교육을 실시한다. 국제포교사회는 3월 IOC위원들의 월정사 참배에서도 통역봉사를 맡은 바 있다.

민병원 국제포교사회 사무처장은 "평창올림픽은 국제포교의 또 다른 기회"라며 "3월 행사서 국제포교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현재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가 가능한 15명의 국제포교사들로 팀을 구축한 상태"라고 말했다.

불교문화를 올림픽 기간 홍보하기 위한 작업도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기원하며 2017불자대상 수상자인 미스코리아 금나나 씨 등이 출연한 강원지역 식재료 활용 사찰음식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사찰음식 페이스북(jogyeorder. templefood)과 블로그(blog.naver. com/templestaygo)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올림픽 열기 고조 기여
종단협, 100만 연등달기
국제포교사 통역 · 교육
사찰음식, 페이스북 공개

불교콘텐츠 확보 과제
오대산 불교콘텐츠 개발
선수 스토리텔링 · 관리 필요
"1회성 행사 끝나선 안 돼"

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전후 동안 외국인 템플스테이 체험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템플스테이 사찰 확대 운영에 나선다. 평창 월정사, 양양 낙산사, 속초 신흥사, 인제 백담사 등 강원 내 주요사찰(13곳 예정) 및 수도권(9곳 예정)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을 중심으로 통역 전담 자원봉사자 약 150명을 배치하는 한편, 강원지역 문화관광과 연계된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도 올림픽 기간 동안 춘천박물관과 함께 '강원의 성자와 미소'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상원사 문수보살과 오백 나한 등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다.

하지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하는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국민과 세계적인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여 불교계가 나선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월정사 등 지역사찰이 나서고 있지만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행사 진행에 그쳐서는 안된다. 선수 응원을 넘어 스포츠 명상 등 콘텐츠 개발의 기회로도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릉선수촌 법당 주지 퇴휴 스님은 비인기 종목을 위한 불교 만의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퇴휴 스님은 "올림픽 기간 메달을 획득하는 선수, 종목에만 관심이 몰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수포교를 위해서는 인기 · 비인기를 넘어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자선수들은 또 다른 포교사다. 바이애슬론과 같이 비인기 종목을 불자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불교계가 진행하고, 미담사례도 적극 개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 윤호섭 · 박아름 기자

선거관리 강화 '공명선거단' 운영

조계종 중앙선관위, 8월 31일 발족 예정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명선거위원단'이 발족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8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27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관리 방안 논의 후 이 같이 결의했다.

공명선거위원단은 8월 18일까지 교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1인을 추천받아 구성하며, 이달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위원단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중앙 · 교구선관위와 각 교구 호법국장 등은 합동워크숍을 통해 선거관리에 따른 업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선관위와 호법부는 공정한 선거를 당부하는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며, 사전 선거운동과 부정선거를 예방하기 위한 특강도 진행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회의서 금산사 주지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성우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율원분야 보궐선거에 출마한 원명 스님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승가대 교수를 맡고 있는 성우 스님의 겸직금지와 관련 "현행 종법상 상근직 종무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면서 "지방승가대학 교수와 말사주지 등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상근종무원으로 볼 수 있는 교학처장

교구본사별 1인 추천
선거활동 감시 나선다

직을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전문성에 관한 규정 보완을 중앙종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320차 회의서도 종법에 명시된 직능대표 조항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모호함을 지적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종교지도자들 '비핵 메시지' 호소

日 종교대표자회의, 2000여 종교인 참석 토론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핵무기 폐기' 강연자 나서

세계 각국의 종교지도자들이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테러와 빈곤, 핵 문제 등 세계적인 현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일본 종교대표자회의는 불교 · 기독교 · 이슬람교 등 19개국 약 2,000여 명의 종교단체 대표자들을 초청, 8월 3~4일 국립교토국제회관과 비예산 연력사, 장군총 청용전 등지에서 '세계종교자 평화의 기도모임'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종교인들은 연력사에서 핵 폐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등 '비예산 메시지 2017'을 채택했다. 종교지도자들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의 폐기는 노인이 된 피폭자가 생존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강하게 호소해 나가야한다"며 "원자력 이용의 한계를 깊이 자각해야 한다. 핵폐기물을 남기는 핵에너지의 이용은 미래가 없다. 핵무기와 핵에너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메시지 채택에 앞서 각국 종교지도자들의 강연도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이 '핵무기 폐기와 원자력 문제를 생각한다'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1160호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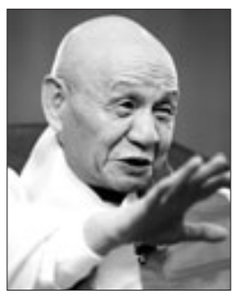
신행 · 복지 A6
파라미타연합회
청소년 국제캠프 현장

테마人 B1 · 2
고양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



“서로 봤으면, 다 말하고 들었다”

백담사 하안거 해제, 무산 스님의 30초 一聲 ‘화제’



“나는 대중 여러분 한번 바라 보고 대중 여러분들은 나 한번 바라보면, 나는 내가 할 말을 다했고 여러분들은 오늘 들을 말을 다 들은 겁니다. 날씨도 덥고 하니 서로 한번 마주보고 그랬으면, 할 말 다하고 들을 말은 다 들은 겁니다. 오늘 법문은 이게 끝입니다.”

설악 무산 스님(조계종립기본선원, 신흥사 조실 · 사진)이 8월 5일 오전 10시 백담사 검인당서 열린 정유년 하안거 해제법회 현장서 한 법문의 전부다.

30초 정도 밖에 안되는 촌철살인 같은 법문을 남기고, 그것도 주장자 대신 손뼉으로 법문을 마친 설악 무산 스님은 일체의 설명과 사족없이 곧바로 법상을 내려왔다. 짧고 깊은 법문에 잠시 어안이 벙벙했던 참석 대중들은 잠시 후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노선사의 법문에 화답했다. 검인당 법회 현장을 나가는 이들은 승속을 불문하고 저마다 짧지만 강한 울림이 남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심정을 피력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김진선 前 강원도지사는 “조실 스님의 법문은 역대 법회중 가장 짧았지만, 가장 긴 울림과 여운이 남는 명 법문이었다”고 평했다. 서울서 백담사 계곡에 휴가를 왔다가 조실 스님의 명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자 법회에 참석했다는 이 청정심 보살(62)도 “처음에는 너무 법문이 빨리 끝나 폭염에 괜히 왔나 실망했는데, 법회 현장을 나서면서 무산 스님의 법문을 되새겨보니, 백가지 좋은 말만 들으려 하지말고 내 자신의 내면을 닦는 실천 수행을 하라는 직설적 당부가 아닌가 생각됐다”고 진중한 어조로 말했다.

양양 낙산사 前 주지 무문 스님도 “사부대중을 향한 조실 스님의 강렬한 선기가 느껴진 법문이었다”고 밝혔다. 설악 무산 스님은 3년 전부터 안거법회 현장서의 법문을 언론과 세간의 주목이 부담스럽다며 조계종 종정 스님의 법어를 대독하는 것으로 대신했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짧은 선법문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김주일 기자

“한반도 위기… 불교계 공동 대책 필요”

대북 전문가들, 평화적 분위기 조성 ‘한 목소리’

8.15광복절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전환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한 불교계 대북 전문가들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종교계 역할을 주문했다. ‘8월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될 만큼 최고조에 이른 현 대결 양상을 전 민족적 위기로 인식하고 종교계도 공동 대처에 나서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다수의 불교계 대북 전문가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 종교 간 교류를 비롯해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종교분야 남북 교류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7월 6일에는 남북과 평화적 대화 의지를 피력한 ‘신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데 따른 반향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8월 중순 괌 포위 사격’을 공언하는 등 위협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남측 정세가 바뀌며 북측도 사회문화 교류를 재개하며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것이라 예상했는데,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북한이 이번만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핵실험을 지속하며 남북 협상에서 우위를 갖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 같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한미관계가 와해될 경우 국민 불안이 높아질 점을 우려해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 정책을 펼친다고 보인다”고 평했다. 이 가운데 종교계가 나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는

평화 분위기 조성 종교 나서야
‘종전 촉구 운동’ 등 방법 제안
하반기 신계사 · 영통사 법회
급변 정세 대비해 지속 추진

목소리가 높다. 8.15남북합동법회 등 남북 불교교류 사업이 잇따라 무산된 상황에서 이에 좌절하기보단 국가적 위기 상황에 함께 대처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창희 교수는 “불교계에서 ‘종전(終戰) 선언 촉구 운동’을 주창하는 것은 어떤가. 사실 한반도는 분단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군사적 위기가 필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불교는 평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남북 및 북미 간 대결 구도를 해소하고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데 충분히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국장도 “전 민족적인 위기 앞에 불교계가 평화적 목소리를 내야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한다. 이번 ‘8.15 한반도 평화기원법회’도 평화적 대화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스님은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종교계는 지엽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스님은 북미 관계가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스님은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북미 대결 양상에서 정부가 국민 안위를 위해 제 역할을 찾아야한다”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최종집행권자의 무책임이자 무관심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8월 15일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기원법회’는 남북 정세 여파로 합동법회 및 공동발원문 채택이 무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는 하반기 계획된 조계종의 ‘신계사 낙성 10주년 공동법회’ 및 천태종의 ‘영통사 복원 12주년 법회’ 등 개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상황이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급변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또 언제 화해 국면으로 들어설지 모른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창희 교수는 “신계사 공동행사가 무산됐다고 하기엔 시기상조다. 남북관계에는 항상 전환 시점이 존재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대화 의지를 보였고 북한도 군사적 위기 상황이 촉발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언제든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재산 국장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 후가 전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국장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항상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 됐다. 이번 UFG 훈련 후에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한국 정부가 중재자로서 보다 주도적 역할에 나선다면 새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계사 공동법회를 위해 북측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면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사무국장도 “현재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 북측에 팩스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회신이 올 경우 즉각 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선원수좌회는 8월 9일 대구 서봉사서 긴급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직선제와 적폐청산을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선원수좌회 ‘전국승려대회’ 연다

8월 9일 서봉사서 결의… 장소 · 일시 추후 결정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대표 의정, 이하 선원수좌회)가 전국승려대회를 연다. 선원수좌회는 8월 9일 대구 서봉사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직선제와 적폐청산을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 의장 월암 스님, 장로선림위원 진환 스님, 명진 스님, 김천 수도암 선원장 원인 스님 및 봉암사 · 해인사 · 백양사 수좌 스님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승려대회 개최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다만 대회의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수좌회 임원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키로 했다.

대표 의정 스님은 “한국불교 발전과 청정승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종단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선원수좌회는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가 제작한 〈조계종 적폐에 대한 10문10답〉이란 책자를 참가 대중에게 전달했다. 대구=하성미 기자



정찬주 작가의 스님이야기

버리고 떠나기, 새 삶의 통로

⑤ 스티브 잡스와 禪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에 걸려 56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혁신의 자취는 계량화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는 컴퓨터에 선불교의 옷을 입힌 선(禪) 디자이너이자 애플 회사를 창업한 기업가였다. 그는 대학 1학년 때 중퇴한 뒤 사과농장에서 히피생활을 하면서 일본인 선승 오토카와 고분 치노를 스승으로 맞아들였다고 한다. 이후 인도여행을 하고나서 선불교에 더욱 심취했다고 전해진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선불교 정신을 컴퓨터라는 문명의 이기에 접합시킨 그의 발상이다. 조주 선사가 선불교 정신을 차(茶)로 녹여내 일상으로 끌어낸 혁명과 흡사한 느낌이다! 불교를 중국화한 선불교는 이미 남전, 임제 같은 대선사들에 의해 검증이 끝난 인류의 정신적 자산이다. 좌선을 활용한 ‘집중하기’, 버리고 비우기를 통한 ‘단순해지기’, 창의력을 샘솟게 하는 ‘고정관념 깨기’ 등이 선불교가 강조한 가치들이 아닐까.

법정 스님께서도 선은 고정관념 내지는 획일성을 깨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선은 모방과 획일성을 배격한다. 저마다 업을 달리하면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어째서 남의 흉내나 내면서 범속하게 살려 하는가. 독창적인 자기 세계를 일깨워 개척하지 않고 남이 닦아놓은 남의 길을 안일하게 가려는가. 선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창조성에 몰입하여 끝없는 빛과 한없는 목숨을 드러내는 일인 것이다.”

특히 법정스님은 버리고 떠나기를 강조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차지하고 채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침체되고 묵은 과거의 늪에 갇히는 것이나 다름없고, 차지하고 채웠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비우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열리는 통로이다.”



일러스트 · 정윤경

선사들이 남긴 가르침은 우리들 주위에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스티브 잡스처럼 물질문명에 결합시킨다거나 조주선사처럼 일상생활에 구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고 보면 조주선사나 스티브 잡스는 구름 위에 머물러 있던 고고한 선불교를 형이하학적인 세계로 끌어내린 선의 경영자가 아닐까 싶다.

어린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믿던 종교를 버린 것도 극적이다. 스티브 잡스는 열세 살 때까지 다니던 교회를 돌연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부모가 구독하고 있던 〈라이프〉잡지 표지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나이지리아의 아이들이 실린 것을 보고는 주일학교 목사를 찾아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네요”하고 질문했는데, 목사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자 하나님을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 그때부터 스티브 잡스에게는 이미 불연(佛緣)이 있었던 것도 같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봉환, 불교가 이끈다

유해봉환委서 스님들 대표로 활동 나서
종단협 · 관음종 등도 추모사업 전개해와

日 국평사서 33구 봉환
서울시립공원묘지 안치
국민의식 제고 비롯해
재정 확보 과제 떠올라

최근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가 일본서 국내로 봉환되면서 이와 관련된 한국불교계의 숨은 노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상임위원장 무원)'는 8월 6일 일본 도쿄 히가시무라야마시 소재 재일동포 사찰 국평사서 일제강점기 노무동원자들의 유해 33구를 국내로 봉환했다.

위원회는 북한 출신이자 국평사 주지인 윤벽암 스님이 재일동포 무연고자들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난해 일본을 방문, 국내 봉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에 실무진들이 의사를 타진한 뒤 7월 초 상임위원장 무원 스님이 윤벽암 스님을 만나 최종적으로 봉환에 합의했다. 이번에는 합의된 유해 101구 중 33구를 1차로 봉환했다. 유해는 8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서울시립공원묘지에 안치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선조들의 유해 봉환에는 스님들의 공로가 컸다. 현재 위원회는 상임위원장 무원 스님(대전 광수사 주지)과 공동위원장 신광 스님(서울 경천사 주지) · 김삼렬 독립유공자유족회장이 대표로 활동 중이다. 무원 스님은 4년 넘도록 위원장을 맡아 유해 봉환에 앞장섰고, 최근 합류한 신광 스님은 실무 전선에 뛰어들어 의식을 집전하고 언론계에 이를 홍보하고 있다.

공동위원장 신광 스님은 "일본에 있는 선조들의 유해는 약 50만구로 추정된다. 이 중 무연고 유해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역사의 아픔을 풀어간다는 취지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일본 국평사 앞에서 유해봉환위원회 관계자들과 국평사 주지 윤벽암 스님 등이 국내로 봉환해올 희생자 유골함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

남북한 공통적으로 해당된다는 점에서 남북통일 염원과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강제징용자 유해 봉환에 대한 정관계 인식이 높진 않지만 희생자 추모 사업은 불교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지난해 1월 일본 야마구치현 죠세이탄광 추모비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영령 위령재'를 봉행했다. 위령재는 2015년 일본서 열린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서 외교부 관계자가 추모행사를 종단협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역시 지난 2월 같은 곳에서 위령재를 봉행해 선조들의 넋을 기렸다. 관음종은 2015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일제 징용자 유골 봉환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무원)은 2015년 러시아 사할린서 강제이주 희생자 합동 추모비 제막식과 위령재를 봉행하고, 추모관을 기공했다. 사할린에는 2005년 前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방문해 위령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해 봉환만큼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해봉환위원회 대표들의 출자금과 회원들의 십시일반 기부금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상황이다. 1차로 유해 33구만 봉환해 온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 무원 스님은 "선조들의 유해 봉환을 연속사업으로 이어가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단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내로 봉환해올 유해가 많아 위원회가 디딤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영혼불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00일 기도로 새 터전 마련"

환경연대, 공간마련 기도 입재

조계사 주차장 컨테이너 사무실서 힘겹게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불교환경연대가 새 보금자리 마련에 나섰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8월 10일 조계사 인근 국청회 법당서 불교환경연대 공간 마련을 위한 100일 기도 '녹색불교의 힘찬 전진' 입재식을 거행했다. 기도는 이날을 시작으로 11월 7일까지 매일 오전 8시, 오후 4시 · 7시 조계사서 진행된다.

불교환경연대는 조계사 신도회관 사무실을 사용했지만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으로 인해 현재 컨테이너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 이번 100일 기도는 안정적인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모금도 함께 진행된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대표로 낭독한 모연문에서 "불교 내 든든한 환경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불교환경연대에 힘을 실어 달라. 녹색불교의 힘찬 전진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법일 스님은 "이번 100일 기도를 통해 사무실을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도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형 수습기자**

"청와대 미남불, 경주로 반환하자"

혜문 대표, 청와대 · 국회에 진정서 제출


청와대에 보관중인 석조여래좌상. 서울시 유형문화재 24호로 통일신라불상이다.

청와대 경내 보안구역에서 놓여 있는 석조여래좌상(이하 청와대 불상)을 본래 자리인 경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청와대 불상 제자리 찾기에 관한 진정을 8월 7일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명 '청와대 미남불'이라고도 불리는 청와대 불상은 높이 110cm로 8~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됐으며, 현재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됐다.

이 불상이 청와대 보안구역에 있게 된 과정은 질곡의 근현대사와 함께 한다. 일본인 오하라는 1913년 경주서 해당 불상을 불법 반출했으며, 이를 데라우치 총독에게 선물했다.

실제, 1939년 조선총독부박물관 직원의 관련 조사서에는 "데라우치 총독이 경주를 순시할 제 그 석불을 보되, 재삼 되돌아보며 숙시(熟視)하기에 당시 소장자였던 오하라가 총독의 마음에 몹시 들었음을 눈치채고 즉시 서울 총독관저로 운반하였다"고 기재돼 있다.

일제에 의해 불법 반출된 성보문화재가 청와대 경내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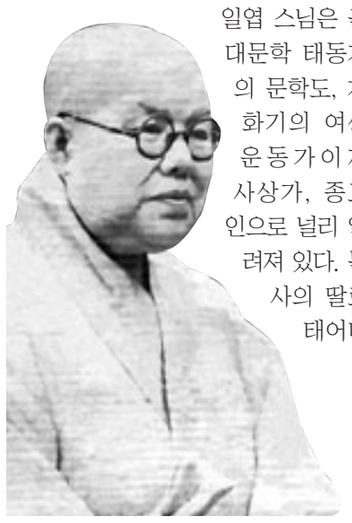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진정을 통해 "조선총독부로 불법반출된 통일신라 불상이 지금까지도 청와대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청와대 불상이 경주로 돌아가 경주국립박물관에 전시된다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제강점기 문화재 약탈문제를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개화기 여류 文人' 일엽 스님 평전 발간

영문판 〈여성과 불교철학:김일엽 선사를 통하여〉 출간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비구니이자 문인, 사상가인 일엽 스님(1896~1971 · 사진 아래)의 평전 〈Women and Buddhst Philosophy: Engaging Zen Master Kim Iry¤þ(여성과 불교철학:김일엽 선사를 통하여)〉가 영문판으로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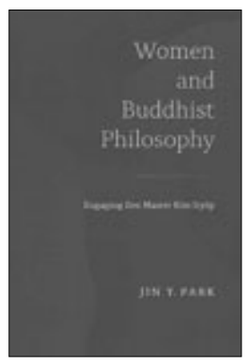


일엽 스님은 근대문학 태동기의 문학도, 개화기의 여성운동가이자 사상가, 종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 신학문을 수료하고 도쿄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 여성으로, 개화기 최초 여류 문인으로서 이름을 떨쳤지만 홀연히 출가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번 출간은 일엽 스님의 생애와 불교사상을 기록한 것으로, 자신의 뜻이 전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랐던 일엽 스님의 생전 바람에 따라 영문판으로 제작됐다.

책은 1부 '출가 전'과 2부 '출가 후'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일엽 스님의 탄생과 성장배경, 기독교, 교육과 여성, 문학 작품 및 신여성 문제 등을 다루며 2부에서는 스님의 불교적 사상이 담겼다.

저자 박진영 아메리칸대학 철학과 교수는 8월 8일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일엽 스님은 불교를 종교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계해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에 주목했다. 특히 당시 사회제도에서 느낀 한계를 인간존재 근본에 대한 고민으로 확대시켜 극복하려는 노력이 매우 창조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확장적인 일엽 스님의 해석이 세계 불자들에게 반드시 통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교수는 워싱턴 소재 아메리칸대학의 철학과 교수이자 동양학 프로그램 디렉터로, 김일엽문화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번 평전을 주제로 7월 25일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부 강연 등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불교와 여성철학〉 〈한국근대불교의 형성자들〉 〈메를로 뽕띠와 불교〉 〈불교와 해체철학〉 등이 있다. **박아름 기자**

"청년세대 접점 無, 불교적 감성 갖추자"

백년대계본부, 시민단체 좌담회서

청년세대와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 한국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과제로 도출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공동본부장 도법 · 호성 · 금곡)는 8월 8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시민단체 초청 제2차 좌담회를 열고, 한국불교가 위기를 헤쳐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준비해야할 부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에는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 박상진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팀장,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이향민 인드라망연구소장, 정웅기 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대부분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불교계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청년세대를 위한 콘텐츠 부족과 종교인구 급감에 따른 위기의식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짚었다. 그러면서 눈높이를 맞춘 포교방법 연구와 사찰 유휴토지를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윤호섭 기자**

2017학년도 생활풍수 최고지도자 과정 제15기생 모집

'글로벌 리더를 향한 꿈의 도약'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이루십시오

풍수지리 전문가를 향한 꿈의 날개를 펴라!
최고의 교육환경과 교통의 최적지인
서울 남산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인의 길, 풍수지리사로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를 모십니다

국무총리실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풍수지리사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21세기에 요구되는 전문가로의 탄생!
21세기는 전문가 시대!
풍수지리학의 이론과 현장실습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격기본법에 의한 양택감정사, 풍수지리사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풍수지리 전문가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입학안내
■ 접수기간 _ 2017년 8월 1일 ~ 2017년 9월 4일
■ 접수처 _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사회과학관)
■ 문의 _ 생활풍수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연구실
02)2260-8576 / 010-3795-5088(박종희)
주임교수 _ 심재열 박사 010-5282-3388

모집요강
■ 입학자격 _ 모든 일반인 남·여대상
■ 입학정원 _ 50명 선착순 마감
■ 교육비 _ 220만원(학기당)
■ 실습비 _ 별도

교육특전
■ 동국대학교 총장 수료증, 행정대학원 원장 인증서 수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풍수지리사, 양택감정사 2급,1급 자격증 수여
■ 수료 후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 추천

교육기간
■ 개강 _ 2017년 9월 5일(화요일)
■ 교육기간 _ 1년(2학기), 학기당 16주, 17회
■ 장학제도 _ 승려 30%할인, 동국대학교 동문 20%할인

원서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 _ 입학지원서 1부, 사진(3x4cm)3매
■ 원서교부방법 _ 홈페이지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_ ① 온라인 - http://gspa.dongguk.edu 접속 후 입학지원
② 홈페이지 - www.iysps.com(요산풍수지리학회)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우 04620)
■ 전화접수_전화로 인적사항 통보 후 등록금 송금
국민은행 068837-04-006675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일 주 문



동국대 발전기금 기부

호성 의성 고운사 주지 스님은 동국대에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호성 스님은 2010년부터 1억원 넘게 기금을 전달했다.



지역사회 지식나눔

탄웅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8월 20일, 27일, 9월 1일 국제선센터에서 노후 금융관리 등 '지역사회 지식나눔'을 실시한다.



남인도 해외의료봉사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은 8월 12~19일 남인도 카르나타카주 티베트 난민촌서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대통령 의료자문의 위촉

정지천 동국대의료원 일산한방병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의료자문의로 위촉됐다. 정 원장은 서울 동국한방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생활참선 수련회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성철 스님 생가인 산청 겁외사서 생활참선 수련회를 개최했다.

신임 문화재청장에 김종진 충남문화진흥원장

청와대, 8월 7일 임명… '고졸 신화'로 유명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문화재청장과 방위사업청장과 소방청장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불교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화재청장에는 김종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사진〉이 임명됐다. 김 신임청장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문화재청 차장까지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문화재청 업무와 내부사정에 능통하며, 주경야독으로 체득한 문화재에 대한 깊은 식견과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가졌다는 평가다. **신성민 기자**

입적 **화엄사 종후 스님 8월 9일 열반**



구례 화엄사 만월당 종후 스님이 8월 9일 화엄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85세, 법랍 40년. 도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종후 스님의 분향소는 화엄사 범음료에 마련됐으며, 11일 화엄사서 영결식과 다비장이 엄수됐다.

"대불련 동문 50년 넘어 불교 500년 밝히자"

Interview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



'청년붓다! 통일열자' 슬로건
8월 19~20일 불광사 · 김포서
동문회 창립 50주년 기념대회
청년포교 미래비전도 선포

"불교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대불련 동문들은 지난 청년시절의 원력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이끌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동문회 50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과 역량 결집을 통해 대불련을 중흥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백효흠 · 사진)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창립 50주년 기념 동문대회를 연다. 대회를 앞두고 백효흠 회장은 "2014년 제12회 전국동문대회부터 침체된 대학, 청년포교와 대불련의 활성화에 대한 동문의 역할에 대한 각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과 활동을 이번 대회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재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멸된 학생회의 재건 활동을 통해 청년포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15회 전국동문대회는 대불련 발전과 정착에 큰 역할을 한 광덕 스님의 원력이 깃들어 있는 불광사에서 입재식과 미래비전 선포식이 진행된다.

'청년 붓다여! 통일의 문을 열자!'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대불련 총동문회에서 밝힌 바 있는 청년붓다회관 건립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계획이 대불련 동문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또 대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김윤권 대불련 총동문회 초대회장에게 공로상이 수여되며, 문광부 종무관을 지낸 이용부 대불련 초대 간사장에게 '진리의벗' 상이, 보현회를 창립해 군포교 및 대불련 대구경북지부를 후원해 온 임해수 대구경북지부 초대회장에 '진리의얼' 상이, 서울대 출신 의사로 선재마을의료회를 조직해 무료의료를 진행해 온 강경구 씨에게 '진리의빛' 상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대회 마무리는 그동안 대불련 동문회가 여름대회 때마다 기원했던 통일기원의 정점으로 통일도시 김포에서 수련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백 회장은 "불자 300만 감소 시점서 새로운 화두를 던져야 한다. 동문회 50년을 맞아 현재 6~70개 수준인 대불련 지회를 3자리 수로 늘리고자 한다. 강원지역에서 동문들의 힘으로 복원한 만큼 동문들의 역량이 모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또 "청년포교는 미래세대에 불교를 전하는 것이기에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불자의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대불련 동문들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 사명을 원력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1963년 9월 대불련 창립 후 4년 만인 1967년 10월 '한국학사불교회' 이름으로 창립된 대불련 총동문회는 50년간 청년불교, 지성불교 확립에 앞장서 왔다. 2003년 8월 제1회 전국동문대회 개최를 계기로 동문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동문대회를 매년 열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교육聯, 종립학교 교직원 수련회

7월 31일부터 8월 2일 한국문화연수원서 개최



불교교육연합회(회장 보광, 동국대 총장)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3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51차 불교종립학교 교직원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불교교육연합회 산하 29개교 교직원 70여 명이 참가했으며 세종과라미타청소년협회와 협약을 통해 최초로 교원 직무연수 형태로 실시됐다.

'명상과 전통문화가 청소년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서는 명상과 전통문화의 새로운 조명과 교육을 통한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 등 교육현장 방향에 대한 교직원 연수가 이뤄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대한불교 원융종 공식 명칭변경

8월 8일 일공 스님 탄신 86주년 기념법회서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은 8월 8일 원융사에서 창종주 영산당 일공 스님 탄신 86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100여 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서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을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으로 공식변경했음이 선포됐다.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 관광부로부터 정식 변경 승인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단 상임이사에 보현 유택화를 임명했으며, 이사에 진주 대천사 주지 홍법, 괴산 지수사 주지 명진, 사천 약천사 주지 홍천 스님, 김봉희 전국신도회장, 안정실 씨를 임명했다. 또 홍법 스님을 총무원 총무부장으로 임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사 연꽃 사진 공모전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7월 3일부터 연꽃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콘테스트는 매주 심사를 통해 세 작품씩 선정된다. 콘테스트는 8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조계사 측은 "매주 수십여 작품들이 접수되는 등 불자와 시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정된 사진은 조계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소정의 선물까지 받을 수 있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2017빛고을관등회 사진전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8월부터 한 달 동안 광주 서구청, 동구청, 광주시청 로비에서 시민들에게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알리는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7일 서구청서 열린 사진전에는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 향림사 주지 혜향 스님, 사진문화기획단장 무등 스님, 전통불교영산회장 월인 스님, 이범식 광주불교연합신도회장, 윤혜숙 사진작가 등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례장애인福, 소통기구 지원



구례군장애인복지관(관장 법현)은 구례군장애인복지관 별관 2층에서 지적, 언어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제공했다.

이번 의사소통 보조기구 지원 사업은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삼성에서 후원하여 재능 기부로 개발되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8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평창올림픽 D-189

‘자비메달’ 향한 ‘마음 훈련’ 삼매경


봅슬레이와 루지 선수들이 서로의 팀웍을 다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른 신체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마가 스님의 마인드컨트롤 명상을 체험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그동안의 압박감을 떨친 듯 편안함이 느껴진다.


박종길 체육인불자회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생활의 마음가짐을 조언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선전을 기원하는 단주를 선물하고 있다.


김용규 선수가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체육인불자회, 8월 5일 평창올림픽 출전선수 템플스테이 개최

동계올림픽 선수 및 코치진 참여
사찰서 마인드컨트롤 명상 체험
메달 중압감 떨치고 함박 웃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금메달 인생으로 만들어 가세요. 메달을 따고 싶어도 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박수쳐가며 함께 인생을 가꾸는 그런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더위가 몰아친 8월, 평창의 월정사 설법전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건장한 청년들의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 내렸다. 찡그렸던 얼굴도 잠시, 힐링멘토 마가 스님의 격려 법문을 들은 선수들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평창올림픽을 6개월 앞둔 8월 5일, 체육인불자회(회장 박종길)는 평창 월정사에서 올림픽 선전 기원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는 전지훈련 일정을 앞두고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루지, 스키에이리얼 선수 30여 명이 참석했다. 템플스테이에서 동계 종목 선수들은 더위를 잊고 불교의 마인드컨트롤 명상 등을 통해 경기력 향상도 꾀했다.

입재법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100여 체육인 불자들과 선수, 감독이 참여했다. 선수들은 사찰에서 힘든 훈련에서의 스트레스와 메달 획득의 중압감을 잠시나마 벗어던진 듯 했다.

권총선수 출신으로 문광부 차관까지 지낸 박종길 회장은 “이번 동계올림픽은 88년 하계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가적인 체육행사이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중압감이 클 것으로 안다”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선수시절의 치열한 정진과 쌓아온 경륜이 큰 힘이 됐다. 정진하는 그 순간을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도 “오대산 정기를 가득 품은 월정사에서 메달 획득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는 큰 힘을 받아 가길 바란다”며 “월정사도 선수들의 활약을 뒷받침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전 불자들이 함께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수들의 발원문은 이들의 절절한 신심을 나타내기에 충분했다. 선수들은 “겨자씨 만한 땅이라도 부처님과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땀 흘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는 저희들에게 성취의 기쁨과 회향의 법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소서”라며 “동료선수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비의 화신이 되겠다. 투철한 신념이 넘치게 하고, 역경을 헤쳐 나갈 용기를 달라”고 기원했다.

불자 선수들의 올림픽 발원문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으시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시어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오늘 저희들은 부처님의 원만구족하고 자비하신 공덕에 힘입어 더욱 새롭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올림픽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간곡한 발원을 굽어 살피시어 국가와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실 수 있게 하시옵고, 모든 동료선수들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자비의 화신이 되게 하소서.

무대 뒤에서 기도하는 선수들의 마음 속에 굳은 의지를,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눈에 밝은 빛을, 시합을 마친 선수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호법신장의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선수들에게 투철한 신념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입재법회 후에는 퇴휴 스님의 특강과 함께 마가 스님의 마인드컨트롤 명상이 진행됐다. 특히 마가 스님의 명상에서 선수들은 그동안의 압박감을 떨친 듯 홀가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마가 스님은 “메달 획득에 대한 압박감이 경기 당일 오히려 경기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훈련은 열심히 하되, 마음을 편히 갖고, 힘들 때는 부처님에게 맡기라”고 조언했다. 스님은 MBSR의 바디스캔 명상도 선수들에게 알려주며 “긴장 완화와 집중력 향상, 신체 조정을 위해서는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메달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금메달로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라”고 조언했다.

뉴질랜드 전지훈련을 앞두고 이번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바이애슬론 김용규 선수는 “강원도서 훈련을 해 평소 월정사를 자주 찾지만 이번 템플스테이는 조금 특별한 것 같다”며 “비인기 종목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또 선수들끼리 우정과 화합 등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발휘해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나라 동계 종목 중 평창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이는 스키에이리얼의 감독인 조성동 감독은 “런던에서 체조 양학선을 지도했다. 경기 이틀 전 양 선수가 불안해 할 때였다. 108배 후 나오는데 달이 있는데, 저 멀리 큰 태양 같은 것이 하나가 더 보이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양 선수에게 무조건 메달을 딴다고 하니 선수도 마음이 안정이 됐다”며 “명상 외에 기도도 기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일정부분 선수들이 안정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에 코치진들도 사찰에 오게 됐다. 바쁜 훈련으로 선수들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돌아가서 선수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근대5종 연맹 정진성 회장은 “비인기 종목에서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 불자들이 메달 획득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치열한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템플스테이는 6일 새벽예불과 걷기 명상 등으로 이어졌다. 동계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대부분 5일 일정을 소화했으며, 6일 일정에는 하계 볼링선수들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평창 월정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불교지도자 경전6차 결집 장소에 다시금 집결하다

2600년의 염원이 드디어 성취되다

세계불교 법왕청 과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우꾸마라 사야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불교지도자 정상회의에 불교 지도자이신 법하를 초청하였습니다

불교국 각 나라 승왕 및 연방승가회 회장, 세계불교지도자 총 결집 정상회의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대승과 소승(트라와다) 불교가 하나가 되어 오늘의 불교 현실을 바라보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한구석에서 안주하는 일부 지도자들로부터 탈피하여 지구촌 구석구석 중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제 불교의 새로운 역사의 해가 어둠을 뚫고 솟아 올랐습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법왕청 중앙정부의 관리, 운영, 조직에 착수하였으며 미얀마에 법왕궁을 두고 한국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왕궁 중앙정부 설립 또한 불교수호협회 관리하에 불교수호협회 회장께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환희심이 가득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루시는 경이로운 기적을 봅니다. 모든 준비는 미얀마 종교성의 후원과 불교수호협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 12일 미얀마 까바에 동굴사원 (6차 결집 장소)
■ 한국에서는 10월 11일 출발합니다.
■ 행사 및 성지순례 220만원
■ 자세한 일정은 문의하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국가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일본, 대만, 중국, 몽골
■ 주최 : 사단법인세계불교 법왕청 ■ 주관 : 미얀마 세계불교수호협회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층) 세계불교 법왕청 사무국 / 문의처 011-229-6061. 010-7487-7090. 010-4467-9600

불교리더십 캠프 '눈길'… 청년붓다 영근다

파라미타 국제 캠프 및 전국 연합캠프 개최

600명 참석, 전통문화 익혀
세계리더 역할 함께 논의
통도사서 폐회, 불교체험도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무대를 향해 청소년들은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 화려한 무대의상으로 멋을 부린 청소년들의 얼굴은 상기됐으며 친구를 응원하는 청소년들은 풍선과 핸드폰을 힘차게 흔들었다.

소란스럽던 무대에 인사말을 위해 오른 폰차이 핀야퐁 세계불자연합 회장이 고조된 분위기에서 갑자기 명상을 권했다. 청소년들은 망설임 없이 눈을 감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꿈과 미래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명상으로 하나 되는 청소년들의 잔치였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파라미타)는 '마음의 평화로 세상을 따뜻하게' 를 주제로 8월 5일~9일 제20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와 제3회 파라미타 청소년 국제캠프를 개최했다. 울산과 통도사 및 불국사 일대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는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심산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포교부장 가섭 스님, 김기현 울산시장, 폰차이 핀야퐁 세계불자연합(WAB) 회장이 참여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모인 파라미타 청소년 600여명과 인도, 미얀마, 태국 등 9개 나라에서 참여한 100여명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8월 5일 파라미타는 울산대에서 특강 및 입재식을 진행했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론 김수영 초청강사가 꿈과 진로를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파라미타는 제1회 국제청소년 리더십 포럼을 주최했다.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 등 9개국에서 참여한 청년 및 청소년과 국내 울산 옥동중학교, 서울 동대부여고 등 학생 200명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 소극장에서 주제 '미래지도자가 가져야할 요건' 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청소년의 역할' 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가자들은 미리 발표 자료를 구성해 모두 영어로 진행했다.


울산대에서 열린 입재식에는 청소년 600여명과 각국 해외 고승들이 참석했다. 청소년과 스님들은 리더쉽 배양에 힘을 모았다.

이후 특별 일정에서는 음악놀이페스티발과 청소년 백일장이 열려 심사를 통해 문화부장관상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여했으며 울산 옹기마을, 장생포 고래특구 방문 및 통도사 사찰문화 탐방, 템플스테이도 이뤄졌다. 폐회식은 통도사 설법전에서 진행됐으며 시상식도 아울려 열렸다.

캠프에 참여한 이동규 학생(동대사대부고 영석고 2)은 "파라미타 회원이 아니면 절대 경험 할 수 없는 즐거운 축제"라며 "외국인과 만났을 때 많이 다를 까봐 염려 했는데 친숙하고 즐거운 소통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노아영 학생(동대부여고 2)은 "이번 축제를 위해 파라미타 친구들과 무대에 나갈 댄스를 연습했다"며 "좋은 추억을 준 파라미타에 감사한다"고 했다.

동대부여고 학생들은 음악페스티벌에서 합장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미얀마에서 온 릴라 아웃(19)은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학생들은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보인다"며 "그리고 옹기마을을 오전에 돌아봤는데 너무 흥미롭고 아름다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통도사와 불국사 등 전통 사찰 방문도 기대가 많이 된다. 미리 인터넷을 통해 한국불교전통에 대해 알아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입재식에서 심산 스님은 "파라미타는 매년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지키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해 왔다"며 "특히 국제 캠프도 함께 열리는 특별한 시간이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언어를 넘어 우정을 나누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파라미타는 연합캠프를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활동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며 "올해는 국제캠프 까지 함께 열려 교류를 확장한 것은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파라미타는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심신과 호연지기를 위해 노력해왔다. 전국연합캠프는 파라미타 대표 행사로 야영캠프, 국제캠프 및 장애우와 함께 하는 캠프 등 다양한 주제로 실시됐다. 1996년부터 열려 올해 20주년을 맞았으며 총 27,195명(19회 기준)명이 참여했다.

울산=하성미 기자

"어린이 유해환경 템플스테이로 개선"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8월 3~4일 1박 2일간 '어린이 유해환경 개선' 을 주제로 가평 백련사에서 가족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은 환경오염, 불량식품, 유해매체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도시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느끼고 가족들 간에도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보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김영실 씨는 "그동안 자녀들에게 교과 공부만 강요를 했었는데 템플스테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고, 느끼며 본인과 자녀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해 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가족들과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스카우트 활동, 늘어나는 浩然之氣

몽골 · 부안 · 고성 등지에서 환경 · 통일 · 문화 체험활동

여름 방학을 맞은 어린이 청소년 불교스카우트들의 호연지기를 활약이 눈에 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9박 10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3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했다.

아태 잼버리에는 9명의 한국 불교스카우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잼버리에서 지구촌 35개국 6,500여명의 청소년들과 승마, 유목민 체험, 몽골문화탐방 등 활동을 하며 우의를 다졌다.

특히 이번 잼버리 기간에는 조계종 불교관이 개설돼 단주 만들기, 태극선 부채꾸미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총 2300여 명이 찾아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밖에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국내에서 다양한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전북 부안에서 개최된 국제 청소년 환경포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불교스카우트를 비롯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에서는 일본 청소년들과 불교스카우트들이 갯벌 생태체험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을 관람하며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또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군포 정각사 초등 불교스카우트들은 북한산에 있는 천년고찰 흥국사에서 열린 여름캠프에 참가해 몸과 마음을 단련했다. 중등 스카우트 34명은 8월 4일부터 5일까지 역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름캠프에 참가했다.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도 열렸다. 불교스카우트연맹은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8박 9일 동안 서울 전쟁기념관을 출발하여 휴전선을 거쳐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행진하는 평화통일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여택진 스카우트불교연맹 사무처장은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스카우트불교연맹은 불자 청소년들의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생애 마지막에 법음 향기를 전하다

염불자원봉사단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생애 마지막 순간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슬픔을 함께하는 조계종 염불자원봉사단,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제10기 염불자원봉사단 양성 교육' 을 실시한다.

교육은 8월 23일~9월 29일 매주 수 ·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염불 염송 및 목탁 집전 교육 △사례교육 △조가연습 △상가예절 등 과정으로 구성된다. 국립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무관 스님과 우리선원명상센터장 도영 스님이 지도법사를 맡는다.

수료생들은 요일별로 팀을 이뤄 서울 · 경기 내 상을 당한 불자가정의 상가(喪家)를 방문, 염불과 조가 등을 통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픔과 상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종교의 정서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불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며 힘든 순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9년부터 불교의 상 ·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염불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하면 된다. (02)6334-2211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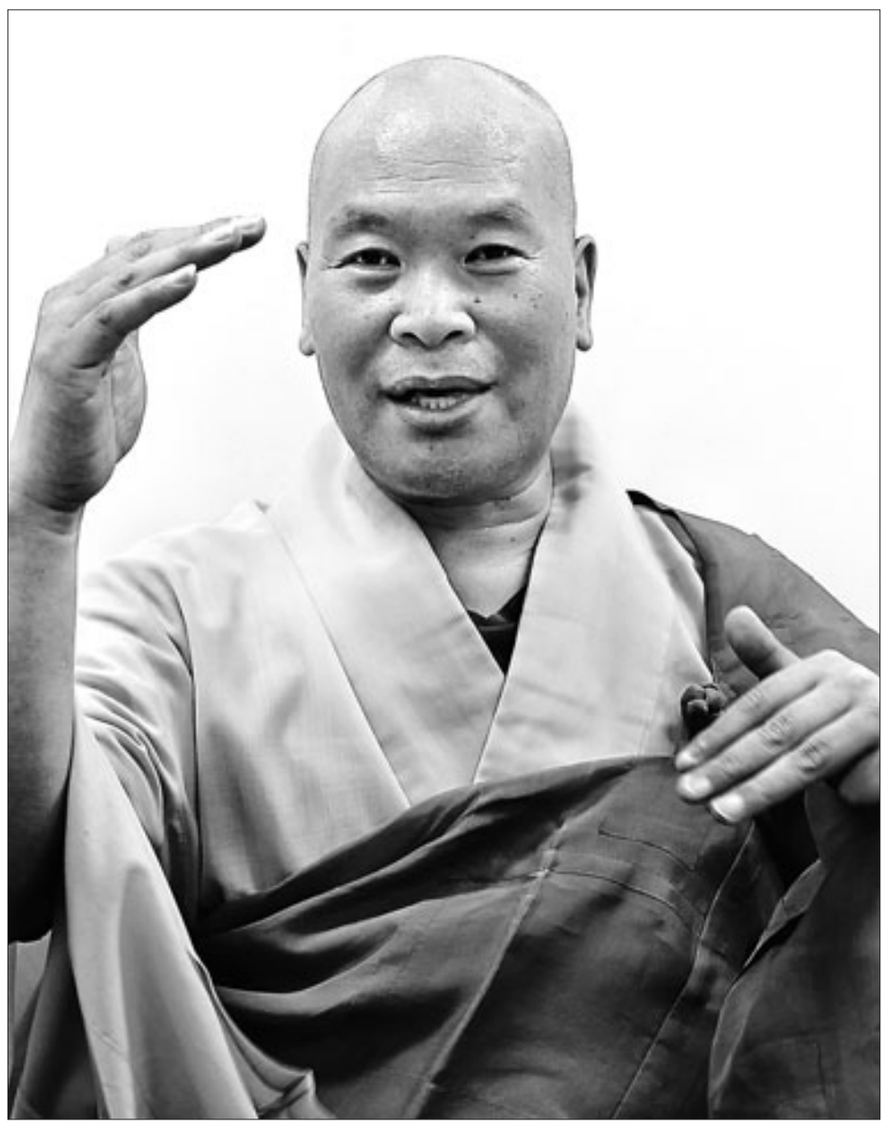


힘들때 내딛 첫 걸음에 길 생긴다

서울 길상사 일요법회… 주제: 불교의 희망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 진광 스님

국내 종교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불교인구는 1000만 명에서 700만 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불교 위기론이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조계종 교육국장 진광 스님은 7월 16일 서울 길상사 일요가족법회서 '불교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진광 스님은 학인스님들의 다양한 역량을 소개한 뒤 "모두가 힘들 거라 얘기할 때 누군가는 나서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박진형 수습기자**



진광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94년과 1998년 통도사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총무원 사서국장과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연수국장 등을 역임했다.

오늘 법문에서는 제가 아니라 저보다 더 똑똑한 학인스님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2014년부터 학인스님들의 염불시연대회와 외국어스피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토론대회, 올해는 6월 1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설법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학인스님들의 수준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보다 사회에서 많이 배워왔고, 출가한지 길어야 3년차밖에 안 됐지만 용감하고 멋집니다.

지루하다고? 염불의 새 발견

염불대회를 기획할 때 파격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새롭게 만드는 염불을 보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이에 맞춰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현재 평택 명법사에 계신 보견 스님은 광명진언과 이산혜연선사발원문으로 염불을 창작했습니다. 따라 부르기 좋고 익숙한 노랫가락으로 염불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했죠. 염불대회에서 개인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견 스님의 광명진언은 귀에 착 감깁니다. 그 이유는 '홀로 아리랑'의 음가에 광명진언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을 비롯한 모든 이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굉장히 흥겨운 시간이 됐습니다. 저 염불 이후 저는 큰스님들께 "염불을 저렇게 만들어서 희화화하면 되겠느냐"고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새롭게 무언가 만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전통식 염불, 49재 염불을 2~3시간씩 듣는다고 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염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9재문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글로 만들어 신도들과 함께 소통하고, 합송하고, 신도들의 손주가 돌아가신 할머니·할아버지한테 편지 쓰고, 살아계실 적 영상 보고…. 훨씬 더 거룩하고 의미 있는 49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개할 것은 청암사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 단체전에 나와 선보인 염불입니다. 제목은 '불러요 다라니'인데요. "즐겁고 신나는 염불을 하고자 한다. 일반인도 잘 따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목탁 등을 악기로 사용해 아기자기한 율동과 쉬운 음을 활용했습니다.

어찌 보면 천방지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염불이었습니다. 이후로 모든 여름 불교대학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암사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 공연을 합니다.

첫 염불대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AFP통신'에서 세계 10대 뉴스 중 하나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불교가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인들과 청년들이 불교를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불교가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기만 하지 않은 스님들

염불대회 이후 교육원에서 외국어 스피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강원의 기본교육기관은 염불을 두 학기 가르치고 외국어도 두 학기 가르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나 보려고 시작했습니다. 외국어 스피치대회를 기획할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산 속에서 한두 학기 배워서 과연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괜히 창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고우 스님은 청암사 승가대학 출신으로 당시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3H라는 비타민을 홈쇼핑에서 착안한, 홈 나눔(Home Sharing)방식으로 소개했습니다. 3H는 바로 Healing(치유), Happiness(행복), Hope(희망)이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시중에 건강을 위한 영양제는 많지만 마음의 건강을 위한 영양제는 없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정말 창의적입니다. 마음비타민을 홈쇼핑 방식으로 팔 생각을 했으니까요. 고우 스님은 지금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랭귀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인스님들이 비트박스를 하는 모습입니다. BBS불교방송 출가콘서트 '청춘, 자유를 향한 날개짓' 1부에서 '법상 스님과 동국대학교 백상원' 팀이 'Show Me The Buddha'라는 제목으로 힙합음악에 랩과 비트박스를 더해 승려의 삶과 불교를 표현했습니다. 염불대회 이후 지난해 출가콘서트에서 재공연한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만을 넘기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토론대회입니다. 토론대회는 100% 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인문학적 지식이 있어야 토론이 되기 때문에 산속의 스님들은 힘들 것 같았습니다. 본선 토론대회의 주제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대상을 받은 봉녕사 '선재선재'팀의 보인 스님과 진욱 스님은 한 치의 막힘도 없이 토론합니다. 상대팀 사미스님이 선재선재팀 사미니스님들에게 혹시 법조계서 종사했는지 물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출가 전, 사미니스님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토론을 보던 교육원장 스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저렇게까지 잘할 수 있는가' 하고 놀랐습니다.

> "젊은 스님들이 보인 역량
> 위기 처한 불교에 희망돼
>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서
>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한다"

공감하는 이야기, 설법대회

올해 설법대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님이 설법하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를 받고 상급 승가고시 후 주지 될 자격을 갖출 때까지 설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설법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설법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동학사 세광 스님 설법입니다.

-설법대회 최우수상 동학사승가대학 세광 스님, '행복'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모두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아하는 것을 가지는 삶'에서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고등학생 때 우연히 〈부처님의 생애〉를 읽었습니다. 부처님이 걸어오는 걸음마다 꽃비가 내리고, 추운 사람은 따뜻해지고, 배고픈 사람은 배가 부르고, 고통 받던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에 가득 차있는 행복이 흘러넘쳐 주변까지 행복하게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 순간만큼은 저와 연등부처님의 걸음이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도 연등부처님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스님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업이 어떻고 윤회가 어떻다며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공감할 수 있는 말로 법문합니다. 다음은 대상 수상자입니다.

-설법대회 대상 해인사 승가대학 금후 스님, '연기'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모든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기하다'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법,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연기를 '덕분에'라는 단어로 쉽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출가를 결심하고 일주문을 넘어가는 순간, 마치 짜인 각본처럼 진행됐습니다. 출가한다고 했더니 3천배를 시키더군요. 200배쯤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270배쯤 바쁜 일정 때문에 일부터 하라더군요. 그렇게 저는 행자가 됐습니다. 만약 제가 3000배를 다 했다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쁜 일정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이렇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덕분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합시다.

태초에 길은 없었다

제가 지금 교육국장으로 7년째 이 자리에 있는 것, 저분들 덕분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는 그 첫 길을 나서서 걸어야 합니다. 중국의 문호 루쉰이 〈고향〉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길과 같은 것이다. 태초에 길은 없었다. 어떤 한 사람이 걸어가고 그 뒤를 따라서 두세 사람이 따라가면서 비로소 길이 생긴다."

누군가의 뒤꽁무니를 쫓아갈 것인지 누군가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각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저는 뒤쫓아 가기보다는 첫 번째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평론가인 조지버나드쇼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을 보고선 '왜?'라고 묻는다. 그렇지만 나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선 '안 될 게 뭐야?'하고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법문보다 젊은 학인들이 법문하고, 염불하고 또는 영어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섰을 것입니다.

스님들이 스스로 변할까요? 신도들이 변해야 스님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님이 변하면 신도도 변할 수 있지만 매양 스님만 쳐다보고 스님이 변화시켜줄 것이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도들께서 더 새로운 사고를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스님들을 변화시키고 이 불교가 변하려면 스님은 물론 신도 스스로 변화해야합니다. 그렇게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저런 젊은 희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7년 7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대련, 관욕(기초부터 시작)
◇원서교부 : 2017년 7월 15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이곳에 오시면 나이 드셔서 염불이 점점 힘이 드는 분에게 마이크와 1미터 떨어져 모기만한 소리에도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를 만들어 되돌려 드리는 특수염불시설에 2시간의 염불에도 오히려 신명이 나는 체험을 하신 후 이 시스템을 이대로 법당에 옮기면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이 되며 아울러 보살님들이 스님 염불소리가 테이프 소리보다 몇 배 낫다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이곳은 특수염불시스템 외에도 각종 음향(마이크 방생용) 등을 고루 갖추었으니 꼭 오셔서 소리구경 하세요.

※ 단, 오시기 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약속하시고 사찰 관계자들과 함께 오시면 소리를 판단하는 객관적 검증이 됨으로 스님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주)염불소리 ☎ 055)343-1191 / 010-9471-2026

영욕의 불교사… 역사는 변화한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⑮ 쿠차 불교와 키질 석굴

타클라마칸 사막을 걷는다. 사막의 북쪽을 병풍처럼 껴안고 있는 천산산맥, 그 만년설의 산자락 하나가 서쪽으로 길게 내려 온 곳, 거기에 꽃한 송이를 활짝 피웠다. 쿠차, 바로 구자국(龜玆國), 서역 36개 나라 가운데 최대 국가였던 곳이다. 쿠차는 타클라마칸 사막 서쪽 끝자락의 거대한 오아시스 도시이다. 원래 타림 분지의 일대는 1세기 후반 오아시스 국가들이 연합하여 7세기 무렵까지 활발한 발전상을 보였다.

이들 국가는 실크로드 북로로 트루판의 고창국(高昌國), 카라샤르의 언기국(焉耆國), 쿠차국, 캬슈가르의 소륵국(疏勒國), 그리고 남로에 루란의 선선국(善國), 호탄의 우진국 등, 사막의 나라는 화려했다. 역사의 오아시스, 바로 그 자체였다.

카슈가르에서 북진하여 우루무치 혹은 트루판 쪽으로 가다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 도시 쿠차. 과거 쿠차 왕국의 본거지이다. 쿠차 불교가 흥성한 시기는 3~4세기 무렵이었다. 〈진서(晉書)〉 기록에 의하면, 1천여 군데의 사원과 불탑이 있었다. 이와 같은 영화는 8세기말까지 이어졌다. 7세기 현장 법사는 이곳을 방문하고 그의 〈대당서역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큰 성의 서문 밖 길 좌우에는 각각 높이 90여 척의 입불상이 있다. 가람은 1백여 군데이고 승도는 5천여 명이다. 사람들은 공덕 쌓기를 다투어하고 있다."

쿠차 불교의 화려한 모습이다. 하지만 790년 토번국(티베트)의 쿠차 침공은 쿠차 불교의 쇠퇴를 불러왔다. 5세기부터 7세기까지 쿠차 불교의 영화는 이렇게 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게다가 12~13세기의 이슬람 침공은 불교의 종말을 불러왔다.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변화하는 것이다. 만발한 꽃도 언젠가는 시든다. 성주괴공. 쿠차를 거닐면서 역사의 영욕을 더듬어 본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여름마다 녹아주는 만년설의 존재도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생명수'를 제공한다. 고마운 일이다. 타클라마칸 서쪽 언저리에 거대한 호수도 있다. 요즘은 쾌속 보트를 타고 한 시간 이상 뱃놀이도 할 수 있다. 음악과 무용의 나라였던 쿠차 왕국.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에 쿠차 음악을 재현한 민속 공연을 관람한다. 과거의 벽화를 참조하여 복원한 내용이다. 민속가무는 이국적 정취를 듬뿍 안겨준다. 특히 사막의 밤을 풍요롭게 도와준다.

쿠차 지역은 석굴사원의 꽃을 활짝 피웠다. 쿠차, 거기에 키질석굴이 있다. 무자트 강을 끼고 동서 2km의 절벽에 이룩한 석굴이다. 타클라마칸 지역의 8백여 곳 석굴사원 가운데 쿠차 지역은 키질의 334곳 석굴, 112곳 석굴의 쿰트라, 그리고 52곳의 심심 석굴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무자트 강의 왼쪽 절벽을 파고 만든 키질 석굴, 현재 236개의 굴이 확인되고 있다. 그 가운데 135개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그 중 90개 정도는 예배와 설법의 차이티아 석굴이고, 나머지는 승려의 생활공간인 비하라 석굴이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수행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구성이다.



키질 석굴의 전경. 앞에 역경승 구라마집의 동상이 서 있다. 그는 50대에 장안에 도착하여 8년간 불경 번역에 매진해 35부 294권의 경전을 번역했다.

키질석굴 가는 길. 공상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 거대한 사막을 벗어나면 바위산을 끼고 돌게 한다. 그 산자락은 나무 한 그루 허용하지 않고 있는 무채색의 바위이다. 그것도 결 따라 날카롭게 서 있어 칼날처럼 보이는 곳도 있다. 무채색의 풍경. 이런 바위산을 넘고 또 넘어야 키질석굴에 도달한다. 거기 무자트 강, 그렇다, 강물이 있어 생물이 있을 수 있다. 움직이는 속성의 물은 뭔가를 움직이게 한다. 사막의 낮은 지대는 수맥과 연결되어 푸른 숲을 이루고 있다. 아, 푸르른 숲, 이는 사막의 숨결이다. 하지만 푸른 숲을 품에 안고 있는 주위의 바위산은 풀 한포기 없는 벌거숭이다. 키질, 거기 절벽에 수행승들은 굴을 뚫고 '역사'를 일구었다. 키질은 고대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이었다.

나가사와 카즈토시(長澤和俊)는 그의 저서 〈동서문화의 교류- 신 실크로드론〉에서 쿠차의 석굴과 벽화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쿠차 일대의 석굴은 간다라지역의 바미얀 석굴 영향을 받았다. 쿠차 부근의 키질, 쿰트라, 스바시, 키리슈, 심심 등의 석굴이 그것이다. 이들 석굴은 불상이나 불탑을 중심으로 한 예배용 석굴 주위에 승방용 석굴을 두어 하나의 사원으로 이루었다. 예배용 석굴은 전실(前室)과 주실(主室)로 나누었다. 실내의 사면 기둥은 건축적 기능 이외 불상을 조성하여 탑돌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키질 석굴 형식은 돈황이나 운강 석굴까지 영향을 준 쿠차 건축의 특징이다."



쿰쿠라 석굴의 주악비천벽화. 오늘날 키질 벽화를 보면서 현대회화 같은 분위기를 느끼기도 한다.

거대한 오아시스 도시 '쿠차'
1000여 사원과 불탑 존재해
토번의 침공으로 쿠차국 쇠퇴

키질 벽화, 쿠차 민족성 표현
석굴 앞에는 구마라집 동상이
중국불교의 본격적 시작 알려

키질 벽화는 고대 쿠차의 민족적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벽화 내용은 주실 좌우 벽면에 석가설법도를 비롯 불전도나 본생도를 그렸다. 굴 안쪽에는 공양자상이나 열반도, 사리분배도 등을 그렸다. 이런 키질 벽화는 시기별 2기로 나눌 수 있다. 간다라 요소를 지닌 500~600년경, 그리고 새로운 양식의 600~650년경의 구분이 그것이다. 전자는 정방형의 평면에 본생도와 불전도를 많이 그렸다. 부드러운 윤곽선에 색채의 농담을 두어 둥그런 느낌을 자아냈다. 주요 색채는 백색, 황색, 갈색, 흑갈색 등이다.

후자는 장방형의 석굴형식으로 사각기둥 주위에 회랑을 만들고, 벽화는 2단 혹은 3단으로 나누어 석가설법도 등을 그렸다. 안쪽 깊은 곳에 열반, 다비, 사리 분배 등 장면을 그렸다. 표현방식은 윤곽선이 딱딱한 선이면서도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콘트라스트가 강한 색채를 사용했다. 특히 감청색(紺靑色) 활용이 두드러졌다.

오늘날 키질 벽화를 보면서 현대회화 같은 분위기를 느끼기도 한다. 바로 색깔이 변해 대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검게 변색된 부분, 그 거친 붓질은 현대회화처럼 강렬한 느낌을 자아내기도 한다. 마치 조르주 루오의 종교 회화를 연상시킨다.

벽화는 주제의 배경을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했고, 다양한 소재와 표현방식으로 회화성을 높였다. 적절하게 활용한 색채와 묘사력 그리고 짜임새 있는 구성. 4면 가득 그려 넣은 벽화, 사막의 꽃이다. 황량한 사막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가. 키질 벽화의 본생도에는 상업도시 쿠차의 분위기를 반영한 듯 상업 내용이 많다. 쿠차가 실크로드의 중심도시로 역할 했던 시기의 반영이다. 키질의 본생도는 1백여 종을 헤아릴 정도로 많다.

단골 소재는 〈금광명경〉의 사신품(捨身品)에 나오는 마하사트바 태자 이야기이다. 붓다의 전생인 마하사트바는 자신의 몸을 먹이로 주어 굶어 죽게 된 호랑이를 구했다는 이야기이다. 제38굴의 교각자세의 미륵보살과 도솔천의 기악천(伎樂天)은 눈길을 오랫 동안 이끈다. 쿠차는 음악의 도시가 아니었던가.

키질 석굴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검은 색 동상이 맞아준다. 내가 처음 이곳에 갔을 때는 관광객 하나 없는 황량함 그 자체였는데, 관광지로 각광받으면서 이런 동상도 세워졌다. 바로 구마라집 동상이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앉아 명상에 잠긴 고승의 모습이다. 병풍 같은 회색조 바위 산자락을 배경으로 하여, 바닥의 푸른 녹음 위에 우뚝 자리한 역경승의 모습, 묘한 느낌을 안긴다.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jiva, 344~409), 현장법사와 더불어 유명한 역경승이다. 쿠차국 출신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불교학과 어학 실력이 뛰어났다. 오죽하면 전진(前秦)의 왕 부견이 7만 병사를 동원하여 서역을 정벌하고 구마라집을 초빙해 오라 했을까. 결국 그는 50대에 장안에 도착하여 8년간 불경 번역에 매진했다. 하여 〈반야경〉, 〈법화경〉, 〈아미타경〉, 〈유마경〉 등 35부 294권을 번역했다.

중국불교의 본격적 출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구마라집은 유언을 통하여, "만약 내가 번역한 것에 잘못이 없다면 화장한 후에도 내 혀만은 불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의 주검을 화장했는데 혀만은 재가 되지 않았단다. 구마라집의 사리탑은 장안 남쪽 초당사에 봉안되어 있다. 부조가 아름다운 승탑, 나도 몇 차례 배관한 바 있다.

현장법사는 40대 중반에 인도로 들어가 17년간 구도여행을 하고 귀국하여 〈대당서역기〉를 남겼다. 그가 번역한 경론은 75부 1,300여 권 즉 한문불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방대한 업적이다. 중국의 역경 불사. 2세기 중엽부터 송대 말기까지 약 1천년동안의 경우, 목록집인 〈지원록(至元錄)〉에 약 6천권의 불전이 소개되어 있다. 역경사업의 활성화를 짐작하게 한다.

사전지식도 충분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관광지로 부상되기 이전 한적할 때, 나는 이곳 키질석굴을 처음 답사하고 놀라움을 가득 안아야 했다. 석굴과 벽화의 독특함은 논외로 하고 우리 '코리안의 숨결'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락연이다. '조선족 한락연'은 일찍 키질 벽화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현장에서 벽화를 모사하고 연구하면서 키질 전문가로 우뚝 섰다. 특히 그는 연구와 보존을 위해 석굴마다 '한락연 번호'를 부여했고, 또 그런 열정을 마지막 석굴 안에 글로 남겨두기도 했다.

한락연은 화가로서 많은 작품을 남겼고 서울에서도 대규모의 회고전을 개최한 바 있다. 오늘날 연변의 용정에 가면 '한락연 공원'을 거닐 수 있는 바, 주인공을 기리는 조형물을 볼 수 있다. 물론 조선족을 기리는 중국 정부의 공공 공원의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정부는 2005년 그를 항일독립운동가로 추앙하면서 포상하기도 했다. 한락연은 키질 연구의 답사여행에서 1947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키질석굴에서 한락연의 숨결을 맡을 수 있음은 또 다른 흥복이리라.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050-2879-8709
문의 010-3629-8709



천년의 혼(魂)을 담은 서각(書刻)불사

소납은 경북 성주 청매암에서 수행 정진하는 정도(正道)스님 입니다.

17년전 해인사 원당암에 주석하셨던 혜암 큰스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천년을 보존하는 목재를 섭씨 60도에서 2년간 염장처리하고 8년간 자연 건조한 목재 200여장을 준비하여 시절 인연을 기다립니다.

반야심경(般若心經)108분의 서체가 필요합니다. 서체와 성별, 국적, 종교도 무관합니다. 감동과 원력이 담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원본은 돌려드리고, 영인본으로 서각하여 108편이 완성되면 박물관 또는 수장고에 기증하여 천년을 보존 하겠습니다.



뜻이 있으신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연락처
주 소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4길 36-35 (청매암)
전 화 : 054-932-6917
휴대폰 : 010-3523-1977

청매암 주지 정도 합장

목포 정광정혜원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청 8건 예고 고시 망우 유공자 묘역도 포함



문화재 등록이 예고된 목포 정광정혜원.

문화재청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목포 정광정혜원 등 6건과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 등 항일독립 문화유산 2건 등 총 8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8월 8일 밝혔다.

문화재 등록 예고된 목포 정광정혜원은 1918년 세워진 사찰로 불당과 요사채가 장방형(사각형) 중정을 중심으로 한 건물 내에서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일본식 사찰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은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오세창(吳世昌, 1864~1953), 문일평(文一平, 1888~1939), 방정환(方定煥, 1899~1931), 오기만(吳基萬, 1905~1937), 서광조(徐光朝, 1897~1972), 서동일(徐東日, 1893~1966), 오재영(吳哉泳, 1897~1948), 유상규(劉相奎, 1897~1936) 등 여덟 명의 독립지사가 모셔진 역사적인 곳이다. 인근에는 2012년 문화재로 등록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묘소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 계승과 역사적 교훈의 가치가 담긴 역사적 장소로 판단된다는 평가다.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은 을사늑약(1905년) 이후 충청남도 해안지역에서 의병들이 연합하여 소난지도에서 전개된 항일 의병전쟁의 처절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상 도서를 근거지로 항일투쟁을 벌인 곳이다.

문화재청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항일독립 문화유산의 적극적 발굴과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여 독립운동과 조국 광복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8건은 앞으로 30일간의 등록 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무구정광 中 유물 주장, 반박 증거 나왔다

송일기 중앙대 교수, 불복장 국제 세미나서

8세기 後 간행 없단 이유로
무구정광 '中→신라' 주장은
동북공정에 이은 '출판공정'

개운사 아미타불 불복장서
9세기 경전 발견 '공백 無'

경주 불국사 3층석탑(석가탑) 사리공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이하 무구정광)〉에 대해 학계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 중인 세계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과 달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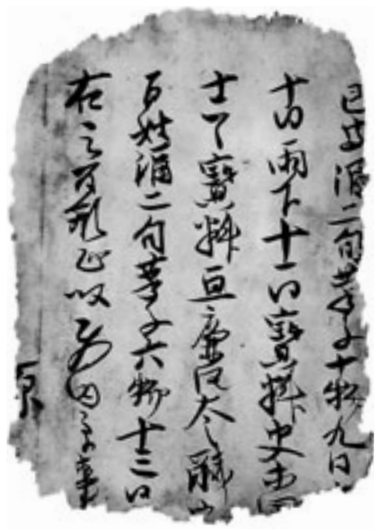
이유는 중국에서 〈무구정광〉이 중국서 간행돼 신라로 전래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

송일기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8월 11~12일 이화여대 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이화여대 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불복장 국제학술대회'에서 최근 불복장 전적 수습 사례를 분석하고 중국 측 주장을 반박할 증거들을 제시했다.

현재 중국이 '〈무구정광〉 중국 제작설'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구정광〉의 간기가 없고, 이후 300년 간 새로운 인쇄물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1995년 안암동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불복장 유물에서 나온 전적류를 중국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당시 개운사 아미타불 복장물에서는 전적류 28점, 문서류 13점이 수습됐다. 이 중 전적류는 조선시대 목판본 4종 6책을 제외한 나머지 22점은 모두 통일신라부터 고려 초기에 간사(刊寫)된 경전이다.



국보 제126호 불국사 3층석탑 사리장엄구 중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일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이지만, 중국 측이 자신들이 제작해 신라로 전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송일기 교수는 개운사 불복장 전적들의 간행 시기를 예로 들며 이를 반박했다.

또한, 22점의 경전 중 20점은 모두 〈삼본화엄경〉으로 현재까지 소개된 단일 불상의 복장 유물 중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개운사 복장본 〈화엄경〉 20점 중 최소 4점 이상은 신라 하대에 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 국보급 전적 문화재이며, 나머지도 고려 초기에 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중국 측의 억지 주장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인쇄 실물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측의 〈무구정광〉 제작 주장은 영토 문제인 동북공정에 이은 출판공정"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출판공정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개운사 불상 복장물인 〈화엄경〉 4종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8세기에 간행된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물 이후 2~3세기 공백을 보완할 결정적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는 국내외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제임스 롭슨(James Robson) 하버드대 교수는 '불교 성상 뒤집어보기: 불상의 내용물은 왜 중요한가'는 기조강연에서 불상 안에 다양한 성물을 안치하는 불교전통의 중요성과 이러한 전통에 대해 학자들의 연구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은우 동아대 교수와 이승혜 삼성미술관 리움 책임연구원은 한국불복장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고, 강희정 서강대 교수는 불상을 단순한 조각에서 생명력을 가진 예배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복장의례의 의의를 발표했다. 이용윤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장은 불화 복장 의례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제시했다.

해버포드대 행크 글래스만(Hank Glassman), 오레곤대 아키코 월리(Akiko Walley) 교수 등 해외 초청 학자들은 일본 밀교와 도다이지(東大寺) 등의 복장유물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한국 학자와 연구자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불교와 동아시아의 종교들' 국제 인문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참여 학자들은 학회 이후 수덕사, 송광사, 국립중앙박물관 복장 유물을 조사했다.

신성민 기자

불자 지성들, 전환기 포교전략 논한다

교불련, 17~18일 진각종 총인원서 교수불자대회

종단별 포교 전략 등 제시
행자 교육 · 4차 산업 다뤄
대학불교네트워크 논의도

불자 인구 300만 명 감소로 한국불교는 위기를 맞았다.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불자 지성인들이 모였다.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각종 총인원서 '전환기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수불자대회는 기조 강연과 6개 분과 발표로 나눠 진행되며, 특별 라운드 테이블 토의도 펼쳐진다. 기조 강연은 박광서 서강대 교수가 맡았다.

전환기 포교 전략 분과 회의에서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전환기 포교 전략이 제안된다. 발표자로는 김은영(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배성월(중부대), 고우익(금강승가대), 성제정사(위덕대) 등이 나선다.

또한 전환기 한국불교 의제를 통해서는 △이희재(광주대)의 '전통 행자교육에서 본 세대간 소통의 문제' △백도수(능인불교대학원대학)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법방안 고찰' △마성 스님(동국대)의 '불교지도자의 덕목과 리더십'이 각각 발표된다.

이와 함께 교불련은 라운드 테이블 논의를 통해 '대학불교네트워크 창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발제는 심익섭 교불련 회장이 진행한다.

또한, 내년 교불련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대회, 출판사업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심익섭 회장은 "불자 인구 300만 명 감소 등 위기 상황인 한국불교의 실태를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주제를 마련했다"면서 "또한 '대학불교네트워크' 창립 논의를 통해 대학 포교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하계 불교계 학술지 발간 잇달아

대각사상硏 〈대각사상〉 · 정토학회 〈정토학연구〉

하계를 맞아 불교 주요 학회 발행 학술지들이 잇달아 발간되고 있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대각사상〉 27집을 발간했다. 특집 논문으로는 백용성 사상의 재인식을 주제로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경위와 성격(이재수) △〈백용성 대종사 총서〉 수록 자료 조사기(한상길) △백용성 대종사의 화엄과 선(영석 스님) △백용성의 〈금강경〉 이해와 공관(김호귀) △백용성 만일염불회의 전개와 성격(김광식) △백용성의 참선 대중화운동과 부인선원(조승미) 등의 논문들이 수록됐다. 또한 기고 논문으로는 탄호 스님의 '무아 상륜의 생애와 수행'이 소개됐다.

한국정토학회(회장 정인)는 〈정토학연구〉27집을 최근 내놨다. 특집 논문으로는 승보신앙의 재조명을 주제로 △삼보와 승보신앙의 소고(정인 스님) △정토신행에 드러난 조사신앙(법상 스님) △선종에서 조사신앙의 유형과 특징(김호귀) △조선시대 삼화상의 위상과 추념(황인규)이 발표됐다.

기고 논문으로는 △염불선과 선정계위-청화 스님의 염불선 위차 사상과 관련한 비판적 검토(조준호) △미륵 명화와 미래불로서의 사상적 기반(박민현) △영산재 문화콘텐츠화의 전개 양상과 과제(손인애) △조선후기 불교 장엄과 의례에 수용된 정토사상(보운 스님)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가야불교사 재조명 본격 시작되나

동국대 세불연, 30일 학술대회

문재인 정부가 밝힌 가야사 복원과 관련해 불교계에서도 가야불교사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처음 열린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 이하 동국대 세불연)는 오는 8월 3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가야사와 가야불교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가야 명칭의 어원과 가야불교의 서원'을, 남재우 창원대 사학과 교수가 '사국시대 가야의 위상과 가야사의 지위'를, 이영식 인제대 고고학과 교수가 '가야사와 고고학 자료의 발굴 현황'을 발표한다.

또한 최경아 동국대 불교학부 외래교수가 '남아시아 불교와 가야불교의 접점'을, 정진원 동국대 세불연 연구교수 '가야불교 인물의 발굴과 활동 분석'을, 김복순 동국대 국사학과 교수의 '가야불교와 신라불교의 특성과 차이'를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정기선 동국대 세불연 연구원, 김세기 대구한의대 명예교수,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 등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행복과 자유 누리며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 행복은 느끼는 것이요,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 눈높이에 따라 행복의 현주소가 바뀔 수 있다. 색깔에 따라 무게와 느낌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번갈아가며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눈, 귀, 코, 입, 몸, 뜻의 열린 문으로 들어 왔다가 눈, 귀, 코, 입, 몸, 뜻의 닫힌 문 일 때 불행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열고 닫힘에 따라 빛이 어둠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이치이다.

세상의 절반은 빛이요 절반은 어둠이다. 절반은 행복하고 절반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희(喜)·노(怒)·애(哀)·락(樂)은 고정된 모양의 틀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안개와 같고 물의 흐름과 같다. 영원히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 없듯 영원히 불행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이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듯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교 신앙 쪽으로 기우는 것도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찾기 위함이다. 불행을 멀리하고 행복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는 산자들이 누구나 누리고저 하는 꿈의 유토피아(Utopia)이다.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어디에도 없는 장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워하며 예로부터 천국(天國)과 극락세계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팍팍하고 고단하다. 허무하고 무상(無常)하다. 질긴 삶도 지나고 보면 풀끝에 맺힌 이슬이요 허무의 그림자로 막을 내리는 몇 마당짜리 연극 같다. 모인 관중이 막 내리면 흩어져 빈 마당이 되듯 재산, 명예 흩어지고 사라지면 누구나 적막강산의 홀수가 된다.

어지간히 다투며 싸우며 몸부림치며 모으고 챙기고 쌓아온 재산과 명예가 해질녘 되돌아보면 마른모래를 쥐고 있던 빈주먹의 싸한 아픔뿐이다.

삭신이 세월의 무게에 녹이 슬고 기능의 동작이 더뎌가며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면 삶이란 검불떼기 같은 가벼움의 눈물뿐이다. 살면 얼마를 살까싶어 나누기, 비우기, 덜어내기. 몸과 마음으로 이별을 연습하고 있지만 가슴 싸한 추억은 몇 방울의 눈물방울로 남는다.

사람이 앓는 모든 병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늙어서도 철이 덜 들어 명예와 재산 쪽에 기웃거린다면 그는 얼간이요 머저리 등신이다. 분주한 몸짓도 서서히 거둬들여 잔잔하게 개운하게 마무리의 마침표를 준비해야 한다.

불교 매체를 보면 스님은 복 짓는 설법이요 사찰알림은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광고로 도배돼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열려있으나 사찰과 스님들은 막혀있는 행위로 부끄러움을 더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바른 불교 바른 신앙의 열린 사찰과 열린 스님의 설법이 없지 않으나 사찰경제를 앞세워 오늘날의 불교계는 망가지고 있는 느낌이다.

수행자답게, 스님답게 말과 행동이 맑고 밝아야한다. 방편설(方便設)을 앞세워 목탁불교로 신앙을 돈으로 거래할 일은 아닌 것이다. 설법 내용은 경전 중심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어야 하고 설법자 스스로 깨달음을 향한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진솔하게 순수하게 당당하게 넉넉하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말하고 실천하는 행동인이 되어야 한다. 검소하고 가난하게, 그 가난함이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살 일이다.

인생이란 흔들리면서 헐떡이면서 서서히 철이 들다가 막을 내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론적인 것에서 수행자는 일찍 깨어 있어야한다. 허울의 옷을 훌훌 벗고 끌어당김의 머묾에서 자유로워야 수행자이다. 더욱이 독신수행승이라면 비우기 나누기 덜어내기의 참 주인공이 되어야한다. 텅 빈 충만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모든 병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텅 빈 충만 주는 행복 누리길

화두에는 분별이 없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선가의 공안(公案)을 모두 합쳐 1700공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경덕전등록〉에 수록된 선사들의 공안을 모두 합쳐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이들 공안을 선별하여 중요한 공안을 활구(活句)라 하여 간추려 내기도 하였다. 설두중현의 〈송고백칙〉도 1700 공안 가운데서 100개를 간추려 낸 것이다. 간혹 공안에도 사구(死句)가 있다고 한다. 활구니 사구니 하는 말은 공안이 지닌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는 말(活句)이라 하고 공안의 생명력이 없는 것을 죽은 말(死句)이라 하였다.

간화선 공부에 있어서 선수행자가 가장 많이 참구해온 대표적인 공안을 무자(無字) 화두라 한다. 물론 '이 멋고(是甚)'라는 화두도 있지만 무자화두의 10가지 병을 설해온 예를 보더라도 공안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무자라 할 수 있다.

이 무자 화두는 조주종심(趙州從諗:788~897) 선사에 의해서 제안된 화두다. 원래는 구자무불성화(狗子無佛性話)인데 줄여서 그냥 무자화두라 한다.

〈조주록〉에 어떤 학인이 찾아와 조주스님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대화의 장면이 나온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위로는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는데 개는 어째서 없습니까?" "그것은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한 학인은 〈열반경〉 등에 설해져 있는 '일체 중생은 불성이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경전의 말을 근거로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개도 중생에 속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은 것이다. 경전의 말을 부정하는 것인가? 여기서 화두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말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아름아리를 따라가면 이는 죽은 말이 된다. '없다(無)' 한 것은 경전의 말을 활구로 만드는 수단이다. '있다' '없다' 하는 양단(兩端)의 어느 한쪽을 결정해 주는 말이 아닌 것이다. 〈조주록〉에는 또 이렇게 대답한 말도 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그 집 문 앞에는 장안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그런가 하면 유관(惟寬) 선사는 똑같은 질문에 '있다'고 대답했다. 〈경덕전등록〉 권7 '유관선사전'에 나오는 대화는 이렇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스님에게도 있습니까?" "나는 없다."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는데 어째서 스님만 없습니까?" "나는 일제중생이 아니다." "중생이 아니면 부처입니까?" "부처도 아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무슨 물건입니까?" "이 또한 물건도 아니다."

"보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고 말로 얻을 수 없으므로 불가사의라고 한다."

글자가 지닌 유·무의 상대적인 의미에 화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라 대답하고 '유'라 대답한 선사의 알 수 없는 의중이 화두가 되는 것이다. 화두에는 분별이 없다.

〈무문관(無門關)〉 1칙에는 무자(無字)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 놓았다.

"온몸으로 의심덩어리를 일으켜 이 '무'자를 참구하여 밤낮으로 들고 있되 허무라고 이해하지 말며, 유·무의 두 견해로 분별하지 말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부처다, 조사다 하는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벗어나야) 이 무자의 관문을 뚫고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

조주의 무자는 이렇게 모든 공안의 표본이 되었다. 중국에서 선법이 번창하게 된 데에는 많은 선사들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중 선의 보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선사를 두 사람만 고른다면 조주 선사와 임제 선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주와 임제는 같은 시대를 살았다. 모두 당 말기 9세기초반에서 후반까지 활약하였다. 다만 조주는 120세의 생애를 살아 장수를 누렸다.

임제의 출생연대는 알려지지 않고 열반에 든 해가 867년으로 나와 있다. 두 사람은 또한 산동성(山東省) 남화(南華) 출신으로 동향(同鄕)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기질은 달랐다. 후대의 사람들이 임제의 선풍을 남성적인 북방인 기질이라 평했고 조주를 온화한 남방인의 기질에 여성적이라 말하기도 했다. 섬세하고 언설적인 기지가 넘친 조주에 비해 임제는 행동적이고 거칠고 우직한 면을 보여 '산채로 파묻는다'는 활매(活埋)의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타인이 즐거워야 나도 즐겁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⑥ 해탈 공덕을 위한 자세

智人若得解脫知利他樂歡喜氣味者。必當還來利益衆生。畏於生死爲自利益求於解脫以爲極樂者。不如菩薩受陰身時歡喜快樂爲利他故。若自一已受逼迫苦者乃可入於涅槃。一切衆生受逼迫苦。云何捨於衆生入於涅槃° 見自己苦者入於涅槃。悲者見一切衆生苦皆住己心。云何捨於衆生入於涅槃。若能爲他作樂歡喜æ 是涅槃。若不如是æ 是生死。於衆生有平等悲者爲他作樂歡喜æ 是涅槃。佛所讚說。若解脫如利益一人歡喜樂者爲智者所愛。若與他重樂不計功者æ 是解脫。悲者爲他作樂不望果報。若能如是æ 是解脫。若不如是æ 是生死。若爲己求樂者æ 是苦也。捨於己樂爲他求樂æ 是涅槃。世間衆生以破苦故名爲解脫。修悲者能破他苦æ 是勝解脫也。破他苦者二俱得樂。何有智者捨二解脫取一解脫。世間人言。有智者得於解脫。菩薩作是思惟。我不信是語。何有智人捨救他樂取於解脫。自己得樂能與他作樂。三有中樂勝解脫樂。菩薩爲衆生受苦。勝於他人爲己得解脫樂。

번역 | 지혜로운 사람이 만약 해탈을 얻으면 이타행의 즐거움과 환희의 기미를 알고 반드시 되돌아와 중생을 이익케 하나니, 생사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해탈을 구함으로써 극락 삼는 것은 보살이 오음(五陰)의 몸을 받았을 때 즐겁고 기뻐하며 이타행을 하는 것만 못합니다. 만약 자기 한 몸의 핍박과 괴로움 때문이라면 열반에 들어가겠지만, 일체 중생이 핍박과 괴로움을 받는데 어찌 중생을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괴로움만 보면 열반에 들어가겠지만 자비로운 이는 일체 중생의 괴로움이 모두 자기 마음에 머물러 있음을 보는데 어찌 중생을 버리고 열반에 들겠습니까. 만약 타인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열반이거니와 만약 그러지 못하면 생사(生死)입니다. 중생을 향해 평등과 자비가 있고, 타인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게 곧 열반입니다. 부처님께서 찬탄하신바 만약 해탈하여 한 사람이라도 이익케 하고 기쁘고 즐겁게 한다면 지혜로운 이가 사랑한다고 하셨고, 만약 타인을 거듭 즐겁게 하되 계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 하셨습니다. 자비를 닦는 이는 능히 타인의 고통을 파하기에 곧 수승한 해탈이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파하면 두 가지 즐거움을 얻는데, 어찌 지혜로운 이가 두 가지 해탈을 버리고 하나의 해탈만 취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해탈을 얻고, 보살도 이런 생각을 짓는다고요.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 타인 구제를 버리고 해탈의 즐거움을 취하겠습니까. 자신이 즐거우려면 더불어 타인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삼계(三界) 가운데 즐거움은 승해탈락(勝解脫樂)이니, 보살은 중생을 위해 고통을 받거니와 타인이 자신을 위해 해탈을 얻는 것보다 수승합니다.

해설 | 본문을 읽다보니 언젠가 내게 해탈하였느냐 물었던 사람이 생각난다. 집착을 다 끊지는 못했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틀린 답이었다. 해탈은 내가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해탈은 내가 평안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즐겁고 평안하도록 만드는 삶이었다. 지혜란 것도 그러하였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하다고 여긴다. 한편, 내가 부처가 되면 세상에 부처 아닌 것 없다고 여기기도 하였는데, 이제 보니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기에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었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2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중생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도량으로"

티벳대장경역경원 교육원 길상사 울산 북구에 8월 5일 개원

티벳 삼동 린포체 특별 방문 개원 축하 〈보리도등론〉 법문

길상사, 티벳난민 장학금 전달 프리마켓·장학회 통해 조성해



길상사는 8월 5일 경내 앞 마당에서 개원을 알리는 현판식 및 축하행사를 진행했다. 길상사는 티벳 난민 돕기를 이어가고 지역민을 위해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티벳대장경 역경원 교육원 길상사가 울산 북구 호계동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길상사는 앞으로 티벳대장경 역경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더욱 다가가는 모습으로 '함께하는 도량'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길상사(주지 범국)는 8월 5일 경내 앞마당에서 개원을 알리는 현판식 및 축하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삼동 린포체가 특별 방문했다. 삼동 린포체는 티베트 망명정부 초대총리를 지냈으며 달라이라마의 외교특사로 활동 중이다. 삼동린포체는 길상사 개원을 축하하며 8월 5~6일 〈보리도등론〉을 주제로 법문하고 수계식을 진행했다. 〈보리도등론〉은 아티샤(982~1054)가 적은 것으로 카담파를 거쳐 총카파에게 이어져 〈보리도차제론(菩提道次第論)〉의 기본이 되었고 티베트 밀교의 교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경전이다.

불자들은 심동린포체의 특별 법석에 기뻐하며 특히 한국티벳불교사원 광성사에서 많은 티벳 스님들이 찾았다. 이뿐 아니라 진옥 스님(석천사 주지), 소남 스님(한국티벳불교사원 광성사 주지), 범국 스님(길상사 주지)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해 축하했다.

행사는 현판식에 이어 축하공연 및 개원사, 축사, 격려사,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됐으며 길상사 청년들은 직접 모은 승보공양금을 참여한 스님들께 올리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길상사는 티벳 난민 및 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NGO 희망씨앗월드웨어 장학회에서 제공했다.

NGO 희망씨앗월드웨어는 길상사 주지 범국 스님이 인도 다람살라에서 공부할 당시 망명한 티벳 난민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들을 돕기 위해 창단했다. 티벳 난민 자립을 도모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국 스님은 한국에서 헌옷을 제공받아 바자회 및 프리마켓을 열고 수익금으로 티벳난민을 돕고 있다. 아울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장학금을 기부 중이다. 현재 NGO 희망씨앗월드웨어 프리마켓은 길상사 1층에 위치한다. 길상사는 국내 헌옷을 기부 받고 있으며 앞으로 프리마켓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 돌봄과 환경 정화 사업, 티벳 난민 돕기, 인재불사 장학금 지원을 이어간다.

길상사는 티벳역경 불사 뿐 아니라 정기 법회 및 불교문화 기초와 〈입보리행론〉 〈보리도차제론〉 등 경전 교육도 진행한다. 수행 프로그램은 명상 및 염불, 오체투지참회와 함께 요가 및 천아트, 손바느질, 다도 등 문화 프로그램도 열어 지역민을 초청할 계획이다.

삼동 린포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율론 삼장을 자국의 언어로 읽고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티벳 경전을 번역해 한국 불교에 좋은 토대가 되도록 활동하는 길상사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주지 범국 스님은 "도심 가운데 위치한 도량으로 중생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함께 하기 위해 이곳 시장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함께 부지런히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티벳대장경 역경 및 교육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스님들의 공부를 위한 강원 도량을 조성할 근본 터전으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처님 사랑담은 노래로 더위도 '休'

인드라 스님, 대중 위해 찾아가는 힐링콘서트 개최

공덕원(주지 능후)은 '제17회 인드라 스님의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를 8월 9일 공덕원에서 개최했다.

인드라 스님은 현재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를 총 53회 기획, 진행 중이다. 2006년 3월 가수로 공식 데뷔해 만 10주년을 기념하며 대중에게 음악으로 힐링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다짐이다.

인드라 스님은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구법여행을 떠난 것처럼 대중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직접 만나 부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며 "걸망 메고 부처님 찾아 가듯, 찾아가는 음악을 해보자고 결심했으며 나이가 들면서 함께 성숙해진 모습으로 인사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힐링 콘서트 타이틀은 '인드라 노래로 말을 걸다'이며 대중 뮤지션이 아닌 힐링 뮤지션으로 활동할 의지를 담아 '인연' '정주고 내가 우네' 등 8개 대표곡을 선사했다. 인드라 스님은 다가오는 9월 8일 오후 7시 제18회 힐링콘서트를 계획 중이다.


공덕원은 '제17회 인드라 스님의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를 8월 9일 공덕원에서 개최했다.

인드라 스님은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학과에서 플룻을 전공했다. 음반활동 및 플룻 명상곡 등을 통해 여러 무대에서 음성 포교활동을 펼쳤다. 마산시향 수석 단원을 역임했을 정도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추모 공연을 국내 최초로 열어 화제를 모았다.

하성미 기자

하안거 해제, 산문 밖 수행 길로…

불국사, 8월 6일 정유년 하안거 해제 법회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종우)는 정유년 하안거 해제 법회를 8월 6일 설법전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주지 종우 스님, 학장 덕만 스님 등, 불국사 신도회 및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월산 대종사 큰스님은 육성 법어로 "유정무정도 둘이 아닌 하나며, 세상사 마음 따라 그려지는 그림과 같으니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근본자리에서는 둘이 아니라 그 자리"라고 설했다.

회주 성타 스님은 "지난 석 달 동안 자신의 번뇌망상 어려움 속에서 용맹정진 수행한 마음을 이어 세속에서 또 다른 수행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납자에게 달려있다"면서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여름안거를 마친 스님들은 산문 밖으로 만행 길에 올라 깨달음을 향한 세상 속 또 다른 수행에 나섰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나래문화재단 평생교육원 개원

9월 6일부터 명상·다도 등 강좌 열어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이 평생교육원 허가를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승인 받아 올 9월 6일부터 한나래 평생교육원을 운영한다.

한나래 평생교육원 하반기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힐링 가드너 양성-정원문화 플랫폼 구축 정원사 및 원예치유 △긍정자각 명상캠프-명상수행의 목적과 자기이해 △차다움 마음수행-차 생활을 활용한 명상의 기초 이론과 방법 △인문학과 함께 하는 '인성여행' 시테라피-시적감동과 기쁨, 오감의 공감각적 체험&자존감 회복 △천연염색-실크 스카프 천연염색 △홍차의 이해-찻잎의 등급에 따른 추출법 △타로와 함께 하는 힐링명상-마음챙김, 자기연민심 증대다. 이외 4주 특강 프로그램으로 사찰음식, 궁중다식, 앙금플라워 떡케이크도 준비 중이다. (051)508-0333

하성미 기자

계율 강조 위한 '비니법석' 열린다

관음사, 9월 13일~11월 22일 제1회 비니법석 평등대회 개최


부산 관음사는 맑고 안락한 삶을 위한 '제1회 비니법석평등법회'를 관음사 경내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교재 〈행복한 믿음으로 가는 길〉을 번역한 진목 스님이 설명하는 모습

오계, 팔계 등 재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집중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는 맑고 안락한 삶을 위한 '제1회 비니법석평등법회'를 관음사 경내에서 개최한다. 비니는 산스크리트어로 '계율'을 뜻한다.

기간은 9월 13일~11월 22일 매주 수요일 총 10회에 걸쳐 열리며 시간은 오후 2시이다. 직장인을 위해서는 저녁 7시에 동일 주제로 법석을 연다.

관음사는 송광사 부산분원으로 현재 송광사 조계총림 율원 율주 지현 스님이 회주로 주석하는 도량이다. 이번 법석은 계율의 중요성과 보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현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前 율원장 도일 스님, 송광사 율원장 대경 스님, 해인사 前 율원장 혜능 스님, 통도사 前 율원교수사 진목 스님 등 계와 율에 능통한 스님들이 나선다. 법회를 기획하기 전 강사 스님들이 직접 계율의 보편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함께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니 법석의 강의 교재는 〈행복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책은 대만 성엄스님이 정리한 계율학 개론서로 중국과 대만에서 계율 교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강사로 나선 진목 스님이 대만에서 유학하던 시절 발견해 번역했다. 교재는 삼귀, 오계, 팔계, 십계 등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구족계와 보살계에 대한 주요핵심 내용도 빠지지 않았다.

진목 스님은 "책은 실용적이며 보편적인 내용을 가장 간명하면서 쉽게 적용하도록 수계의궤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의 일정은 △계율 서론(9월 13일) △삼귀의(9월 20일) △오계와 십선(9월 27일, 10월 11일) △팔관계재 (10월 18일) △팔관계재와 문답 (10월 25일) △보살계(11월 1일, 11월 8일, 11월 15일) △계율총평 및 문답(11월 22일)이다.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비니는 계율의 또 다른 말로서 불법의 수명"이라며 "비니장이 머물면 불법 또한 머문다는 말이 있다. 불법을 수호한다는 심정으로 계율이 보편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051)294-9300

하성미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내소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봉래루에서 더위를 식히며 다도체험을 하고 있다.

“봉래루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내소사, 출입 제한했던 봉래루 일반에 개방

부안 내소사의 전통 누각인 봉래루가 일반에 개방됐다. 내소사(주지 진성)는 “그동안 안전과 문화재 보전을 위해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왔던 봉래루를 일반에 전격 개방했다”고 밝혔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에 따르면 그동안 계속된 가뭄과 폭염으로 내소사를 찾는 탐방객들이 늘었으나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 봉래루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봉래루에 차를 마실 수 있는 탁자와 다구를 배치하고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내소사는 봉래루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도강좌를 비롯한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인근 변산해수욕장과 격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겨 오는 내소사는 가족이나 연인, 등산객 등 누구나 자유롭게 봉래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다도 강좌도 계획 중이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그동안 개방하지 않던 봉래루를 일반에 개방하고 내소사의 천혜의 자연과 함께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봉래루를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은 물론 전법과 포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중이 불교와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내소사를 찾은 한 관광객은 “그동안 여러 사찰을 찾았지만 마땅한 그늘이 없어 머물러가기 불편했다”며 “아이들이 더위에 많이 지쳐있었는데 봉래루에서 차를 마시며 쉴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일반에 개방된 내소사 봉래루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2층 누각 건물로 조선 태종 12년(1414년) 건립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한 가능성’ 佛法서 찾은 대학생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영 부디스트 캠프
전국 대학생 · 청년불자 120여 명 참여해
3박4일간 체험 · 강연 등
자신 돌아보는 시간 보내
청년들의 자신감 높이고
불교문화 접하며 신심다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영 부디스트 캠프에 참가한 청년불자들이 합장한 채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비로운 삶을 살 것을 서원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 전국 청년 · 대학생 불자들이 고즈넉한 산사에 모여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 것을 서원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수)는 8월 3~6일 3박4일 일정으로 구례 화엄사와 지리산 일대에서 ‘우리들의 소소한 행복과 성공’이란 주제로 ‘제8회 KBUF Young Buddhist Camp(영 부디스트 캠프)를 개최했다. 전국 대학생 · 청년불자 1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청년층 불자들의 단합과 교류 및 심신 증진을 위한 것으로 대불련 주요사업 중 하나다.

캠프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백효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 등이 참여해 축하인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입재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당당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전국의 젊은 대학생 불자 여러분들이 고맙고 기특하다”면서 “여기 모인 대학생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 시대에 바르게 구현해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를 준비한 이경수 대불련 중앙회장은 “이번 영캠프의 슬로건을 ‘우리들의 소소한 행복과 성공’ 줄여 ‘소행성’이라고 정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행성 주변을 띠로 둘러 맴도는 소행성처럼 자신의 가까운 곳에서 맴도는 행복과 성공들을 되돌아보고, 격려와 용기를 보냄으로써 참가 대중이 행복감과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자 한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블루썬리조트 송학홀에서 봉행된 입재식을 시작으로 3일에는 △법등별 시간 △법스타그램이 진행됐다. 이어 4일에는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들 장재열 대표의 청춘강연 △공동체 놀이 △운동회(달려라 붓다) △도운 스님의 ‘19금 붓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5일에는 △지리산 천은사 순례 △노고단 산행 △계곡 물놀이 등 지리산의 자연을 만끽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지막 6일에는 화엄사 순례와 회향식 등으로 영 캠프를 마무리했다. 이외에 △명상 △예불 △공양 등 사찰의 예절과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보냈다.

특히 참가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답게 일상의 익숙했던 습관을 벗어나 마음을 열고 캠프에 참가하는 것, 우리는 부처생명의 무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확신 아래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것” 등을 다짐했다.

캠프에 참여한 중앙대학교 박준우 법우는 “둘째 날 지리산 노고단을 오르는데 자연이 제게 말을 하는 것을 느꼈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너무 서두르지마. 곁에 있는 자연 풍광을 놓치지마’라는 느낌이 들었다. 덕분에 이번 캠프를 통해 삶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가지게 됐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의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회향식에서 “화엄사의 ‘화엄’이란 뜻은 ‘행복’”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캠프의 주제처럼 우리 주위에는 소소한 행복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다. 빠르게 변화하는 무한 경쟁의 삶에서 성공을 너무 먼 곳에서 찾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곡당 윤명대선사 34주기 추모

고창 선운사, 스승의 수행 · 불사원력 되새겨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교구본사로 승격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초대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대선사 34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사진〉

8월 9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제에는 재곤 · 재석 · 재진 스님 등 상좌스님들과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前주지 법만 스님, 문수사 태효 스님, 내소사 진성 스님을 비롯한 문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은 남곡문도를 대표해 대중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오늘날 선운사의 발전된 모습에 초석을 놓으신 스승의 수행과 불사원력을 기리고, 가르침을 이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곡 스님은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34년 만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3년 불교정화운동으로 격렬했던 비구대처 양설을 화합하는데 주력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교무부장,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66년 초대 24교구 선운사 주지를 소임을 맡아 선운사 천왕문과 대웅보전, 도솔암을 중창하고 1983년 세수 73세, 법랍 54세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명상으로 마음이 맑아졌어요!”

구례 화엄사, 경내서 초중생 ‘녹색등불 캠프’

청소년들의 열정을 다양한 놀이로 승화시킨 불교캠프가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7월 28일 1박2일 일정으로 경내 화엄원서 ‘화엄사 청소년들의 열정을 만들어가는 녹색등불’ 캠프를 실시,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불교체험과 전통놀이, 마음상담 등을 진행했다.

구례 · 순천지역 초중등생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서는 마음그림상담연구소 ‘온새미로’ 대표 담소 스님의 지도 아래 4가지의 명상체험이 진행됐다. 28일 첫날 아이들은 풍경화 명상을 하면서 ‘지금 마음과 마음속 자신의 마음 이야기’를 색채와 그림으로 표현했다. 저녁 예불 후에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가슴호흡을 통해 억눌린 상처를 발산하고, 내적 에너지를 평화로움으로 가득 채우는 동적 명상 시간을 보냈다. 밤늦도록 이어진 ‘소중한 나의 손’ 프로그램은 석고로 자신의 손을 본뜨는 것으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을 떠올려 앞으로 자신의 손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조별 손 매듭 풀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녹색등불 캠프 참가 학생들.

둘째 날은 지리산 여름 숲속에서 자연물을 이용, ‘자연 만다라’ 재료를 구한 뒤 물놀이를 즐겼다. 아이들은 각자 산에서 구해온 자연물로 만다라를 만들고, 이야기를 붙여 조별로 발표했다.

이번 캠프를 진행한 담소 스님은 “명상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내면감정을 표출하면서 내재돼 있던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며 “내적 에너지를 꺼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소중함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에서 온 한 중학생은 “사찰이라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밥이 입에 안 맞을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괜찮았다. 밥도 맛있고 특히 피자와 샌드위치로 간식이 나와서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캠프를 준비한 화엄사 포교국장 도운 스님은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지친 아이들이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긍정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임실 상이암 일대 자연 힐링공간으로

2021년까지 개발 예정

고려태조 왕건과 조선태조 이성계 관련 설화로 유명한 임실 상이암 일대가 자연 힐링공간으로 개발된다.

임실군 상이암 주변 성수산 개발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총 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이암 주변일대에 역사학습공간, 기 체험장, 친수공간 등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 정비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려태조 왕건과 조선태조 이성계가 상이암에서 기도한 후 왕이 되었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성수산을 왕의 이야기가 담긴 역사적 장소로 살린다는 방침이다. 또 왕의 숲 조성사업과 성수산 산림바이오힐링센터 등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개발사업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1대 (자체 USB탑제)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중고 앰프 다량 보유!”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병이 없는 것이 제일 가는 이익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가는 부자이며, 가족이 제일 가는 벗이고, 고요함이 제일 가는 즐거움이다.

– 법집요송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 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6415-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신통 방편력
땅 건물 가게 공장
속히 매매 성취
(좋은 땅도 봐드립니다)
010-2896-6689
광덕 합장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 · 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653-5151
무상 합장

예언가 육관
- 22년 김정은 사망한다
- 25년 남북통일 이루어진다
- 27년 강한 지진 발생한다
- 29년 백두화산 폭발한다

한반도에 무슨일이 있는가? / 그대는, 가족은, 생존할 수 있는가? / 소망,승진,결혼,선거당선 등등 도통경계의 도력으로 미래를 예언하며 개인 질문에도 답해준다.
010-6357-5152
전화상담 직접상담

석 하 명 리
논리로 푸는 사주 명리학
속성반 (기초부터 통변까지)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1급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010-2643-5685
부산경남지역 설운 합장

효 림 불 교
모든 불교 용품
철거 및 법당정리
010-7538-3859
010-3403-1078
대표 임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법당 철거 조성
정성을 다 해드립니다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인연 맺어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이원해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010-2395-333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58

대승불교염불원
(실전염불 완전정복)
• 강의일시 : 2017. 8. 7
(매주 월요일 오후2시-4시)
상담전화 010-5934-1766
경북 청송군 진보면 높은베리길 90 원광사

경기도 시흥 포교당임
불상. 탱화. 촛대. 향로
다기 등 모든 것
무료로 드림
다가져갈분. 문자부탁드림
010-7696-8978

편백(히노끼) 시공
사찰환경 (주지실, 요사채 및 각 방사)과 힐링공간
수행과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바닥,벽, 천정까지도 정성을 다해 시공합니다.
*목조건물, 신축, 증축, 개축 상담
(도량내 편의시설도 실비로 보시)
010-5737-0317
무루건업 원일 합장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 법고, 화청, 풍수, 명리, 육효, 주역, 작명 (학인모집)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81-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376-6601

스님 및 공양주 모십니다
(60세 전후, 남은 여생 수행하면서 함께 지내실 분)
010-6513-4771

50후반의 비구입니다
함께 동거동락 하면서 가람을 이루어 가보실 비구니 스님 또는 보살님 인연 기다립니다
확실한 뜻 있는 분만 연락바랍니다
현 : 충남부여 다정 합장
010-4465-3690

모든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위패몰 www.위패몰.com
염주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도심 포교당
위치: 부산 쾌법동 최고요지 / 포교당 2층 140평, 대로변 / 현재운영 중 / 4억5천 대출가능
010-3867-47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 생활역학 강의(자격증서제도)
▷ 자강 : 이석영
▷ 단원 : 이병렬 선생님의 정통학문, 1년과정 초급, 중급,상급 (격국론)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저서 특허) 강의
육십갑자의 생극제화 원리 응용법

■ 단원육효 강의

■ 작명법 : 실증성명학전서(저서) 강의
본명사주의 자원오행법 원형이정법의 수리법, 음령법, 조후법, 통관법, 사상체질법 등의 체계적인 이론 연구의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문의 : 010-4470-631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8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 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수 행 도 우 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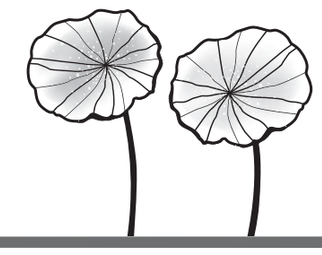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할 일을
해야 할 때 당황하지 않는다.

- 본생경-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 위치
- 3층 134㎡(약 40평) • 방 1실 법당 주방 공양간등
- 가액 : 보 5000만, 월150만, 시설비 2000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용인 임대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공양간 등 400㎡. 요사채 66㎡. 방사 41㎡
- 토지 1,500㎡ • 뒷편 산사찰. 위치좋음. 근린생활시설
- 보증금 2천만원 / 월 150만원 (시설비 8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 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경남 의령 사찰 소개합니다.

- 부지 총면적 : 340㎡(103평) • 건물 총면적 : 92㎡(28평)
- 가액 : 2억 3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부지 : 55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5억
◎ 위치 : 세종시
◎ 면적 : 100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요사 : 100경관수려
◎ 양도가 : 4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 주차장 20대이상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30평(방 7칸) 스님친견실 60평
-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2천만원

010-2498-7899

사 찰 안 내

- 위치 : 예산 수덕사 IC에서 10분거리
- 천혜의 요지 예당 저수지위에 위치한 150년된 조그만 암자
- 평수 약 2만평
- 산수 물 좋은곳, 예당 저수지가 훤희 보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 가격 : 상담후 결정

010-5097-3468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 1동, 칠성각 1동, 산산각1동, 요사체 약40평1동
- 가액 : 3억2천만원(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항시사찰(급)안내

- 주변이 산인 사찰
- 토지7.000㎡.요사채140㎡.목조법당 64㎡
- 주차장완비.뒷편산임. 깨끗하고 접근성좋음
- 버스 진입가능하고 남향
- 양도가액 : 10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경기도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아파트 상가 / 대로변 위치
- 2층 134㎡ (약 40평)
- 방1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3억7천만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5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김해
- 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산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1억 6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
- 요사채:2채(공양실포함)
- 가액 : 2억7천만원

010-3508-7710

암자,수련원 안내

- 위치 : 상주시 화북면
- 대지 : 407평, 전 : 500평
- 법당 : 14평, 요사 : 70평
- 가액 : 5억 천만원
- 앞뒤로 병풍같이 애워싼 산이 그림 같고 집앞으로 계곡이 흐르며 마을 한쪽에 위치함

010-9334-146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1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수도권의 위치
- 목조 단청, 전통사찰로써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 가액 : 9억

010-5466-3321

사찰안내(토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대지75평, 요사채, 법당 40평
- 방3,주방,욕실,화장실2, 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 보증금 1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5858-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시 조천읍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폿집)
- 요사채: 3동200평(방18개)
- 가액 : 25억
- 특징 : 대가람의 사찰로 현재는 선방으로 운영중입니다

- 위치 : 창원시 소재
- 부지 : 6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청기와,단청,2층)
- 요사채 : 35평(종무소,1층)
- 가액: 3억3천만
- 특징: 도심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하기에좋습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마산 남성동 어시장 번화가
- 3층 63평, 법당,대중방,스님방
- 가액:보증금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

010-3039-885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서면에서 5분거리
- 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토지 300평 공유지분 7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도심 속 깊은 암자
- 가액 : 10억

010-3867-4747

포 교 원 임 대

- 위치 : 울산시 동구
- 상가 2층 단독사용(45평)
- 바닥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
- 법당25평, 상담실, 침실, 공양간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시설 A급, 주차장 확보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7195-55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 성산구 중앙동
- 상가 4층 약 5 ~ 60평
- 삼존불 :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 법당, 공양간, 종무소, 스님 황토방
- 약 15년 법회(현재 법회중)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 산사로 이전)

010-3305-53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3분거리,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부지 : 145평
- 법당 : 요사채,방3개,주방
- 경치 최고 시내 도보 2분
- 가액 : 1억 7천

010-2849-88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 KT 옆
- 제반시설 완비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 2층 건물 2층, 옥상 60평, 사용 가능
- 교통요지, 터미널 도보 4분거리 대전역 5분거리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3,040만원

010-3452-1123
042)526-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422-9번지
- 법당, 산신각, 주지방
- 주방,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500만원, 월 40만원

010-3927-5741

주문진 토굴 임대

- 위치 :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458-17
- 법당, 방 2, 공양간, 욕실
- 평지텃밭 : 천여평
- 화목 및 기름 보일러
- 가액 : 보증금 천만원,월30만원 시설비 오백만원

010-5714-78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종교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32평, 창고 및 화장실 건평 총80평
- 법당 산신각은 특수 슈퍼하이칠, 경량철골판넬
- 텃밭별도 년 20만원 500평
- 가액 : 1억7천

010-4726-6496

팬숀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 일월산 부근 삿갓산 아담한곳
- 마당 앞 계곡물 1급수 자연수
- 땅 500평, 농지 500평, 법당 20평 건축허가 완, 토목공사 완, 현대식 목재건물 요사채 30평 완공
- 가액 : 2억 4천

010-5424-4969

사찰,전원주택 안내

- 위치 : 남해군 남면 상가리
- 대지 190여평, 건물 22평, 목조주택
- 산(소나무숲)아래 남향 집
- 전원주택,별장,암자(사찰 사용으로 최적)
- 대형 차량 진입 가능
- 2016년 건물 전체 올수리
- 가액 : 1억 9천만원

010-3848-2452
010-3831-7979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 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방10개,공양간,창고,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대출 7,500안고 2억 3천 5백만원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하천부지 약 100평 (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010-7121-3030

덕산암 및 된장, 간장,공장 매매 안내

1. 전통항아리, 100년된 전라도 항아리 800개 보유
2. 식품제조공장, 20년 운영, 보유고객 만오천명, 직원 8명 근무중
3. 백화점, 농협 마트, 인터넷 전화주문, 특판행사 진행중
4. 식품제조공장 1동, 법당 1동, 숙성실 1동, 주거용 2동, 심야보일러, 화목구들 1동, 대형 가마솥 7개, 자연수사용, 상수도 완비
5. 9,500평 (전, 잡종지)
6. 스님 및 재가자 환영
7.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명재로 332-108
8. 양도가 : 11억 5천만원

• 스님께서 원로하신 관계로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 010-4105-9099



친환경 삼베 타올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포함)

법회, 환갑, 칠순, 돌잔치, 명절 등 각종 행사, 가족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스토아철학, 불교와 어떻게 닮았나?

철학가 스캇티 헨드릭스, 美 '빅씽크미디어'에 칼럼 기재



철학가 스캇티 헨드릭스는 7월 8일 '당신의 생각보다 불교와 스토아철학은 더욱 연관돼있다'는 칼럼을 통해 스토아철학과 불교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해 환기했다.

사진출처=빅씽크미디어

기독교에 영향 준 스토아학파
불교와 공통·차이점에 '주목'
금욕·실용적 측면 등 비슷해
BUT 종교와 학문 차이 존재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지는 그리스 로마 스토아철학이 불교와 공통점이 많다는 분석이 발표돼 관심이 모인다.

미국 인터넷포럼 '빅씽크미디어'에 철학가 스캇티 헨드릭스(Scotty Hendricks)는 7월 8일 '당신의 생각보다 불교와 스토아철학은 더욱 연관돼있다'는 칼럼을 통해 스토아철학과 불교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해 환기했다.

스토아철학은 키티움 출신의 철학자 제논(Zenon ho Kyprios)에서 시작된 금욕주의 사상의 줄기를 일컫는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번성했으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등이 이 사상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그리스의 스토아철학은 로마의 스토아학파와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헨드릭스는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스토아학파와 불교와의 공통점에 주목했다. 그는 공통점으로 △금욕적 성격 △감정의 근원을 내부서 찾는 것 △실용적 측면을 꼽았다.

우선 그는 불교와 스토아철학이 공통적으로 금욕을 중요시하는 점에 주목했다. 불교는 모든 것을 무상·무욕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스토아철학 역시 '금욕주의'를 내세우며 행복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물질도 필요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

또한 모든 감정은 내 안에서 생겨난다고 말하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스토아철학도 모든 감정은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논지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불교는 다음 생보다 현생에 집중을 한다. 또 불교의 수행인 명상을 하기 위해 불교 신자가 돼야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용적 측면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에만 집중하는 점'과 유사하다. 헨드릭스는 "운동선수인 아폴로 오노는 결과보다 운동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교와 스토아철학은 한 세기 동안 서로 다른 대륙서 발전한 만큼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차이점으로 헨드릭스는 △업과 윤회의 신뢰여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수행법(고통에 대한 해결법) 등을 언급했다.

헨드릭스는 "가장 명백한 차이점은 불교는 종교로 인정받고 3억이나 되는 불자를 거느리고 있지만, 스토아철학은 종교가 아니며 스스로 스토아철학파라고 선언하는 사람을 찾기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는 업과 윤회를 신뢰하지만, 스토아철학은 아니다. 이 때문에 죽음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 불교는 윤회사상에 따라 죽음 그 자체로 끝이 아닌 몸이 소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반면 스토아철학은 죽은 후에는 원래의 것으로 돌아간다고 죽음을 인정한다. 이후의 삶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교는 수행법으로 선·교·염불 등을 제시한다. 이에 반해 스토아철학이 말하는 고통의 해결법은 마지막까지 이성을 따르는 것이다.

헨드릭스는 "이렇듯 불교와 스토아철학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명백한 차이점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둘 다 위대한 사상이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위대한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 박진형 수습기자



텐진 팔모 스님은 우리 내면에 집중해야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진출처=tricycle.org

텐진 팔모가 알려주는 내면 평화 찾는 법

패션 매거진 〈보그〉, 팔모 스님 조언 소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패션 매거진 보그(Vogue) 호주판은 7월 27일(현지시간) 당황스러움을 겪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영국인 비구니 스님인 텐진 팔모(Tenzin Palmo)의 말을 통해 소개했다.

사람들은 때때로 온전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길 소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반대 현상으로 바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텐진 팔모 스님은 이에 대해 "사람들은 내적 침묵이 매우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쁘고 활동적이고 산만하게 생활한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침묵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텐진 팔모 스님은 이에 대해 특별한 시간을 내야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내면에 집중하는 것만이 하루 24시간을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팔모 스님은 "요즘에는 매우 작은 일들이 전 세계에 걸쳐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예전에는 수개월에 걸쳐 나타날 현상들이 인터넷의 발달로 급속히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에 대한 패닉현상도 빨리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며 "이럴 때 일수록 팔모 스님은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텐진 팔모 스님이 전하는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법을 알아보고 이를 실천해 보도록 하자.

조용히 알아차림을 실천할 것

하루종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잠시 생각해보자.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저 매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판단도, 분석도 할 필요 없다.

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팔모 스님은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다. 이 호수는 매우 부드럽고 거울 같아서 우리는 매우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

명상은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통 인간의 마음은 경직되어 있다. 강한 습관과 판단력을 비롯해 강한 편견과 견해를 갖고 있다. 융통성 없는 생각은 내면의 평화를 빼앗는 주범이다.

멀티태스킹을 중단할 것

불교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한 번에 한 순간의 의식만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할 때는 당신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보자.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머리를 빗고, 차를 마시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푹 놓아보자.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

호흡할 것

우리의 마음, 호흡, 감정 상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 "숨을 깊게 마시고 내뱉어"라고 말한다. 이것은 마음과 호흡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안다는 증거이다. 티베트인들은 "입이 말이고, 마음은 말을 타고 있다"고 말한다. 호흡을 천천히 깊게 마시고 내뱉으면, 마음도 가라앉는다. 정신이 산만해질 때마다 호흡에 집중 해보자.

이보형 객원기자

기원전 1C 불교 유적지 인도서 발견

半연꽃모양 새겨진 4개 기둥



기원전 1세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유적지서 발견된 半연꽃모양이 새겨진 4개 기둥.

사진출처=더힌두

기원전 1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유적지가 인도 팔나두지역의 마두구라 마을에서 발견됐다. CCVA(비자야와·암라바티 문화센터)가 '후대를 위한 문화유적 보존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바닥과 상단 부분이 절반의 연꽃 모양으로 조각된 4개의 기둥이 발견됐다고 인도 소식통 '더힌두'는 7월 13일 밝혔다.

불교 고고학자이자 CCVA의 CEO인 레디 박사는 "기둥이 불교 아라미스의 신도실이었던 파빌리온을 지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半)연꽃 메달과 기둥 중 하나에 새겨진 작은 브하르미 비문의 예술 스타일을 바탕으로 기원전 1세기 불교 유적지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마두구라 마을이 사타바하나 왕권시대에는 불교부지였으며 동(東)챨루키안 왕권시대에는 자이나교의 신전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지선 수습기자

곰에 장난쳤다 생사위기 넘긴 청년

태국 사원 내 동물원서 사고 발생



태국 한 사원 내에 위치한 동물원의 곰이 먹이로 장난을 치던 방문객 나이품 프롬라띠(36)를 공격하고 있다.

사진출처=유튜브 영상 일부

8월 3일(현지시간) 태국 펫차분주 '와트 루앙 포어 라마이' 사원의 동물원 내 곰이 방문객 나이품 프롬라띠(36)를 공격했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 매체는 프롬라띠가 곰에게 장난을 치다가 봉변을 당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사원은 작은 울타리에 멧돼지 24마리와 곰을 키운다. 최근 관객들이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프롬라띠는 곰을 발견하고 밧줄 끝에 먹을 것을 달아 내렸다. 그리고 곰에게 먹이를 줄 듯 말 듯 약 올리며 장난을 쳤다.

화가 난 곰은 벌떡 일어나서 밧줄을 당겼다. 난간에 기댄 채 밧줄을 잡고 있던 프롬라띠는 중심을 잃고 우리 안으로 떨어졌다. 프롬라띠는 1분여 동안 곰에게 끌려 다니며 공격받았다. 당황한 프롬라띠의 친구들이 막대기를 곰에게 던지거나 찬물을 끼얹었지만 소용없었다.

동물원 관계자들 덕분에 겨우 우리에서 구출된 프롬라띠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며 "살아서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라고 말했다.

사원의 주지는 "곰을 비롯해 여러 동물은 최근 먹이가 부족한 탓에 예민해져 있었다. 운영상황이 열악한 수도원이 동물들을 잘 보살피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진형 수습기자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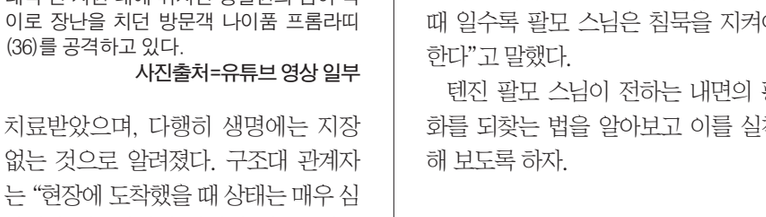


대표 오동렬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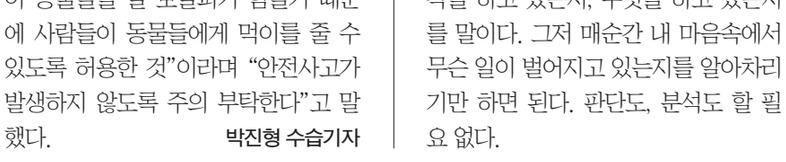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사찰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승하강장치 특허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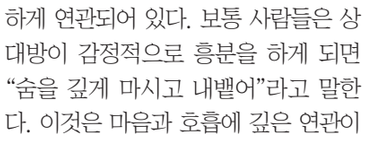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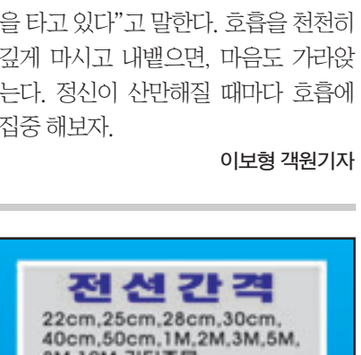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m, 6m, 7m, 8m, 10.5m, 13m, 20m, 30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전 선 시 공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

샤론 샐즈버그(미국 수행지도자)

〈5〉 혐오와 분노의 감정은 어떻게 다루는가

분노 표출로 얻는 만족은 잠깐이다



혐오는 2가지로 나타난다

1985년, 우 빤디따 스님의 지도 아래 처음으로 수행할 때 나는 이전에 겪었던 무서운 일들에 대한 기억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바람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옛 친구를 쌀쌀맞게 대했던 기억, 좋은 의도라고 자위하며 거짓말했던 기억,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물건에 집착했던 기억, 이런 모든 기억들이 떠올라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나는 스님께 이런 경험에 대해 말해야 했습니다.

"스님, 예전에 제가 저지른 나쁜 일들이 하나씩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생각납니다.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고 두렵습니다."

우 빤디따 스님은 나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정말 당신에 대한 진리입니까?"

그분의 대답을 듣고 나는 무척 놀랐습니다. 자기비판과 비난에 휩싸여 있던 나에게, 스님의 말씀은 마치 내가 그것들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에 대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야 나는 스님의 지혜로운 조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 아니면 이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혐오감에서 나오는 행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분노, 공포, 죄책감, 참지 못함, 슬픔, 실망, 낙담, 불안, 절망 등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혐오를 경험합니다. 증오나 혐오와 같은 감정은 사랑의 반대편에 있으며 메따의 '멀리 있는 적'입니다.

혐오의 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분노나 격노와 같이 밖으로 표출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태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강력하게 표현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혐오를 간직하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공포를 느끼며, 실망하고, 절망함으로써 혐오를 경험하는데, 이런 에너지는 아주 냉랭하고 무기력합니다. 혐오의 마음이 자신을 향하든 다른 사람을 향하든, 혐오의 감정을 마음속에 묻어 두든 밖으로 표출하든, 이것은 그저 마음 상태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혐오가 자신에게로 향할 때 죄책감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혐오감을 놓아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죄책감만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불교심리학에서는 죄책감과 후회를 재미있게 구분합니다. 죄책감 또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감정은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강하게 느낄 때는 그런 마음을 전환시키거나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에너지가 급속히 고갈되면서 죄책감 자체에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매우 고독하다고 느끼게 되며 자신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자기혐오는 수행을 꽃피우는 데 방해가 됩니다. 1979년, 달라이 라마가 통찰수행회를 방문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초보 수행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인간으로서 아주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에게는 생각의 힘, 즉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잠재력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깨달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방법

현대사회는 혐오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혼동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것과 분노를 발산하는 것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것들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마음을 열어 놓는 것은 수행을 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인식 영역 외의 특정한 것들을 억압하며 스스로를 속여 왔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거부하거나 억압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혐오의 상태에 대해 마음을 열어 놓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노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분노 통제의 실패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책감 된 자신 향한 혐오
마음 열어놓아야 치료 돼
복수의 행위자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 기르려 해야

분노는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아주 복잡한 감정입니다. 분노에는 실망, 공포, 슬픔과 같은 감정들이 한데 얽혀 있습니다. 감정이나 생각을 하나의 전체로 본다면 분노는 어떤 단단한 것으로 보일 테지만, 그것을 쪼개서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면 분노의 궁극적인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는 늘 변하는 것(無常)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지듯 분노 또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분노는 괴로움(苦)이며, 우리에게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분노 안에는 분노를 결정하는 '자아'가 없습니다(無我). 분노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이나 의지, 바람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분노는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있을 때 바로 생겨납니다. 우리는 분노를 소유할 수 없으며 분노가 생기는 것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숙련된 방법으로 분노를 다루는 법에 대해 배울 뿐입니다. 분노는 겉모습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분노가 단지 피상적인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 때문에 우리는 아주 비판적이게 되고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더 분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가 지혜로 바뀔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본래 분노에는 지혜와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면, 분노의 긍정적인 측면은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독기가 서린 분노, 타는 듯 끓어오르며 잔인하게 달콤한 이런 분노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분노는 정말 달콤하지만 그것을 표출해서 얻는 만족은 아주 짧고 고통은 오래 갑니다. 이런 분노 때문에 우리는 쇠약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보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구에게 화가 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의 분노에 화를 냅니다. 우리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때, 우리는 소리치는 그 사람의 입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소리 지르게 만든 그 사람의 분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에 분노를 더하면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초래할 뿐입니다. 붓다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잘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에 의해 없어지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사랑(미워하지 않음)에 의해서만 없어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이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며 편안히 등을 기대고 앉아 "당신이 했던 행동의 과보를 이번 생과 다음 생에서 받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을 괴롭힌 사람은 그 자신도 고통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복수의 행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특정 개인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용서로써 자신의 어떤 일부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뒤로 미루어두었던 일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였던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어떤 부분은 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과거에 매여 있던 에너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능한 한 가장 깊이 있는 방식으로 그 느낌을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가르침이 우리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의식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싸우고 있는가?'

우리를 하나의 고정된 방식으로만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 지워진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하는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을 쫓아 늘 마음이 떠돌거나 오르락내리락하지 말고 희망차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려는 목적의식을 가지는 일은 자유에 이르는 삶을 위한 수행의 열쇠가 됩니다.

이 글은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조계종 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9월 7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화가 나더라도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십시오!

다시 부부로 또 태어나게 되는지

질문 큰스님 법문 중에 당나귀 부리는 주인이 다음 생에 당나귀와 부부로 나왔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부부로 살다가 나중에 타계해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할 적에 똑같이 또 부부로 태어나는지요. 제가 안사람 구박을 좀 하는 편이라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답니다. "당신은 여자가 되고 한번 바꿔서 살아 볼까 하노라." 그랬답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 해를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튿날 그 부인도 마저 죽더랍니다. 그랬는데 그 부인과 남편이 하루 사이에 죽으니까 제사도 그냥 같이 지내 버리고 장사도 그냥 같이 지내 버렸답니다. 그런데 자식들 꿈에 말입니다, 그 부부가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얘야! 너희 아버지는 너희 딸로 나가느니라. 그런데 나는 여기서 태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러더랍니다.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너희 집 딸로 태어나고, 나는 지금 저기 가서 아버지보다 먼저 태어나야겠다." 이러더랍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를 아내로 삼으려면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더랍니다. 이 꿈을 꾸고선 자식이 이상하다고 나한테 물으러 왔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그래서 '야! 참….' 평소에 그렇게 하셨느냐 하니까 평소에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랬다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먹고 가는 게 제일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바세계의 모든 거를 다 그냥 아주 훌떡 벗어 버리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거는 "선한 것도 놓고 악도 놔라."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또 태어나서 살다 보면, 선하게 살다 보면 악이 또 붙어, 가다 보면. 그러니까 선도 놓고 악도 놔야 되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뭐 굳이 나온다 들어간다 할 게 없죠. 왜? 여러분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왜 몸을 받아서 또 납니까? 여러분도, 이왕 나온 몸들도 많은데. 그렇죠? 허허, 아, 순간순간 여러분이 내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아, 잘 좀 저거 하면 '아, 그 사람 참 잘 그려 가지고 나왔다. 그림을 잘 그려 가지고 나왔다.' 하면, '너, 집이 참 잘돼 있구나.' 그러면 아, 거기 좀 들어가서 며칠 살다 나오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살 생각을 한다면 그렇고요, 또 둘이 살면서 싸우고 고생을 하고 아웅다웅하고 그냥 그러고 정이 든다면 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요, 평소에 부인을 구박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사시면 그 몸으로,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저 화가 나시더라도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또 남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언제나 지혜로운 그런 폭넓은 그런 남자, 대장부로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아주 늠름하게 수백 명, 수천 명을 자기의 한생각으로써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장부가 되리라고 난 믿어 마지않습니다.

주인공 믿고 공부해서 합격하려면

질문 대입 시험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며칠 전에 고3 법회에 갔는데 스님께서 '나를 버리고 주인공으로 살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법문을 들을 때는 '그래, 정말 나는 없는 거다.' 하고 진짜 느끼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정말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스님 법회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자신감도 없어지고 어떤 때는 정말 믿지 못하고 나를 못 버리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님 말씀처럼 내가 함이 없이 주인공을 믿고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그런데요,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또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것이 가만히 편안하게 다 버리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었어요? 연방 발이 고정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떼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나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불이 하는 거다' 한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라."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중심, 즉 자불(自佛)만 믿어라 이 소리거든요. 학생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몸은 송장이 돼요. 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자불이 있겠어요. 그러니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고 자불은 운전수와 같고 기름과 같거든. 그러니 차는 운전수를 믿어야지요.

또 딴 걸로 비유한다면, 저 나무들이 뿌리 없이 사는 거 봤나요? 본래 자불과 학생의 육신은 같이 집을 삼아서 있어요. 저 봐요. 나무도 뿌리와 싹과 같이 달려 있죠? 본래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없이 믿어야 돼요. 학생을 리드해 나가고 학생의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고 학생을 이끌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자기의 참기사니까. 그러니 시험을 보더라도 이거는 자불 주인공만이 이거, 이런 과목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런 과목을 볼 때 저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동그라미를 그린다든가 거길 찍어서 놓는다든가 이런 데도 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찍고 돌아가야 돼요. 모르는 거는 이 안에서 하게 만들어야 되고 말입니다. 바깥에서 하면 도저히 올팡갈팡이 돼서 잘못돼요 .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방록으로 처음에 갔는데, 여기서 시험을 봐도 안 된다 그러기에 그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아마 절정에 도달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말도 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절하게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말의 뜻을 바깥으로 자꾸 마음에서 내 주니까 그 뜻대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방록에서 말을 얼른얼른 배웠다는 거지. 금방 배워서 거기 졸업을 하고 또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운 요량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지금 이렇게 시급한 학생들을 놔두고도 그거 한마디 얘기 안 해 주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거 뭐, 돈이 드니 못해요, 재산이 없어지니 못해요, 글쎄. 자손들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너의 주인공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다 너에게도 불이 켜질 것이다. 이거를 그저 배우고 또 앞으로는 점점 잘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관해 줘야 정작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뜻이 가지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한텐 연방 해 주고요.

어떤 사람은 하도 자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밥 먹는 테이블에도 붙여 놓고 벽에도 붙여 놓고 변소 안에도 붙여 놓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저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자 했던 모양이지요. 그렇게 해 보고 가니까 살면서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엄마더러 그러더래요. "나는 처음에는 '어디 정말 되나 안 되나 보자.'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해 주고 가져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시시때때로 그렇게 대치를 하고 보호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디다." 하고 고맙다고 하더래요. 그랬듯이 우리가 아무리 싫다 그러더라도 마음으로 관해 주고 벽에 붙여 놓고 한번 해 본다면…. 그건 진저리나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분란이 날 것도 앞서 대처해서 없애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불 불성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참나가 있는 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참나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여여한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여여한 줄 알았다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마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활달하게 생각하고 뛰어넘으세요

☞ A17면에서 계속

면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하고,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고 아무리 끝없이 해도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경경지에 이른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은 업대로 작용할 것은 분명한데

질문 인간 각자에게 과거에 지은 업이 있으면 그 업이 각자에게 작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류 전체가, 또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이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업대로 앞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작용하는 것을 예견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견한 것을 부인만 한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분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그 법칙이 작용한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 또 과거에 인류가 지어 놓은 업에 의해서 앞으로 그 업의 법칙은 작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의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요.

답변 그것은 작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그래서 한 나라에 의인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도 예전에 사신을 보내서 이 나라에 의인이 있다면 공물을 바치라고 안 했고요, 의인이 없다면 공물을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도 예언을 한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예언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정감록도 예언을 한 거라고 하지만 그건 예언이 아니라, 모든 천체의 천기를 알고서 자기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절반 이상을 없애야지, 그걸 절반 이상을 그냥 통째로 두었다가는 모르는 사람이 뛰어서 오히려 이 사바세계에 전체 혼란이 오겠구나.' 해서 그냥…. 저절로 불에 탄 게 아닙니다, 그게. 저절로 불에 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반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거를 가만히 볼 때, 그거를 그렇게 태운 것은 무슨 이치로 그렇게 태웠느냐. 야! 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고, 그걸 써 놓은 사람이 자기 통한 대로, 자기가 그 물리가 터진 대로 써 놓은 거거든요. 아는 대로 써 놓은 거니까 그거를 반수 이상이나 지워 버렸단 말입니다. 지워 버렸는데 그것이 그대로 정감록에 정씨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뜻으로 볼 땐 정씨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너그럽고 통달하고 이런 사람이 난다 이런 거지. 아니 그래, 정감록이라고 했다고 정씨가 납니까?

또 예언을 그렇게 많이들 했는데, 예전에 이라크 문제 때문에 예언의 말이 아주 많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인제 앞으로 이게 크게 불이 번질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모두 살아남지 못한다." 예언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요, 나는 그냥 속으로 웃음이 저절로 이렇게 나면서 콧방귀 뀌었습니다. 왜? 아니,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한번 훌렁 뒤집어서 좀 이익한 대로 평화롭게 살 수는 없어? 꼭 생각을 그렇게 해 가지고선, 생각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써 놨느냐 이거죠.

이거 보세요. 이것이 만약 앞뒤 없는 대피리라면, 앞뒤 없는 불바퀴라면 자기 마음대로 돌릴 텐데, 그리고 또 일체 중생이 자기 아님이 없는데 자기가 죽으려고 그렇게 해요? 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부 자기 자식들이라면 자기 자식들 죽이려고 그렇게 예언을 해 놓겠습니까? 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아예 죄 살리는 걸로 해 놓겠어요. 예전에는 죽이려고만 무기를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으면 살리는 무기를 만들게 했으면 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있어요. 마음을 항상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면 내가 위해져요. 그리고 둘이 아니에요. 벌레 하나도 남이 지나가다가 쩍 밟으면요, 아파서 그냥 몸부림을 쳐요.

> **어느 누구든 자기 마음으로 알면 통신이 되는 법이지,**
> **남이 모른다고 해서 통신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통신처입니다.**

난 예전에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려고 그러다가 진이 나오는 걸 보고 그만 깜짝 놀라서, 그걸 못 자르고 밑의 가장자리 순 이렇게 신 거 그걸 따서 짓찧어서 콩하고 저 뭡니까? 열무 이파리하고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만, 그것도 모든 게, 그 진 나오는 것도 피요, 그 흔들리는 것도 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죽여도 자비고 살려도 자비다." 이랬습니다. 그건 왜냐? 만약에 나무를 자를 때는 그 목신은 내가 둘 아니게 첨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떼어 버리는 나무로다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살생이 되지 않죠. 그래서 소고기가 고기로 보이면 못 먹는다는 얘기죠. 그 고기 한 점이 소 모습을 벗겨 줄 수 있는 도인에게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려고 쫓아갈 것도 없고 먹지 않으려고 뱉어 버릴 것도 없다 이겁니다. 인연 따라서 그 소 한 마리 중에 한 점이 오는 것이 소에게는 그 허물을 벗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안 대사는 소를 소로 보지 않고 고기를 고기로 보지 않고, 술을 술로 보지 않고 개를 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다 똑같고 삶은 다 똑같고 살림살이는 다 똑같고 부모자식지간은 다 똑같고 이랬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은 생각을 해서 전 세계가 좀 더 평등하고 참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질 수 있다면, 이 공부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질 수 있다면 아마 머지않아 우리 남북통일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그렇게 해도 무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 죽이지 않는 거다" 이러는 게 아니고, "싸우지도 않는 거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묵스님이 말입니다, '저 절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급할 때 상추를 씻다가 상추를 그쪽으로 휭 던졌습니다. 그 상추가 그냥 비가 돼 가지고선, 그 상추에 묻은 물 한 방울이 전체의 비가 돼 가지곤 그 절 타는 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서 그 절의 불을 다 껐답니다.

우리가 그런 도력이 생기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자기 전생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의 자기 마음으로 현실을 다스려 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행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행을 안 한다면 어떻게 실험이 되고 체험이 되겠습니까? 우리 '불(佛)' 공부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이 불자들이 전부 실천하면서 바로 다스리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을 그대로 자유스럽게 산다'는 그런 뜻으로 배우는 거지 우리가 뭐, 떡이나 해 놓고 밥이나 해 놓고 빌고, 이렇게 노예가 되고 초자분하게 미신이나 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력이 모자라고 그렇거든 충전을 하러, 아무도 없어도 좋습니다, 여기 와서, 이 스님네들 계신 데 와서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싱긋이 한번 웃어도, 그 전력은 바로 거기에 충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모두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 충전은 해 갈 만합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아시고요, 비디오 법회를 하더라도 좀 나오셔서 같이 비디오 법회를 하시고 서로 토론하시고, 그리고 음식이라도 같이 앉아서 참 서로 웃으면서 먹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도 하고 또 우리가 충전도 할 겸, 바람도 쐴 겸, 내가 능력을 길러야 위로 부모의 은혜를 갚고, 묵은 빚을 갚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부디 그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절에서 하는 행사의 참다운 의미

질문 예로부터 절에 가지 않던 분들도 초하루, 보름은 절에 가서 보시도 하고 절을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날은 '법계에서 총 점검하는 날'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이 초하루, 보름이 돼야 갈 수 있고, 평일이면 가지 못하고 축원만 올리는 때도 있거든요. 일요일이라도 공무나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유로 못 갈 때는 '가지 못했다, 게을렀다'는 것에 걸려서, 다음 날 선원에 가서 보시를 하기도 하고 주인공 자리에 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도 못 갈 때가 있지만요. 절에서 하는 행사에는 꼭 가는 것이 좋은지, 참다운 의미를 되새겨서 올바른 공부로 정진코자 하오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절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주와 직결이 되고 수레바퀴처럼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그 근본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가설이 돼 있고요. 그러니 어느 누구든 자기 마음으로 알면 통신이 되는 법이지, 남이 모른다고 해서 통신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통신처입니다. 우주의 일체 만물만생이 다 내가 한생각 내는 것에 의해서 전부 통신이 되고, 한마음으로 직결이 돼서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과 더불어 한데 합친 한마음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바 없이 지켜보는데, 남이 지켜보는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에서 아는 그 자체가 그대로 더불어 한마음에 즉각즉각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거짓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그저 주인공 뿌리만이 알 수 있고, 뿌리만이 다스릴 수 있고, 뿌리만이 해결할 수 있고, 번뇌를 녹일 수가 있고, 영계성, 세균성 또는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을 다 녹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 현실을 상응하면서 모든 거를 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성을 가지고 거짓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 바로 이 마음 씀씀이와 행동 하나, 말 한마디까지도, 귀로 듣는 것도 조심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서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남의 일에 참견을 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마음이니 정성을 안 들이고 보시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부처님 아니라 더한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서 '내 몸도 여래의 집이요, 도량의 부처님 자리도 만 중생과 한자리 하는 소중한 곳이니, 이 집을 운영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테니까, 그저 초하루, 보름에 내가 축원을 올리면서 정성을 들여야겠다. 이게 바로 남의 집이 아니라 내 부처님의 집이지.' 하는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것이 더불어 한마음의 법당이 되는 것이고, 내 몸이 바로 극치적인 법당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기네 집도 법당인 것입니다. 모두가 법당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모두가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어찌 "이건 부처가 아니야. 이건 형상이야." 이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도 또한 나의 몸이나 똑같은 건데요.

그리고 우주를 싸고 있는 부처님의 마음이 거기 서리고 있는 이상 어찌 그것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마음이 엄숙해야 되고 항상, 내가 혼자 앉아 있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변소에 갔을 때도 엄숙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재빨리 가볍게 내뱉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좋아도 스무드하게, 아주 언짢아도 스무드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자비이며 지혜입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인연 외면하지 말고 가는 인연 잡아끌지 않으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나라는 고정된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극하게 실천을 하고 가세요. 고정된 마음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진실하게 가지시고, 활달하게 생각하고 뛰어넘으세요, 매사에 다 그렇게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불자 세상보기 |

사병 종교 강제, 언제까지 하려나



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

전령 · 골프병, 일종의 군내 사역병
고려 · 조선 관비 · 관노제도와 같아

국가의 합법적 인권유린의 현장
한국전쟁 당시 장군들 행태 기록
아녀자 시중 등 적폐 그대로 전해져

연 20만명 선교 간증 박 대장
종교 자유는 나치독일군도 보장
"군인권 강화, 또 다른 시대과제"

우리 부모들은 매년 20여 만 명의 아들들을 군에 보낸다. 그 아이들이 군복무 중 맞게 되는 임무는 뭉뚱그려서 국토방위이지만 실은 다양한 임무들이 주어진다.

최근 불거진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서 알려진 관사 공관병도 군의 최하위 계급자인 병사들이 맞게 되는 임무들 중 하나이다.

이 공관병의 임무 말고도 군에서는 온갖 잡다한 사역 성격을 띤 임무들이 병사들에게 주어진다. 병영 내 매점을 관리하는 PX병, 골프장이나 기타 체육시설, 혹은 최상급부대(계룡대)와 전국각지의 휴양소들에 설치된 수영장을 관리하는 병사, 하계휴가기간 군간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임시 운영되는 휴양지나 복지기관, 지역 등의 시설, 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병사도 있다. 그런가하면 사실상 편제로 운용되는 소대장 당번병이나 중대장 전령 등 병사들도 역시 넓게 보면 지휘자, 지휘관의 개인적 시중을 드는 사역병의 역할이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누구누구 '따까리' 라고 부르는 바로 그 것 말이다.

국방부 문헌들을 찾아봐도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왜 생긴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몇몇 장군들이 남긴 회고록을 통해 지휘관들이 부하나 아랫사람들로부터 시중을 받는 관습과 관례의 행태와 사례들을 엿볼 수 있다.

그나마 반성적 의미를 지닌 회고가 바로 백선엽 장군이 남긴 '6.25 징비록' 이다. '전쟁 중 이동하는 부대 대열에는 이불보따리와 세간을 지닌 젊은 처자가 지휘관들의 지프를 타고 함께 있었다' 는 회고가 그 것이다.

전쟁에 임하는 지휘관의 정신자세를 탓하고 반성하자는 의미이겠지만 이런 증언으로 보아 우리 군지휘관들이 누군가의 시중을 받는 관습은 마치 수백년간 이어졌던 관노와 관기제도처럼 이어져 왔음이 짐작된다.

그 거부 할 수 없었던 청산되지 못한 비참한 역사의 잔재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 군대의 공관병 제도다. 이토록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를 청산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어 자행해 온 사람들에게 일제치하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비극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자고나면 보도되는 초임여군간부들에 대해 저질러졌다는 고급지휘관들의 성추행 · 성폭행을 근절하자던지, 짐승이나 다름없이 부려지는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장들이 그들에게 가당키나 했을지 말이다.

이미 겪었고,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불법임을 알고서도 침묵해 왔거나 묵인해온 부모세대의 무지와 무책임을 자식들이 고스란히 전가되어 자괴감과 모멸감이 든다.

사찰과 성당에서 초코파이 한 개를 주면 교회는 두 개를 줘 병사들을 유인하고, 연간 20만 명을 전도하면 20년 내에 국민 3000만 명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박 대장의 간증도 실로 어처구니가 없음을 넘어 모골이 송연하기까지 하다.

공식적으로 주어진 합법적 권한으로 자신의 지배력이 미치는 부하들의 신앙까지 강제하고 정신세계까지 지배하겠다는 그의 무지와 폭압적 사고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이 정도면 이미 종교탄압 수준이다. 무자비한 테러와 살인으로 악명 높은 알카에다나 보코하람, 세상을 혼돈과 죽음의 비극으로 몰아넣은 IS 등의 만행이 모두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원인에서 기인한 것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금보다 인권의식이 훨씬 못했던 반세기도 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천만 생명을 앗아간 히틀러 나치 치하의 독일군에서도 군인 개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허용했었다는 사실을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 육군대장 박찬주와 부인은 알고나 있을까.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기자

불자 올림픽 선수 사찰결연 시작을

체육인불자회가 8월 5일 평창 월정사에서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템플스테이에서의 일이다. 이날 자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이 입재식 이후 진행될 예정이어서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문제는 입재식 후 30여 명에 달한 선수들 대부분이 이후 프로그램을 소화하지 않고, 가버린 것이었다. 휑하게 비어 버린 법당에서 2명의 동계 종목 선수들과 볼링 선수들이 남아 명상을 진행했다.

명상을 지도하는 스님도, 멀리 제주도와 전남 등지에서 올라온 선배 불자 체육인들도 당황한 눈치였다.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열린 선전기원법회이기에 바쁜 훈련 일정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부랴부랴 뒤따라 나와 선수들에게 템플스테이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 보았다. 돌아온 대답은 '팀 이동이어서 함께 왔다' 는 것이었다.

취재가 끝나고 나오는 길, 월정사에서 나오는 길에 체육인불자회 관계자는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했다. 선수들 대부분이 부모님이 불자거나 혹은 감독, 코치가 불자여서 불자가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불자로 분류가 되지만 비불자인 경우도 많다고 했다. 매일 고된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사찰을 쉽게 찾을 수 없기에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사찰로 찾기 어려운 이들이니, 불교계에서 얼마만큼 이들에게 찾아가는 전법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대화를 나눈 관계자는 기독교계에서는 신도들이 신자 선수 후원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바쁜 훈련 중에도 자연스럽게 교회 행사 등에 참가하게 되고,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 자신의 종교성을 과감하게 보이는 원동력이라 생각됐다.

불교계는 현재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부분이 올림픽을 위한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곳에서 뛰는 선수나, 선수가족을 위한 준비는 부족하다.

태릉선수촌에서 지도법사 스님이 수요일마다 법회를 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선수들은 인기, 비인기 종목을 벗어나 스포츠 분야에서 불법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포교사다.

체육인전법단에서 이들을 위해, 특히 비인기종목 불자선수들을 위해 꿈나무 장학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재정적인 문제로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종단과 전법단에 일임하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 재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불자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도 전법단 스님이나 종단 소임의 스님에게 일임하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담당하는 지도법사 스님은 사찰에서 체육인 불자유망주 1명씩만 맡아준다면 스포츠 포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9월 1일 국가대표 선수촌은 태릉시대를 마무리하고 진천시대를 연다. 이에 발맞춰 종단도 진천선수촌에 새로운 법당을 지을 예정이다. 체육인전법단은 진천 중심의 스님들을 위주로 지도법사단을 구성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불법의 보금자리가 마련되는 만큼, 사람을 향하는 부처님의 향기가 불자선수와 사찰의 결연 사업을 통해 새롭게 펼쳐지길 바란다.

社說

징용자 유해 봉환 불교계 관심 갖자

일제강점기 일본과 사할린 등으로 강제동원 돼 노역을 치르다 비극적으로 숨진 무연고 선조들의 유해가 수십여 년 만에 국내로 봉환됐다. 비록 유해는 33구뿐이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

유해 봉환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된 선조들의 넋을 기리는 데는 그동안 불교계의 역할이 컸다. 29개 불교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관음종 등은 일본 죠세이 탄광서 희생된 선조들을 위로하는 의식을 올렸으며, 천태종 무원 스님이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사할린에 강제이주 희생자 추모관 등을 기공했다.

불교계가 이처럼 이역만리 타국에서 외로움과 노역에 지쳐 쓰러져간 선조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타종교계서 볼 수 없는 불교만의 전통의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무원 스님은 '영혼불사' 라고 칭하며 불교계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하지만 유해 봉환은 재정적 문제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국평사에 있는 유해 중 33구만 먼저 봉환해온 것도 소요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음 봉환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유해 봉환을 정부가 맡을 시 일본과의 대외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일본 내 사찰에 보관 중인 유해가 많아 불교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은 불교계에 던져진 하나의 화두이기도 하다.

광복으로부터 어느덧 72년이 흘렀다. 연고조차 없는 선조들의 한을 풀기 위해 불교계가 지금이라도 나선다면 사회로부터 조금 더 신뢰받는 종교가 되리라.

조계종, 공명선거가 절실하다

오는 10월 12일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열린다. 선거가 2달여 남은 현재 종단 주요 스님들이 하마평부터 루머, 잡음들까지 벌써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종단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선제와 직선제라는 첨예함은 좀처럼 좁혀지진 않는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종법을 지키는 것이다. 당장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잘 치룰 준비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명선거위원단' 이 발족한다는 것은 환영할만 하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9일 결의한 공명선거위원단은 오는 8월 31일 공식적으로 발족한다.

위원단 구성은 18일까지 교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1인을 추천받아 이뤄진다. 발족식에서는 합동워크숍을 통해 선거관리에 따른 업무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선관위와 호법부는 공정한 선거를 당부하는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향한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현 집행부는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를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젊은 불자들이, 지성인 불자들이 점차 불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비위와 내홍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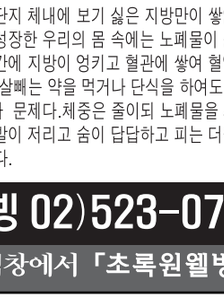
누구 탓을 할 것인가. 종단 사부대중 구성원 모두가 원인 제공자이다. 이번 선거는 폭로와 인신공격, 비위가 없는 투명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 속(俗)이 성(聖)을 걱정하는 일이 반복돼야겠는가. 공명선거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 15만원
「중」 110 × 80 × 160㎜ 20만원
「대」 140 × 95 × 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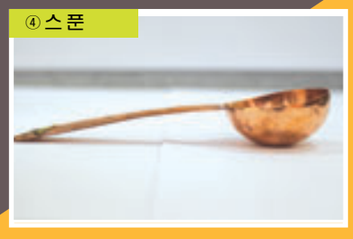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 × 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 × 120(h) × 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 × 140(h) × 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향나무향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단)



new (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문화재는 ‘민족魂’ 그래서 모으고 지켰죠”

정각 스님의 연구실은 각종 도록과 연구서적이 빼곡히 차 있다. 이곳에서 스님은 학문과 수행에 매진한다. 스님이 들고있는 책은 최근 동국대에서 발간한 〈원각사의 불교문헌〉이다. 이 책에는 스님이 그동안 모은 불교문헌들이 망라됐다.

테마人 정각 스님
(고양 원각사 주지 · 중앙승가대 교수)

문화재 수집 · 보존에 앞장

출가하면서부터 문화재 관심 가져
학인 시절 대구 봉산동 돌며 수집
불교 문헌 · 고지도 · 도자기 등 모아
“聖寶, 본 자리 있어야 의미 커져”
문화재위원 · 중승대 교수 활동 매진

불교 문헌 · 지도는 ‘민족혼’

동국대 불교학술원 1년 조사 끝에
소장 문헌 483종 612점 도록 망라
〈능엄경〉서 언해 필사 나와 ‘이슈’
고지도, 中 · 日 역사공작 막는 자료
최근에는 목판 태극기 수집 시작해

고양시 식사동(食寺洞)은 이름부터가 불교와 연결돼 있다. ‘밥(食)’과 ‘절(寺)’이 조합된 지명으로 예전엔 ‘박적골’로 불리기도 했다. 이는 고려 공양왕이 몸을 피해 이곳에 숨었고, 사찰의 승려들이 몰래 밥을 날라다 주면서 유래된 지명이다.

지금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들어오고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조용한 전원마을이었다. 이곳에는 식사동을 대표하는 사찰, 원각사가 있다.

원각사는 문화재나 불교 문헌과 관련된 지자(知者)들에게는 유명한 곳이다. 최근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단과 함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단 고문헌 도록 1, 원각사의 불교문헌〉을 출간하기도 했다.

도록에 수록된 문화재는 483종 612점으로 방대하다. 조사 기간만 1년이 걸릴 정도였다. 발간 당시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원각사 소장 불교문헌은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책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간기가 충실히 남아있는 선본(善本)들이 많다”며 “이번에 출간한 도록은 수록된 문헌들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불교 고문헌의 역사와 서지사를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방대한 불교 고문헌들은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모두 성보 수집 · 보존에 원력을 가진 한 스님에 의해 이뤄진 결과물이다. 바로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이다.

성보 문화재, 출가 때부터 관심

〈원각사 불교 문헌〉을 조사해 도록을 만들게 된 계기를 가장 먼저 물었다. 스님은 바로 “종립학교 동국대에서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즉답했다. 사실 스님의 고문헌 수집은 잘 알려져 있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도 도록 샘플을 가져와서 문헌 조사와 도록 제작을 제안했지만, 종립학교인 동국대가 더 낫다는 판단에 응했다는 것이다.

“20년을 모으다 보니 제법 양이 많더군요. 한번은 조사 ·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동국대가 조사를 요청했고, 또한 모든 유물을 아카이브에 공개한다고 해서 응했습니다. 문화재들을 사진 촬영하는 데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래도 의미 있는 연구사업이었습니다.”

도록에 수록된 문헌 양만 600점이 넘는다. 이는 모두 스님의 강사료, 책 인세 등을 아껴 모은 것이다.

정각 스님은 출가 초기부터 성보 문화재와 사적 등에 관심이 많았다. 관심은 이내 원력과 학문으로 다가오게 됐다.

“20년 전 강원에 있을 당시 방학이 되면 대구 봉산동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봉산동은 대구 지역서 고서와 골동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모여있는 곳이죠. 골목을 다니다가 가게 한켠에 불교 경전이 널부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성보는 사찰에 있을 때 본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성보들이 원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사비를 모아 하나씩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가 후 20여년 동안 동국대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 글을 써 받은 원고료, 저서 인세 등을 모아 불교 문헌 등을 구입했다. 그렇다고 욕심은 내지 않았다. 여건이 안돼 구입할 수 없으면 없는 대로 뒀다.

“좋은 문헌, 자료가 있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 구입이 어렵죠. 좋은 자료는 언제나 그에 걸맞는 사람을 찾아가더군요. 그래도 굳이 수집을 못해 아쉬운 문헌이 있다면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 정덕본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인데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더군요.”

그래도 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 문헌은 서지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다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묘법연화경(언해) 권 1, 4(보물 제1010-2호)〉이다. 이는 세조가 설치한 간경도감에서 만든 경전으로, 초기 한글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간경도감에서 만든 책들 중 유일하게 변상도까지 남아있는 책이기도 하다.

지난 조사과정에서는 세간을 놀라게 한 필사가 발견되기도 했다. 2015년 12월 원각사 소장 〈능엄경〉을 조사하던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1461년 이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필사 글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원각사 〈능엄경〉의 한글 글씨는 가느다란 붓을 이용해 초서체로 썼으며, 반치음과 옛이응 등 15세기 한글의 특징이 남아있었다.

“1401년 태조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에게 〈능엄경〉을 간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왕위를 물려주는 조건일 수 있겠죠. 이방원은 아버지의 명령이자 부탁을 받아들여 당시 명필로 이름을 날린 성총 스님에게 글을 쓰게 하고 이를 판각해 〈능엄경〉을 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엄경〉 여백에 한글 언해본에 해당되는 여러 필사 기록이 남아있었죠.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한글 글씨는 국보 제292호 ‘평창 상원사 중창권선문(1464)’입니다. 현재 여러 국어학자들이 해당 글씨를 연구 중인데 〈능엄경〉언해가 간행된 1461년보다 오래된 것이 밝혀진다면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 민족혼 일깨우는 중요한 자료

정각 스님은 불교 문헌만 모으지 않았다. 오히려 세간에는 고지도를 수집하는 스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08년에는 독도가 명시된 프랑스 지도를 찾아 대중에게 공개했다. 당시 공개한 지도는 1732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B.B.D'Anville)이 제작한 중국전도로, 독도가 당시 우산국(독도의 옛 지명)의 중국식 발음 “Tchian-chan-tao’으로 울릉도 ‘Fan-ling-tao’와 함께 동해안 바로 옆에 표시돼 있다.

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는 약 200여 점. 우리나라가 최초로 소개됐던 지도, 동해가 최초로 표기된 지도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들을 모았다. 그 중에는 최초로 ‘꼬레아’라는 국명이 표기된 것으로 알려진 1594년 프란치우스가 제작한 세계지도가 있다. 국내엔 경희대 박물관과 스님만 소장하고 있는 희귀한 자료다. 이 같은 지도를 모아서 지난해에는 봉은사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스님과 지도라니 그다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스님의 설명을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밖에 없다.

정각 스님의 설명은 이렇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백제 출신 관륵 스님이 일본에 지도 제작법을 전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유추했을 때 삼국시대부터 지도 제작에 스님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고지도 수집의 조금 더 직접적인 계기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컸다.

“10여 년 전에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해 표기 등이 문제됐죠. 이를 전후로 고지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찰에서 살고 있는 수행자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역사 자료를 발굴해서 정리하는 것이 나라의 정체성 내지 당시 중국과 일본의 문화적 침탈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각 스님은 최근에는 태극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민족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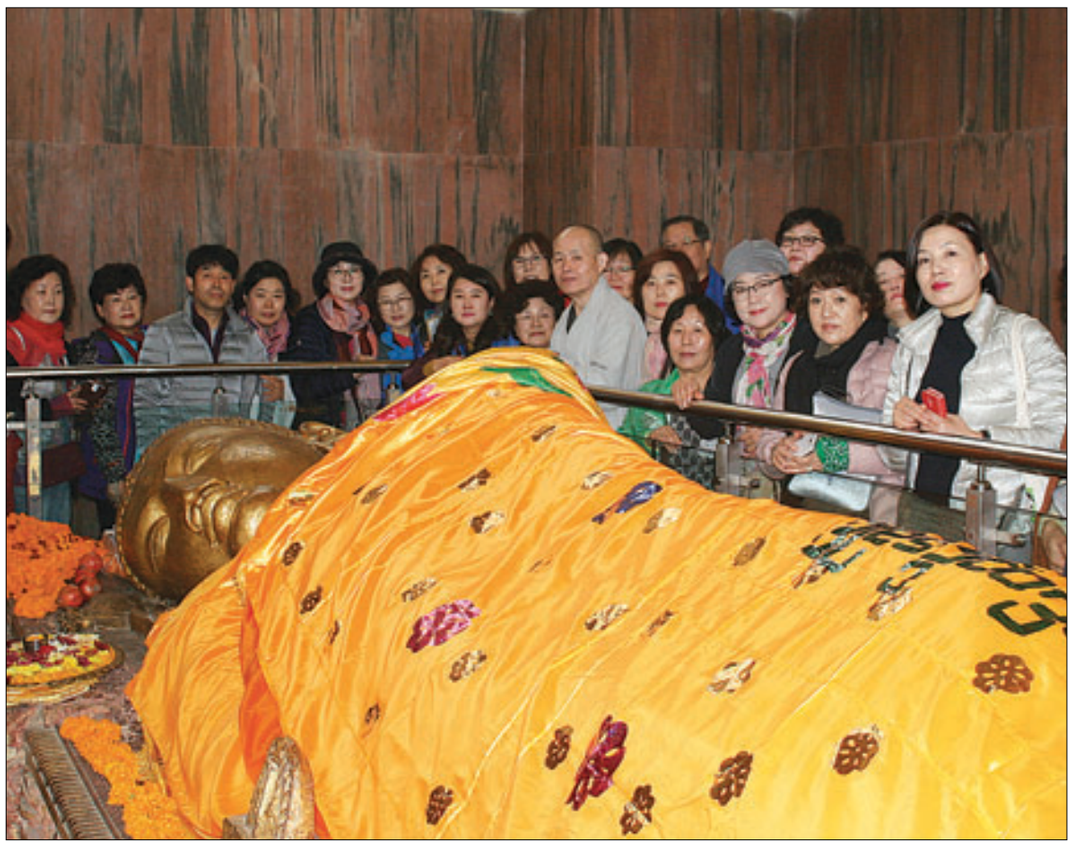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5
문화
불자 가수 오영민,
불심가요 2집 ‘심향’ 발매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정각 스님은 일산신도시 포교에 매진했다. 사진은 원각사 신도들과 찾은 쿠시나가르 열반당.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발간한 〈원각사의 불교문헌〉.


정각 스님이 봉은사에서 대중들에게 법문하고 있다.

신부되려다 출가… "카스탈리엔 찾고 있죠"

〈헤르만 헤세가 제시한 이상향〉

정각 스님은?

조계종림 송광사에서 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7년 송광사에서 보성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1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4년 범어사에서 무비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전강했다. 법주사 포교국장,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 간사,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연구위원을 역임했다.현재 중앙승가대 교수, 고양 원각사 주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매장문화재분과), 일산서부경찰서 경승위원장로 활동하고 있다.



'정각 스님' B1면에서 계속

나는 신부가 되려고 했다

가톨릭 집안 출신으로 신부 지망

철학 공부하며 '삶의 본질' 의문

"나만의 카스탈리엔을 찾고 싶었다"

송광사서 출가…수행 · 학문 정진

오직 일념으로 정진할 뿐

'나의 길을 잘 가고 있나' 매일 경책

학문 성과, 문화재 도록 정리 과제

"대중 함께 할 박물관 건립 꿈꿔"

"일제강점기 때 제작된 목판 태극기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태극기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 태극기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민족혼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담긴 역사적 유산들이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 이상향을 찾아서…

불교 문헌을 열정적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애정과 향학열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출가하기 전 정각 스님은 신부 지망생이었다.

스님은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했다. '소(小)신학교'로 불리는 성신고등학교를 거쳐 가톨릭대에 입학했다. 당시 성신고는 신부가 되기 위한 사람들만 입학하는 곳이었다.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을 진학하고 공부를 하면서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학교 1, 2학년에 철학과 라틴어 등을 배우는 데, 이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삶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 문제를 천착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스님은 부친에게 임범재 교수가 있는 홍익대 대학원 미학과에 진학하겠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스님은 자취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민중미술을 선도한 장경호, 소설 평론가 장석주 등과 친하게 지냈다. 스님은 이내 친구들은 있는데 자신에겐 없는 것을 발견한다.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 속 이상향이었다. 정확한 목표가 없던 것이다.

그러던 중 스님은 헤르만 헤세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유리알 유희〉를 읽게 된다. 〈유리알 유희〉는 '카스탈리엔(Kastalien)'이라는 미래의 이상향에서 2400년경에 쓰여졌다는 설정을 해놓고, 이보다 약 200년 전에 존재하였던 카스탈리엔의 유희의 명인(名人) 크네히트를 회상하며 서술하는 형식을 취한 정신문화사적인 미래소설이다. '카스탈리엔'은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교육주와 같은 이상향이다. "카스탈리엔이라는 이상향이 나아갈 곳"이라는 결심이 들었다는 것이다.

"'카스탈리엔'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고민했죠. 그러다 막연히 동양 정신의 정수를 가진 사찰, 불교에서 '카스탈리엔'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사찰이라곤 중고등학교 때에 1번 다녀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택시를 타고 기사 아저씨께 가까운 절에 데려달라고 했죠."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이 안암동 개운사였다. 택시에서 내리니 스님 두 분이 걷고 있어 곧바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두 스님은 송광사로 입산 출가하라고 했다. 그리고 곧장 출가를 했다. 출가의 인연을 맺게 한 두 스님은 이제는 사형이 된 정인 스님과 덕수 스님이다.

송광사에서 출가 생활을 시작한 스님은 오래된 인연을 찾은 듯했다. 불교 수행과 학문에 매진했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4년엔 범어사에서 무비 스님을 법사로 전강했다. 특히 문화재 부문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인정받아 최근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매장분과)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오로지 정진하고 정진하고

정각 스님은 1995년 일산 신도시로 왔다. 탄현지역서 법당을 열어 신도시 포교에 매진했다. 식사동에 본원을 건립한 것은 6년 전이다. 탄현 법당은 현재 포교당으로 활용 중이다.

20년을 넘게 신도시 포교 일선에서 활동 중인 스님은 스스로를 '부족한 안내자'라고 말한다.

"스스로가 불교 수행자로서 과연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이켜 보면 아직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길을 알아야만 대중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더 정진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포교를 위한 계획들은 하나하나 세워놓고 있었다. "모았던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장 · 전시할 박물관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또한 불교학 체계 안에서 정리가 잘 안된 이론들을 꾸준히 정리할 계획도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 스님에게 "이상향 '카스탈리엔'을 불교에서 찾았습니까"라고 물었다. 스님은 "물 속의 물고기는 자신이 물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답했다. 공간에 들어오면 모르고 산다는 것이다. 불교라는 이상향을 만났다는 말이기도 하고, 끝없이 찾아가야 할 목표라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스님은 '정진 중'이다. 정진 또 정진.

글= 신성민 기자 · 사진= 노덕현 기자

오대산 월정사 부설 불교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呑虛講塾) 2017년도 2학기 수강생 모집 공고

2017년도 2학기(9월 4일 개강) 탄허강숙에서는 선(禪)과 불교사, 인문학의 고전인『벽암록』·『노자 도덕경』·『삼국유사』·『대혜 서장』을 강의합니다. 각 텍스트의 사상과 내용은 물론, 시대적 배경, 그리고 한문의 구조와 용례, 훈고 등에 대해서도 강의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집니다.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공자는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였습니다. '공부' '학문' '탐구'는 인간의 탐구이고 지성(知性)과의 만남입니다. 배움의 기쁨을 함께 나눌 학인들을 기다립니다.

1 2017년도 2학기 강의일정 및 장소

- 일시 : **9월 4일(월) ~ 12월 28일(목) 저녁 7시 ~ 9시**
  (10월 첫 주는 연휴로 휴강)
- 방식 : 한문 원전 중심 강독 및 내용 해설 (초심자도 수강 가능)
- 장소 :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5호선 광화문역 5분 거리)

2 2017년 2학기 개설 강좌

	월	화	수	목
강좌 및 원전명	벽암록 1학기에 이어 2학기 20칙부터 강의	노자 도덕경 2학기 신규개설 강좌	삼국유사 2학기 신규개설 강좌	서장(書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연속 강의
강 사	석지현 벽암록, 종용록, 선시감상사전 완역자	성태용 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노자 도덕경, 장자, 주역 강의	정병삼 교수 숙명여대 교수. 한국사, 불교사, 화엄 전공	이상하 교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3 지원서 제출 및 등록

- 접수 기간 : 2017년 7월 18일(화) ~ 8월 30일(수)
- 접수 방법 : 민족사 홈페이지(www.minjoksa.org)에서 지원서 다운받은 후 이메일(minjoksabook@naver.com)로 제출
- 수 강 료 : 과목당 1학기(4개월), 20만원(일시불).
  ※ 대학원생은 50% 할인
  ※ 전과목 수강할 경우 50만원(4과목 4개월 일시불)
- 수강 인원 : 과목당 25~30명(연령, 자격 제한 없음).
  ※ 선착순 마감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502-04-145908 (예금주 : 윤재승)
  수강료 입금시 수강자의 이름(수강자와 동일한 이름) 표시 요망. 문자 요망. 교재비는 별도(3만원 이하). 교재는 당일 배포.

4 안내 및 문의

- 자세한 사항은 TEL 02-732-2403~4,
  H·P 010-5226-2149

5 강사 프로필

- 석지현(벽암록 강의) : 동국대 졸업. 인도 유학. 선어록《벽암록》·《종용록》《禪詩감상사전》,《우파니샤드》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 성태용 교수(노자도덕경) : 서울대 철학과 졸업. 건국대 철학과 교수, 정년퇴임(2017년). 건국대 철학과 명예 교수. EBS에서 '주역과 21세기'라는 제목으로 48회 주역 강의하며 인문학 대중화에 공헌. 노자(도덕경)와 장자(莊子) 강의. 한국철학회 회장. 재가불교단체 '우리는 선우' 공동 대표 역임.
- 정병삼 교수(삼국유사 강의) : 서울대 사학과 졸업. 간송미술관 수석 연구원. 현재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한국사, 불교사 전공.
  ※ 주요 관심분야 : 화엄학, 불교문화. '불교미술로 보는 삼국유사', '삼국유사와 신라불교' 등을 주제로 강연. ※ 저서 :《일연一然과 삼국유사》,《의상 화엄사상연구》,《찬란한 우리 문화의 꽃 진경문화》,《중국화엄사상사》(공역) 등 다수.
- 이상하 교수(서장 강의) : 고려대학교 박사. 한국고전번역원(전 민추) 교수.《십지경론》·《십송률》·《한암 · 탄허 선사 서간문》·《경허집》·《월사집》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마음 '흔들', 도반과 108배 '든든'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⑯ 함께하는 수행의 즐거움



그림 · 박구원

이효리와 아이유, 도반의 중요성 보여줘

흔들릴 때 의지할 수 있는 정신세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종편의 한 방송에서 방영하고 있는 '효리네 민박' 을 가끔 보고 있다. 가수 이효리는 이제 서른아홉이라는데, 꾸밈없이 솔직한데다 거침없이 툭, 던지는 말속에 그녀만의 철학이 뚜렷해서 놀랄 때가 많다. 제주도에 있는 이효리의 집을 개방해서 민박을 받고 그들과 지내는 이야기를 그려내는 그 프로는 이효리 부부의 담백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담아내고 있어 인기가 꽤 높다고 한다.

지난 주 방송에서는 그녀의 소속사 직원이 서울에서 내려와 다른 예능프로그램의 출연 여부를 과제로 던지고 돌아갔다. 그리곤 출연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이효리가 조용히 15분 남짓 물구나무서기를 하면서 요가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 다음엔 남편 이상순과 함께 차를 마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성껏 우려낸 차를 마시면서 남편과 앞일을 상의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민박집에 직원으로 와 있는 가수 아이유에게 그녀는 말했다.

"나는 내가 흔들릴 때 의지하는 것이 세 가지 있어. 하나는 요가, 또 하나는 차, 그리고 하나는 이상순."

그러자 나이에 비해 늘 조용하고 진지한 아이유가 대답했다.

"저는 흔들릴 때마다 일(노래)에 집중했거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효리가 즉각"일 가지고는 안 돼!"하고 대응했다.

"그렇더라고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걱정도 사라져 좋은데, 끝나고 나면 다시 쓸쓸하고 불안해요."

스물다섯의 나이에 이미 탑가수라는 무게를 지고 있는 아이유는 "잘 되는 순간을 즐기기보다는 다음엔 잘 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늘 행복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어쩌면 그날 이효리는 "네가 흔들릴 때나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수행을 시작해보라"고 조언했을 것만 같다.

자신이 흔들릴 때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자신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세계 하나쯤은 가지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고요히 비추어보고 안정을 찾는 것, 그것이 이효리에게는 요가였을 것이다. 108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마음이 혼란으로 출렁일 때 조용한 곳에 좌복을 깔고 천천히 절을 하면 거칠던 호흡이 어느새 고요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진다. 거칠게 올라오던 마음의 동요가 가라앉으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 달 한 번 도반과 함께 하는 1080배

마음이 흔들릴 때 홀로 하는 수행도 좋지만 가끔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수행도 좋다. 내 경우 한 달에 한 번 1박2일 일정으로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고 있는데, 도반 한 분 한 분들께 배우는 지혜가 정말 많다. 전국의 수많은 절들을 다니면서 각 절의 스님들께 감동적인 법문도 많이 듣는다. 저녁노을이 황홀했던 해남 미황사, 별빛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해인사 원당암, 청화큰스님의 향훈이 서려있어 가슴 뭉클했던 곡성 성륜사, 선원장 스님의 환한 미소가 담긴 맑은 차를 대접받았던 은해사 백흥암 등지를 다니면서 10년을 넘게 매달 진행되었던 정진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억도 많다. 나는 늘 이러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을 108배를 한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문경에 있는 한산사에서 정진했다. 전국이 폭염으로 끓고 있었지만 산 속 깊숙이에 있는 한산사는 저녁에 되자 서늘한 느낌이 들 정도로 기온이 내려갔다. 저녁예불 후 한산사 선원장이신 월암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절을 하는데 기운이 저절로 솟았다. 왜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가를 사자후와도 같은 깊은 법문을 통해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오늘은 늘 정진을 함께 하고 있는 나의 도반 두 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오랜 동안 함께 해온 스무 명 정도의 모든 도반들이 모두 나의 선지식이지만 지난달 7월 정진회에서 가장 연장자인 보명화 보살님과 최연소자인 동심거사님을 소개한다.

먼저 올해 일흔 아홉이신 사경가(寫經家) 보명화 보살님. 매달 철야정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 분이다. 저녁 9시에 시작해서 새벽 3시 반 아침예불 시작 전까지 밤새 절을 하신다. 절을 하며 아미타불을 부르는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고르고 힘 있어 보인다. 무릎이 불편해서 완전히 굽힐 수 없는데도 천천히 바른 자세에 가장 가깝게 절을 하신다. 어쩌다 한 시간 정도 좀 쉬고 싶어도 쉼 없이 한결같은 자세로 절을 하고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곤 경책을 받곤 한다. 언젠가 "무릎이 불편하신데 왜 절을 하세요?"하고 여쭈었더니, "잠을 안 자려고요."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셨다. 한 달에 한번쯤은 밤새 온전히 깨어있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좌선을 하고 싶어도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서 절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 저절로 공부가 된다. 오후 불식을 하고 주로 낮엔 사경을 하는데, 전시회에서 그분이 쓴 글씨를 보고 있으면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필체가 오랜 수행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절은 결혼하고 새댁 때부터 했다. 젊은 시절 10여 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예불에 참석했다고 하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오셨는지 짐작된다. 그때 108배는 물론 3천배를 많이 했다고 한다. 지금도 새벽 세 시면 일어나서 진하게 내린 거피 한 잔을 마시고 가장 먼저 도반들과 함께 하는 사경방에 들어온다. '보리방편문' 을 컴퓨터로 사경하고 매번 잠언처럼 간결하고 아름다운 아침 인사를 남긴다. 우리는 그 분을 금강(우리 모임의 이름)의 그레이스 켈리라고 부른다. 그레이스 켈리는 알다시피 모나코 왕비를 지낸 미국 출신 영화배우다. 우아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레이스 켈리보다 더 기품있고 청초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계신 나의 도반 보명화보살님. 오래도록 한 달에 한 번 있는 철야정진에서 108배를 함께 하며 108배 수행이 얼마나 사람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해주는지 증명해 주시리라 믿는다.

주변 인연, 또 다른 나침반
영업하며 사람 만나 수행
하심 · 감사 습관 형성 계기

다음은 우리 수행모임에서 이효리 만큼이나 매사 쿨하고 내공이 단단한 동심거사 이야기다. 어떤 것에도 웬만해서는 동요함이 없는 사십대 초반의 그는 내가 108배 수행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하자 가장 반가움을 드러낸 도반이다. 학부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그는 논문 100편보다 절수행 책 한 권이 낫다고 본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많은 책이나 불교 관련 논문들을 통해 오히려 본질을 놓치고 번잡스러운 분별심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때가 많다면서 수행의 깊이에 관련 없이 각자가 체험하는 진실한 경험이 묻어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이다.

그가 108배를 시작한 것은 삼십대 초반,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이 수녀원으로 떠나는 힘든 일이 닥쳤을 때였다. 내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최고의 상태에 이른 때이기도 했다. 당시 우연히 접한 금강경을 읽고 마음이 크게 열리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내 마음 속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가장 큰 문제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금강경의 '여여' 라는 두 글자에 마음이 동화되어 매일 108배를 하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 3천배를 하기도 했다. 그것은 스스로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어 주었다. 처음 천배를 넘기고 3천배를 넘겼을 때의 환희로움은 지금도 크게 남아있을 만큼 자신에게 닥쳤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매일 참회하고 돌아보는 108배가 습관이 되다보니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졌다. 삼보일배로 설악산 봉정암을 10번 이상 다녀왔다. 한 겨울 산속에서 높이 쌓인 눈 위에서 홀로 절을 하면서 이름 모를 산새들과 교감하기도 했고, 눈보라의 어두움 속에서 죽음의 경계를 맛보기도 했다.

절을 한 지 십 수 년이 흐른 지금 그는 보험세일즈를 업으로 하는 회사원이다. 이십대 때 도전했다가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얽매어 스스로 쌓은 벽을 넘지 못했던 보험세일즈에 다시 도전해 지금까지 더없이 만족하게 일하고 있다.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수행 방편이 되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생명들을 부처님처럼 대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하는 염원으로 하루를 시작해 사람들을 만나면 "행복하세요"하고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고객들을 대하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영업이 잘된다는 것을 놀랍도록 경험한다. 그는 지금 꽤 높은 수입을 올리는 직장인이지만, 서울 근교에 방 한 칸을 얻어 살며 된장에 몇 가지 야채를 찍어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독신인 그에게 행복의 정의를 물어보았다.

"오늘 이 순간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며 행복임을 깨달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매일 참회하는 마음으로 108배를 하면서 매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여여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함께 정진하며 그를 볼 때마다 매일 하는 108배가 사람을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실감한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물이 가지는 일곱 가지 덕을 이렇게 표현했다.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력,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굳건한 바위도 뚫는 끈기와 인내, 장엄한 폭포처럼 아래로 몸을 던지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려는 큰 뜻." 인간도 수행을 통해 저 일곱 가지를 찾아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토록 많은 인생사를 위한 법문이 담긴 팔만대장경을 한 마디로 줄이면 '겸손' 이라고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절을 하면 겸손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 경험자들이 하는 말이다. 폭염이 초가을까지 간다는 예보가 있다. 혹시 아직 여름휴가를 다녀오지 않았다면, 계곡물이 흐르는 산사에 머물며 겸손을 익히는 108배에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떠실지.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8.9~2017.8.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행복은 소유를 분자로, 욕망을 분모로 한다

당신이 행복입니다

월호 지음 | 불광 펴냄 | 1만 5천원



행복 포교사 월호 스님이 신간을 펴냈다. 책 제목 역시 〈당신이 행복입니다〉이다. 책은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행복학으로서의 불교를 이야기한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불법을 설하셨다. '행불!', 즉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해지는 '행복한 불교'이다. 월호 스님〈사진〉은 대중에게 "행불 하세요" 라고 인사한다. 동국대 선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행불 하세요" 하고 다녔다고 한다. 사실상 이 인사법은 불지견(佛知見=부처님 무상(無上) 지혜)을 열어주려는 노력에서다. 불지견을 가지면 본래 부처기 때문이다. "성불 하세요"는 아직 중생이란 말이니 중생지견의 인사법이다. 이것은 소승불교의 인사법이지 대승불교의 인사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서장〉에서는 중생지견을 갖는 한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중생이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부처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중생지견을 가지면 평생 중생이고, 불지견을 갖고 있어야 신도 될 수 있고 신의 스승인 부처도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책은 월호 스님이 행불선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한 '행복한 불교' 내용을 정리 보완한 책으로, 행복 창조 법문 10장과 4개의 특강으로 구성됐다. 불자와 마주앉아 들려주는 스님 특유의 재치와 웃음 넘치는 명쾌한 법문 내용을 생생하게 옮겨 놓아, 책읽는 내내 그 자리에 동참한 듯 친근감이 들게 한다. 월호 스님은 대중들이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하는 전법도량 행불선원을 운영중이며, 불교TV와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찰력 있는 명강의로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월호 스님 서원이 담긴 '행복한 불교'

이 책은 주로 〈법구경〉 게송을 중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 한다. 월호 스님은 이 책서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전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보시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로 법보시가 그렇다는 것이다.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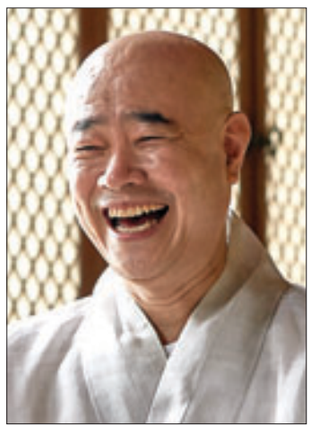
"갈색 가사를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 중생들에게 사구게송 하나 설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그만큼 게송 공덕이 크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부처님 당시 숲속에 사는 에꾸다나 비구의 이야기처럼, 게송을 단 하나라도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자기 마음으로 실행하면 신도 감동한다는 것을 알고, 게송 공덕을 쌓을 것을 권한다. 또한 게송과 친해지는 한 방법으로, 게송과 어울리는 음악, 예를 들어 엘가의 '사랑의 인사'나 영화 '러브 스토리'의 주제곡, 캔사스의 '더스트 인 더 윈드' 등의 음악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며 게송을 한 번 더 읊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좋은 음악과 어우러져 게송을 낭송하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생기는 법이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체화하라고 조언한다.

월호 스님은 '게송과 음악 친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연구를 거듭하고 여러 시도를 한다. 부처님 가르침 핵심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노래와 율동으로 만든 것도 그 한 예이다. 팔정도의 노래와 율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 책에 나오는 '행불의 노래'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불의 노래'는 월호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간결히 응축해 지은 것으로, 지난 수년간 스님이 설한 '행복한 불교'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모두 들어 있다. '행불의 노래'야말로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길잡이가 돼 주려는 월호 스님의 서원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게송과 관련해 부처님 당시 일화들이 풍부하게 나온다. 빤디따 사미의 깨달음, 법을 얻기 위해 홀로 열심히 정진한 띳사 비구, 게송을 독송해 수명이 늘어난 소년 디가유, 행복하다고 외치면서 다닌 마하깝뻰나 장로 등 게송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 게송을 보다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루할 틈 없이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대면 관찰하면 욕심 줄고 행복 늘어

무아법에 분모 '0' 되면 행복 '무한'

월호 스님의 10가지
'행복창조 비결'

1.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2. 내가 인(因)이요, 남이 연(緣)이다.
3. 구걸하지 말고 창조하자.
4.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자.
5.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다.
6. 걸림돌이 디딤돌!
   스트레스가 꽃피운다.
7. 모든 것은 한때다.
   걱정할 시간에 관찰하자.
8. 리셋! 크고 밝고 둥글게.
9.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스스로를 비교하자.
10. 수행은 연습이요, 생활이 실전이다.

인생 가치 있게 사는 법, '관찰과 보시'

행복은 소유를 분자로 하고, 욕망을 분모로 한다. 소유를 늘리려면 복을 닦아야 하고, 복 닦기의 첫째가 보시라고 말한다.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쁨을 안겨 주기도 한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자동차, 더 넓고 비싼 집은 일시적 기쁨을 안겨 줄 뿐, 궁극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욕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 욕망을 줄이려면 도를 닦아야 하고, 도 닦기의 첫째가 대면 관찰이라고 한다. 대면 관찰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욕심과 분노가 줄어들고 희열과 행복이 늘어난다. 결국 무아법에 통달해 분모가 '0'이 되면 행복은 '무한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불교'의 구체적인 덕목이 바로 지금 여기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라는 것이다. 그러면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불교에는 수많은 수행법이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관찰과 보시'야말로 최상의 수행법으로써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비결임을 강조한다.

스님은 묻는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소소한 행복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동안 스님의 체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행복창조 비결 10가지'를 권한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도 닦기와 복 닦기' '자애경 법문' '게송으로 본 붓다의 전생담' '수계식 의식문' 등 4개의 특강이 실려 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평안히 죽음을 맞으려면 복 닦기와 도 닦기를 해야 한다는 것,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주신 무기인 자애경 법문, 디빵까라 부처님께 수기를 받은 청년 수메다 이야기,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불교에 입문하는 수계식 등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길로 안내해 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월호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리산 쌍계사로 입산 출가했다. 쌍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쌍계사, 봉암사, 해인사 등 제방선원서 정진했다. 쌍계사 승가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쌍계총림 방장 고산 큰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았다. 현재 서울과 이천의 행불선원 선원장으로서 전법에 진력중이며, BBS불교방송 라디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를 진행한다. 아울러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실천행에 전념중이다.

파워블로그속 6천여개 글, '진짜 사주학' 책에 모았다

고서를 버려라

정재권 지음 | 바람의 독수리 펴냄 | 3만 4천원



내 운명은 미리 정해진 것일까? 우리는 자신의 사주와 운명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놀이공원 등서 한번쯤 자신의 사주풀이를 경험에 본 사람들이 쏠쏠치 않게 많은 이유다. 하지만 사주를 풀이하는 방식은 사주풀이를 하는 역술가마다 천차만별이다.

시대와 고서를 뛰어 넘어서 사주학을 현대적으로 풀이한 책이 출간돼 화제다. 여기서 현대사주학은 새로운 사주학이라는 말이다. 주인공은 바람의 독수리, 저자 정재권이다. 그와 같은 관점서 사주를 풀이한 이들은 흔치 않다. 마스터가 전하는 통찰의 사주학, 인생의 길흉화복을 해석하고 사주명리학을 재조명한 이 책은 바독의 블로그 〈사주 운명 그리고 禪으로의 초대〉에 있는 6천여개의 글들을 편집해 펴냈다. 책은 그 정수만을 모은 것으로 434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저자의 바독 블로그는 하루 방문 1만명, 지금까지 조회 수만 1600만회를 넘은 파워 블로그중 하나다.

저자 정재권은 히말라야와 인도, 오쇼 센터 등서 다양한 수행과 명상을 하던 중 자연스런 존재의 흐름을 따라 스리랑카로 건너 갔고, 1995년 12월 스리랑카 산중 사원서 4개의 샘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좇았다. 2010년부터는 바람의 독수리란 필명으로 일상서 활동하며 매주 사주강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명상캠프를 열고 4개의 샘 정화, 지식 호흡, 걸음걸이 명상 등 다양한 수행법까지 함께 전파하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사주학은 고서들을 그대로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제대로 바로잡을 부분들이 많은 것은 물론, 쌍둥이 사주 해석 등 그동안 사주학으로는 안풀리던 부분들을 새로 개척 중이다. 그것은 내가 사주 보는 사람이기 전에 깨달음을 경험한 마스터로서 통찰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주는 운명을 보는 학문인 만큼 그릇된 판단으로 한 인간의 운명을 엇나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 책과 내 블로그의 수천 개 글들을 모든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주의 대중화와 제대로 된 사주학을 알고 공부해 나갈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고 책 발간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저자 정재권은 사주라는 학문을 접하면서 수년간 사주와 씨름하듯 연구하고 공부했다. 시중에 출간된 관련 도서는 모조리 섭렵했을 정도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다. 사주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고. 예전과 지금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여자는 남편만 보고 살아야 해서, 관(官)이 하나만 있는 즉 일부종사하는 것을 좋은 사주로 봤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신강한 사주를 아주 좋게 봤지만, 현대 사주는 신강해 비견 겁재가 많으면 고집이 세고 독불장군이 돼서 약점으로 작용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좀 신약한 사주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저자는 책에서 설명한다.

사주명리학 현대에 맞게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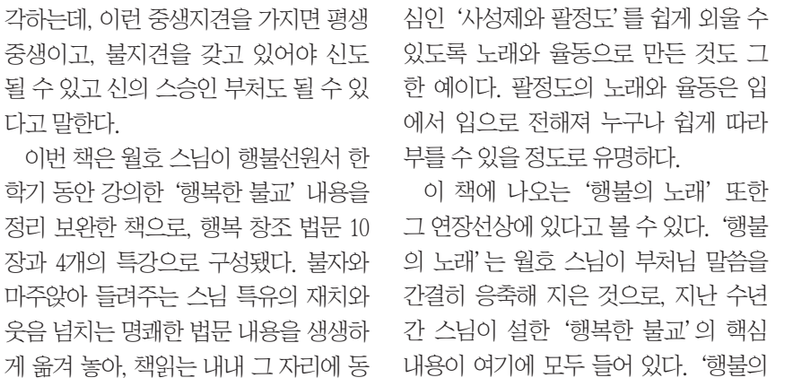
명상 캠프, 걸음 명상 등도 전파

저자 정재권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풀어쓴 이야기들을 책 속에 담았다. 그리고 그가 수만 명의 내담자와 상담하면서 느낀 점들도 책에 수록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사주와 삶, 운명의 포지션인 '꼴과 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도 분명 행복하다는 것이다.

한편 저자의 블로그는 가수 장윤정과 아이유 등 많은 유명인들의 사주풀이 '성지순례' 명소로 통한다. 또한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옛 유명인들 사주 풀이로 역사 인물들을 재현하는 코너도 인기를 얻고 있다. 〈저자의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imi4〉

김주일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봉 옥천사 1,000일 행
지장기도 안내

천년도량 옥천사에서는 1,000일 지장기도
참회대법회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장 소 : 단양 옥천사(구,천장사) 대웅보전
■ 동 참 비 : 100일 기준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532-6151-2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천장사)



천장사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5분거리)

주지 오명 합장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단양 옥천사(구,천장사)
H·P 010-5960-2085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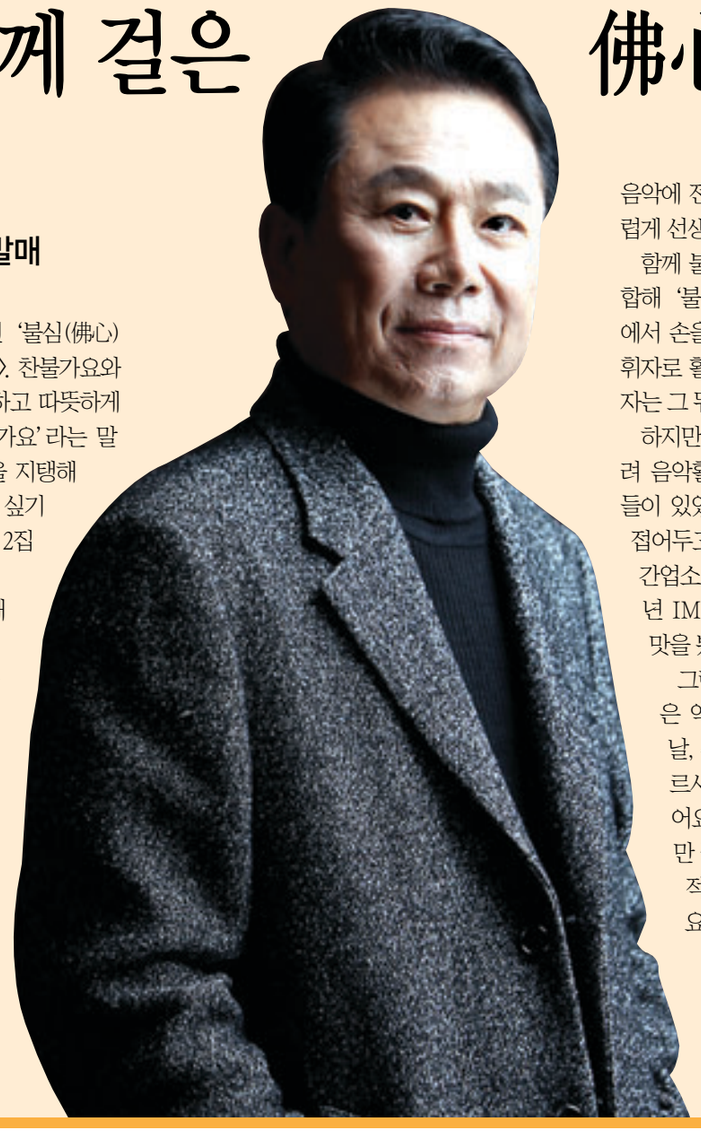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44년 함께 걸은 佛心의 길, 스승 원세휘 유작을 담다



불자 가수 오영민, 불심가요 2집 '심향' 발매

흔히 말하는 '찬불가요'가 아닌 '불심(佛心)가요'를 부르는 가수 오영민〈사진〉. 찬불가요와 맥락은 같지만 대중들에게 더 편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심가요'라는 말을 붙였다. 또한 오랜 시간 자신을 지탱해 온 '불심'을 곡에 온전히 담아내고 싶기도 했다. 그런 그가 '불심가요' 2집 '심향'으로 돌아왔다.

불자 가수 오영민이 2집을 발매했다. 이번 앨범은 그를 불교로 이끌어준 인생 스승이자 음악 스승인 故 원세휘 작곡가의 유작 10곡이 담겼다.

원세휘 작곡가는 70~80년대에 오승근의 '떠나는 님아' '미련' 등 많은 히트곡을 남긴 대중가요 작곡가로, 오 씨와는 1974년 처음 인연을 맺었다.

"처음에는 대중가요 작곡가와 가수로 원세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에 선생님께서 불교에 귀의하시며 불교음악에 전념하셨고, 원래 불자였던 저도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함께 불심의 길에 오른 스승과 제자는 의기투합해 '불심가요' 1집을 냈다. 스승은 대중음악에서 손을 떼고 대형 사찰 및 군법당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는 등 불교음악에만 전념했고, 제자는 그 뒤를 착실히 따랐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불심에 매달려 음악활동을 이어가기에는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 씨는 불심가요를 잠시 접어두고 조그만 가게를 차려보기도 하고, 야간업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97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오 씨도 사업의 쓴 맛을 봤다.

그런 그를 다시 한 번 불심가요로 이끈 것은 역시 원세휘 작곡가였다. "2015년 어느 날, 선생님께서 곡차 한 잔 하자며 저를 부르시곤 '다시 불심가요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대중가요도 해보고, 사업도 해봤지만 불심가요를 부를 때만큼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기에 저도 항상 미련이 있었거든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20여년 만에 다시 '불심가요'로 뭉쳤다. 변변한 공간조차 없어 자택에서 상 하나를 펴놓고 작업해야했지만, 늘 마음 한편에 담아뒀던 불심음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고 한다. 하지만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다. 원세휘 작곡가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것. 결국 원세휘 작곡가는 마지막 작업에는 참여하지 못한 채 올해 6월 작고했다.



가수 오영민의 불심가요 2집 '심향' 앨범 자켓.

'떠나는 님아' 등 작곡가 원세휘 불교계에서도 활발한 활동 펼쳐 직장암 판정받은 후 올 6월 작고

제자 오영민, 유작 10여곡 모아 20여년 만 2집 앨범 발표 '눈길'

"선생님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사장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작품을 맡기시며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 2집을 시작으로 사부대중을 위한 불심음반을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교계 곳곳에서 음성공양도 펼치며 불교음악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사리자여' '용서 하소서' '부처님 부처님' '봉정암' '오늘' 등이 수록됐다. 오 씨의 가요버전 뿐 아니라 오해이 씨의 클래식 버전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제작 삼보뮤직.

오영민은 1975년 KBS전국노래자랑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고향의 강변' '나의 사랑아' '별들의 사랑' 등 대중가요를 비롯해 '옴 마니 반 메 훔' '오! 나로 하여금' '마음 앓이' 등 불심가요도 발표했다. 국내 뿐 아니라 1987년 일본에 진출해 3집 앨범을 발매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3회 맞은 만해통일문학축전, 전년보다 규모 확대

8월 29일 심우장 일원서 만해통일문학축전 열려

제3회를 맞은 만해통일문학축전이 올해 학술발표회의 규모를 키워 더욱 풍성하게 열린다.

만해통일문학축전위원회(공동대회장 선진규 · 문효치)는 제3회 만해통일문학축전을 8월 29일 오전 11시~오후 5시 서울 성북구 심우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만해통일문학축전은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 및 민족문학 기여도를 조명함으로써 오늘날 통일한국의 미래사상으로 선양하기 위한 자리로 △기념식 △학술발표회 △통일염원 전국노인백일장 등으로 꾸려진다.

메인 행사는 '만해사상과 통일문학' 주제 학술세미나다. 1가지 주제로만 진행됐던 지난해 보다 규모를 키워 올해는 총 3개 발제로 진행된다. 기조발제는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한국종교학회장)가 맡았으며, 이밖에 △제1주제 '만해사상과 민족통일'(발제-박재현 부산동명대 교수, 논평-고영섭 동국대 교수 및 김영만 서울메트로법우회장) △제2주제 '만해의 독립사상과 통일문학 연구'(발제-장윤익 한국문인협회 고문, 논평-이혜선 한국문인협회 이사 및 함승현 대한민국여군총연합회장) 등의 주제 발제가 이어진다. 당일 오후 1~4시 진행.



통일염원 전국노인백일장은 전국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남녀가 참여하는 문학 행사로, 노인들의 문예창작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로 3회째 열리고 있다. 운문 및 산문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시상은 △장원(한국문인협회 이사장) 30만원 △차상(한국불교문인협회장상) 20만원 △차하(한국불교문인협회장상) 10만원 △장려(한국불교문인협회장상) 각 5만원 씩 8명 등이다.

참가신청은 전화로 하면 되며, 당일 오후 1시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시제는 당일 발표된다.

수상작은 계간 〈한국불교문학〉에 발표되며 소정의 등단절차를 거쳐 기성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당일 오후 1~3시 진행. 시상식은 오후 4시 30분.

기념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만해통일문학축전위원회는 "만해 한용운 스님은 혹독한 일제 탄압 속에서도 추호의 굴함도 없이 대쪽 같은 굳은 절개로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다. 이에 본 위원회는 스님의 독립정신과 민족문학을 조사 발굴해 집대성, 오늘의 남북분단 상황에서 선양하고자한다"면서 "특히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통일문학 발전 및 남북통일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02)379-4514 박아름 기자

우주 법계의 덕 '만다라'에 번뇌를 담다

도현 스님 개인전 '만다라 Thangka&세 번째 인연'


도현 스님 作, 아미타구존만다라, 면바탕에 분채, 130x130cm, 2016

30여 년 불화 작업에 매진해 온 도현 스님의 개인전이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 선+에서 열린다.

도현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불교미술을 전공, 1998년 우연히 네팔 불화를 접한 후 만다라와 인연을 맺었다. 스님에게 우주 법계의 온갖 덕을 표현한 만다라는 곧 번뇌를 담아내는 그릇이자 수행과 정진에 대한 자기 고백이다.

도현 스님은 "아무 것도 없는 백지에 부처님 세계를 그릴 때마다 출가자의 초발심을 생각했다. 출가할 때 마음가짐이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듯이 매번 하얀 백지를 대할 때마다 그 순수감과 열정을 잃지 않으려 했다"면서 "예술적 관점에서는 부족할지언정 신심과 수행의 도는 넘쳐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현 스님의 만다라 작품 10여점과 수월관음도, 사진작품 등이 소개된다. 전시는 21일까지. (02)732-0732 박아름 기자

법주사, 문화 향유하고 즐기는 '史視樂樂'

8월 19일 오후 2시부터 경내 일원서

조계종 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주지 정도)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사시낙락(史視樂樂)-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 행사가 8월 19일 개최된다.

이날 오후 2시~9시 30분까지 법주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세월을 반성하는 '점찰의 시간'을 시작으로 사물관람, 역사트레킹, 팔상전 탑돌이, 달빛콘서트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오후 8시부터 시작하는 '달빛 콘서트'에는 3인조 여성 보컬 그룹 '바버렛츠', 4인조 밴드 '몽니', 4인조 재즈그룹 '프렐류드' 등이 대거 출연해 한 여름 밤의 낭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참가 신청은 법주사 홈페이지(www.beopjusa.org)를 통해 가능하며, 행사 당일은 경내 무료 입장이 허용된다.

법주사는 이날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문화재청 문화재활용사업 일환으로 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에 계신 스님께서 내집처럼 생각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부부나 여자 2명을 모시고자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해부학을 전공하시고 중국 한의대를 나오신 스님께서 치료를 해서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께 중풍. 치매가 오지않도록 3번의 인연침을 놓아줍니다. 배독이란(몸속대청소) 1차는 위, 대장 속에 배변을 배출하고 2차는 간이나 오장육부에 붙어있는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1박 2일이 소요되고 배속에서 나온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혈관속의 피흐름을 보고 배독은 누구나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9373-3778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부가서비스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일정관리, 신도영가 기일 자동 알림,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물품관리 등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자연을 벗한 고승이 남긴 古刹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⑮ 고잔지(高山寺)



일본 고잔지 석수원의 산문. 본래 '조수인물회화'는 석수원에 봉안돼 있었으나 지금 복제품이 전시돼 있다. 원본은 특별전 등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많은 방문객으로 언제나 붐비는 인기 관광지인 교토 아라시야마(嵐山) 북쪽에 다카오·마키노오·도가노오는 단풍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교토 중심지에서 버스를 타면 아라시야마 가까이에 있는 닌나지(仁和寺)를 지난 후, 얼마 안돼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맴돌아 올라가면 도가노오산 고잔지 쪽으로 간다.

고잔지(高山寺)는 작은 산사이지만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고, 헤이안쿄 천도 1200주년인 1994년에 '고도(古都) 교토의 문화재'로 도지(東寺), 뵤도인(平等院) 등 교토를 대표하는 사찰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루마리 그림인 '조수인물희화'는 고잔지에 가 본적이 없더라도 일본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한국인에게는 화엄종조사회전과 원효대사상, 그리고 의상대사상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고잔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고잔지를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에 의하면 고잔지는 나라시대 후반인 774년에 고닌(光仁) 천황의 칙원(勅願)으로 창건되었고 신간지도가노오보(神願寺都賀尾坊)라고 일컬었다. 이후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오랫동안 고잔지 남서쪽에 있는 진고지(神護寺)의 별원이었다. 1206년에 고토바(後鳥羽) 상황이 화엄종 번영을 목적으로 사찰 땅을 묘에(明恵) 상인(上人)에게 하사했고 사찰 이름이 고잔지가 되었다. 고잔지는 진고지 별원이라는 입장에서 떠나 독립한 사찰로서의 걸음을 시작했다. 고잔지라는 이름은 화엄종에 유래하는 '일출선조 고산(日出先照高山)'에 의하여 지어졌다. 지금도 고잔지 석수원(石水院)에 걸려 있는 '일출선조고산지사(日出先照高山之寺, 해가 뜨고 제일 먼저 비추는 높은 산의 절)'라는 칙액(勅額)이 그때 상황이 내려준 것이라고 전한다.

현재 고잔지는 건물이 별로 없다. 창건 당시의 건물이 석수원 뿐이고 근세에 들어 재건된 것도 많지 않다. 옛날 많은 전각과 탑이 있던 곳엔 지금 큰 나무로 채워져 있다. 볼거리가 별로 없다는 인상이 생길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고잔지 본래의 모습이 오히려 거기에 있다. 그것이 묘에 상인의 넋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인가 싶다.

묘에 상인은 1173년에 오사카 남쪽에 위치하는 와카야마(和歌山)에서 태어났다. 8살 때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을 여의어, 다음 해에 외삼촌이 있는 진고지에 입산해 연찬을 쌓았고, 1188년 도다이지 계단원(戒壇院)에서 수계를 받아 승려가 되었다. 21세 때 화엄종 흥륭을 위해 도다이지에 출사(出仕)했으나 그만두고 23세 때 와카야마 산 속으로 옮겨와 순수한 수행 생활을 시작했다. 학문을 열심히 쌓은 묘에이지만 큰 사찰에서 학승들이 출세나 학문적인 관심만 있을 뿐 수행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수행을 중요시하는 묘에는

묘에 스님에게 하사된 고잔지
국보 '조수인물회화'로 유명해
4권에 각종 동물 의인화 표현
사찰 봉안·묘에 관계 '미스터리'

깊은 산 속에 들어간 것이다.

어렸을 때 어머님을 잃은 묘에 상인이 평생 어머님이라고 여겨 신앙한 것이 불안불모상(佛眼佛母像)이라는 불화였다. 그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불도를 닦겠다는 의지를 굳히기 위해 불안불모상 앞에서 오른쪽 귀를 잘랐다.

묘에는 암자를 몇 번 옮기면서 약 10년간 와카야마 산 속에서 수행을 했다. 이것이 위대한 성직자 스님으로서의 묘에 상인을 형성시키는 데 큰 토대가 되었다.

1206년 11월, 34세 때 고토바 상황에게서 고잔지를 하사받았다. 가마쿠라 시대에 돌입한 당시는 정토종, 임제종 등 가마쿠라 신(新) 불교가 발흥(勃興)했는데 묘에 상인이 화엄종, 진언종 등의 도량으로 가람을 정비했다. 묘에 상인이 정토종 개조인 호넨(法然) 스님이 오직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열심히 염불하면 모두 다 왕생할 수 있다는 전수염불을 주장하는 것을 비판해, 불법은 타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참선이라는 자력으로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행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학문을 잘하는 묘에는 저서도 잇달아 저술해, 불교계의 대표적인 명승이 되었다. 1232년 60세로 입적할 때까지 행법 좌선 수학을 열심히 했다. 초상화 '묘에상인수상좌선상(明恵上人樹上坐禪像)'에는 묘에 상인이 만년에 소나무 위에서 좌선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초상화 치고는 인물이 작게 그려져 있는데 자연 속에 인간이 있다는 것과 인간과 자연이 잘 조화되는 것을 그림에서 알 수 있다. 새와 다람쥐가 그려진 자연 속에서의 좌선상이라는 초상화는 가마쿠라 시대의 고승을 그린 초상화로서는 예외적이다.

묘에 상인이 개성이 강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어서 지금도 그의 매력에 빠진 팬이 많다.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꾼 꿈을 기록한 '유메노키(夢記)'다. 1191년에 시작해 이후 40년간 꿈을 기록한 일기에서 그의 솔직한 마음을 엿볼 수 있고, 꿈을 꾸면서도 불도를 구한 것도 유메노키에서 알 수 있다. 묘에 상인의 일기 '유메노키'엔 동물들도 등장한다. 강아지가 꿈에 나타난 적도 있다고 한다. 석수원에선 묘에 상인이 사랑한 귀여운 강아지 목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강아지를 보면 묘에 상인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고잔지의 수많은 문화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역시 두루마리 그림인 조수인물희화이다. 갑을병정(甲乙丙丁)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수인물희화는 모두 수묵화로 그려져 있고 글이 있는 일반 두루마리 그림과 달리 글도 없는 그림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4권 세트로 제작된 게 아니라 갑을권은 헤이안시대 후반, 병과 정권은 가마쿠라시대에 제작되었다.

갑권에는 의인화된 동물이 그려져 있고, 을권에는 말이나 소 등 실재하는 동물과 상상의 동물이 등장한다. 병권은 전반에 인물, 후반엔 갑권처럼 사람의 흉내를 내는 동물이 나오고, 정권에는 인물이 나온다. 그 중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것이 갑권으로 토끼·개구리·원숭이를 중심으로 여우·고양이·쥐 등 11종류의 동물이 수영과 씨름을 하는 모습이 생생히 그려져 있어 정말 재미있다.

고잔지 석수원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복제품이고 실물은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볼 수 없지만 박물관에서 실물을 전시할 때가 있어 3년 전 교토국립박물관으로 보러 갔다. 이 전시회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 일본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들로 매일 장사진을 이루었다. 나도 2시간 가까이 줄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다. 줄을 서면서 '동물 그림을 보기 위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갑권 동물들의 약동감이 가득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직접 실견하게 되면서 고단했던 몸도 불편했던 마음도 완전히 사라졌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줄을 서서 볼 것이다.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기회가 닿는다면 실견하시기를 권한다.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작했는지, 주제는 무엇인지 등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4권이 인간과 동물, 행사와 놀이 등 공통적인 요소는 있지만 글도 없기 때문에 연결된 한 이야기로 읽을 수는 없다. 언제 고잔지에 왔는지, 왜 고잔지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다. 묘에 상인과의 관계도 확실하지 않다. 그래도 동물을 사랑한 묘에 상인과 조수인물희화가 인연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글·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고잔지 답사 안내

고잔지에 갈 때는 교토역에서 출발하는 도가노오·슈잔행 JR버스를 타고 간다. 한 시간에 2번 정도 운행한다. 오사카에서 한큐 전철로 갈 경우 시조오미야(四 大宮)역에서 내리고 이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소요 시간이 시조오미야역에서 약 45분 정도이다. 또 지하철 시조역 혹은 한큐 가라스마역에서 교토 시(市)버스로 갈 수도 있지만 JR버스가 더 편리하다. JR버스 도가노오 정류장에서 내리면 큰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주변엔 식당이 있다. 식당에서 맑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게 기분이 참 좋다. 여기까지 오면 좋은 환경에서만 나오는 물총새도 있어 교토 중심지에서 맛볼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도 만끽할 수 있다.

사찰 출입구는 앞문, 뒷문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는 뒷문이 더 가까워 요즘 뒷문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뒷문에서 들어가면 석수원이 바로 나온다. 경내 답사는 석수원 외에는 평소에 무료로 볼 수 있고, 단풍철에만 경내도 입장료가 필요하다. 가마쿠라시대에 세워진 석수원은 고잔지 창건 당시에 건립된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고, 가마쿠라시대 건축물의 걸작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 금당 가까이에 있었으나 19세기 후반에 현재 위치로 옮겼다. 수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는 고잔지이지만 거기서 관람할 수 있는 문화재는 일부분이다. 하지만 석수원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정말 아름다워서 들어갈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인공적인 미가 특징인 교토 중심지의 큰 사찰들과 달리 석수원은 자연과의 경계가 없고 마음이 편안해져 툇마루에 앉아 산을 보면 거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경내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차를 재배한 곳으로 일본 최고의 다원(茶園)이라는 돌비가 있다. 묘에 상인이 일본에 처음으로 선종을 전한 요사이 스님이 송나라에서 가져온 차 씨앗을 받아서 고잔지 가까이에서 심었더니 질이 좋은 차가 되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우지차(宇治茶)는 고잔지 차 묘목을 옮겨 재배된 것이라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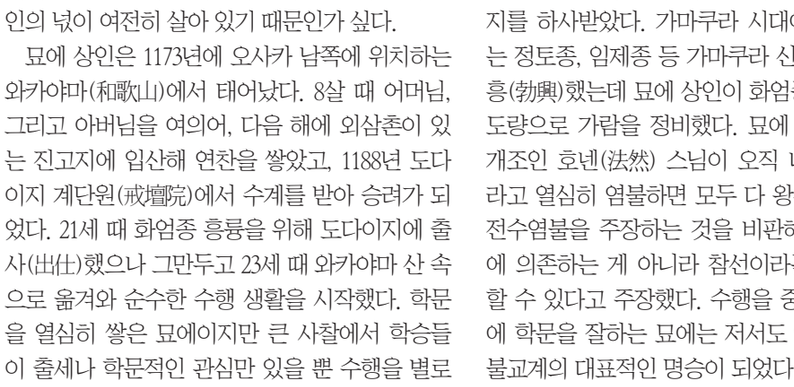
고잔지 주변엔 진고지를 비롯한 볼거리가 많아 거기서 답사하는 것도 좋다.

회향선원의 회향

회향선원(회향복지원)에서
평생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입주하시고 평생 거주가 가능하며
3년째 퇴실을 원하시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1층 : 12평 1억 (3人 까지 거주 가능)
• 2층 : 9평 5천 (2人 까지 거주 가능)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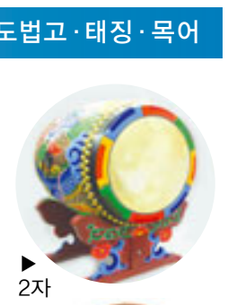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 2자


▶ 태징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대 구 지 사 : 손문철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 양행선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조동제 010-8642-7733
경남남부지사 : 청운스님 010-8554-0544
부 산 지 사 : 이도경 010-5640-8883
영 주 지 국 : 박영애 010-9373-3778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길

다시 길 위에 선다. 어디로 갈까. 하늘엔 흰 구름 흘러가고, 문 밖에는 개울물 흘러간다. 오늘은 어제보다 어렵다. 오늘이 어제보다 어려운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야 하기 때문이다. 초목도 매일 키가 크고, 산새 울음도 매일 다른데, 어디로 갈까. 구름을 따라갈까. 개울을 따라갈까. 구름은 소리 없이, 개울물은 쉼 없이 흘러간다.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⑯ 부처님 머리털과 백호상

부처님 남다른 모습엔 이유가 있네

'부처님 머리는 파마한 머리 같다. 이마에는 동그란 백호상이 아주 예쁘셔.'

부처님 앞에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어린이가 있대요. 부처님 머리가 정말 파마한 머리일까요? 백호상의 모습도 궁금할 테죠?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냐그로다 숲, 냐그로다 정사에 머물면서 가비라 나라 왕족과 백성을 위해 법회를 여신 일이 있지요. 오늘은 부처님이 부처님 모습에 대해서 설법을 하실 거라 합니다. 광명을 보이며, 법상에 앉은 부처님은 참으로 잘나고, 거룩한 모습이셨습니다.

부처님, 32가지 잘난 모습에는 정수리의 살상투가 그 하나요, 몸이 금강색인 것이 그 하나이며, 이마의 백호 흰털이 그 하나이며, 머리털이 남다른 것이 그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이르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라. 여래에겐 지금, 8만 4천 개의 머리털이 있다. 둘씩 마주보고 있지. 그것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달팽이모양으로 예쁘게 누워 있다. 그 머리털 구멍마다 반짝이는 다섯 광명이 솟는다."

부처님 설법은 옛날이야기보다 더 재미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궁중에서 싯다르타 태자로 자라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모가 태자의 머리를 감기고 있는 것을 본 이모 대애도(大愛道) 부인이, 유모에게 일렀습니다.

"싯다르타 태자의 머리에 기특한 점이 참으로 많다. 잘 살펴 두어라. 태어날 때부터 그러했다. 사람들이 태자의 머리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도록 길이를 재어 두자."

유모는 태자의 머리털을 펴고, 이모는 자를 들고 그 길이를 재었는데 한 길 두 자 다섯 치였습니다. 폈던 머리를 놓으니, 머리는 오른쪽으로 말려서 다시 달팽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부처님은 32가지 잘난 모습에서 머리털이 큰 몫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은 부왕께 물으셨습니다.

"부왕께서 여래의 머리털을 다시 보고자 하시옵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부왕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당신의 손으로 머리털을 펴셨습니다. 부처님 머리털이 냐그로다 정사로부터 부왕의 왕궁으로 벋어 왕궁을 일곱 겹으로 둘러쌌습니다. 머리털에서 유리빛깔 광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대중이 모두 놀라고 있을 때 부처님은 머리털과 광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머리털은 오른쪽으로 말려서 다시 달팽이 모양으로 정수리에 놓였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림 · 강병호

"부왕이시여! 이것이 여래의 진실한 머리털 모양이옵니다. 광명이 있고, 색상이 해의 바퀴와 같사옵니다. 부왕께서는 여래의 머리털을 바르게 관찰하셨사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이마의 백호상을 보이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신통력을 가지셨습니다. 사방을 걷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첫 법문을 하셨습니다. 땅에서 쏙쏙 연꽃이 솟아나, 아기 왕자의 발을 받쳐준 것도 신기했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언자 아시타 선인이 찾아왔습니다. 왕자의 잘난 모습을 살핀 뒤, 백호의 길이를 재었습니다. 이마 한가운데에 광명을 내며 동그랗게 모인 백호, 흰 털을 당겨서 자로 재었습니다.

"다섯 자가 넉넉하군"이라며 흰 털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하얀 털이 이마 한가운데서 오른쪽으로 말려, 동그란 보물구슬 모양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백호상을 관찰한 아시타 선인이 태자의 출가와 성불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부왕과 이모 대애도 부인은, 예언자의 말대로 태자가 출가할까봐 대궐문에다 소리가 크게 나는 빗장을 지르고, 창마다 수많은 방울을 달았습니다.

자물쇠를 단단히 걸어서 야차귀신도 뚫을 수 없게 하고,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허공에서 사천왕이 왕자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자님, 출가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궁궐에 들어가서 태자님을 모셔오고 싶지만 소리가 날까 두렵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자는 손으로 백호, 흰 털을 펴서 사천왕에게 닿게 했습니다. 사천왕은 하늘 비단처럼 부드러운 흰털 속을 걸어서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든 마부 차익(車匿)을 깨워, 태자의 애마 건척(乾陟)을 몰고 오게 했습니다. 차익이 말했습니다.

"지금 한밤중이어서 발걸음 소리, 말발굽 소리가 크게 들릴 것입니다. 파수꾼이 모두 알아차리면 어쩌죠?"

태자가 백호, 흰털을 풀었습니다. 차익이 비단결처럼 보드라운 흰 털을 디디고 걸어서 애마 건척을 몰고 오게 했습니다.

차익이 말했습니다. "태자님, 모든 하늘이 공손히 합장하고, 태자님 출가 공덕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어서 말에 오르십시오."

이렇게 해서 태자는 애마 건척을 타고 마부 차익과 같이 허공을 걸어, 궁궐을 벗어나 부처님이 될 수 있었대요. 아셨죠? 부처님 머리털 모양은, 부처님 잘난 모습의 하나예요.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 관상품(觀相品)〉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그림 족자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 × 145㎝ 가정용 45 × 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16나한도



달마도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3, 010-6701-7709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